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4 호 4 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7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4호 (137)

1957년 4월 25일

내 용

독자들의 편지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함남도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몇 가지 과업

함남도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경제 기관 일'군들 앞에서 하신 연설

김 일 성

나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함남도에 나오게 되였습니다.

나는 함남도에 체류하는 약 1주일 간 흥남 지구에서 주요 공업 기업소들, 신포 지구에서 수산업, 북청, 홍원, 함주 지구에서 농촌 형편을 보았으며 장진강 발전부의 복구 형편도 료해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나는 함남도 당 단체들이 3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도내 전체 주민들과 근로자들을 공화국 정부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웠으며 그들을 옳게 동원함으로써 3개년 계획을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넘쳐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1953년 10월과 작년 5월에 흥남 지구 3대 공장인 흥남 비료, 본궁 화학, 룡성 기계와 그 외의 일부 공장, 농촌들을 돌아 보았는 데 3개년 계획을 끝마친 오늘에 와서 다시 볼 때 기업소들과 농촌 면모의 변화가 확연히 눈에 띄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하는 큰 성과입니다.

정전 직후에 왔을 때 혹심히 파괴된 흥남 공장들은 나에게 비참한 인상을 남겼였습니다.

당시 파괴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심하였었는 바 너무도 어처구니 없어 공장 복구를 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학생들이 복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화학 공대를 찾아 가 선생, 학생들과 담화하고 우선 그들이 동원되여 공장들의 파괴 정형을 조사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제 일 같은 데 그 공장들이 오늘은 벌써 훌륭히 복구되여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우리는 장진강 발전소들도 가 보았습니다.

1953년에 왔을 때보다 이곳은 얼마나 질서가 잡혔습니까! 파괴된 발전기들 중 벌써 절반 이상이 작업하고 있으며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고무된 로동자들은 래년 말까지에는 나머지 발전기들을 다 복구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정전 직후 어선들이 거의 다 파괴되였고 있는 배도 어구와 기타 설비가 보잘 것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조선소들의 복구를 촉진하였으며 열구 엔진 생산을 조직하였습니다. 결과 3년이 지난 오늘 국영 수산 사업소들은 전쟁 전보다도 어선을 더 많이 가지게 되였습니다. 어획고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농촌을 봅시다. 정전 후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협동화 운동에서 우리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함남도의 몇개 군의 농업 협동 조합을 방문하고 료해한 바에 만 의하더라도 농업 협동 조합들에는 대체로 경제 토대가 수립되였으며 농민 생활이 정전 직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쌀을 달라는 곳은 없고 자동차와 기계를 공급해 주며 중학교를 더 많이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농촌에서 식량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습니다. 함남도에서는 작년에 호당 평균 1톤 500키로그람의 알곡이 분배되였는 데 이것은 식량이 여유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현금 수입도 많습니다.

도'적으로 평균하여 호당 1만 여 원이 분배되였으며 개별적으로는 5—6 만원씩 분배 받은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조합원들의 정치적 기개도 좋고 조합 관리 일'군들도 좋으며 그들은 협동 경리를 운영할 수 있는 초보적 경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농 방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개변을 가져 왔고, 토지 리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농촌의 사회주의 개조 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그것은 당의 전후 경제 정책의 정확성을 확증하여 주며 전체 인민과 당원들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또한 함남도 당 단체가 당 중앙의 결정과 로선에 튼튼히 립각하여 사업을 옳게 조직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공업과 농업, 수산업 등 인민 경제 여러 분야들에서 달성된 성과들은 우리 당의 조직 동원적 역할과 우리 근로 인민의 헌신적 로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비상한 로력적 열성을 불러 일으킨 12월 전원 회의 이후 우리의 사업은 더욱 흥겹게 되였습니다. 고조된 사상적 동원 태세로 보아 5개년 계획도 3개년 계획과 같이 승리적으로 완수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물론 사업 집행에서는 곤난도 있고 결함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함남도 당 단체들이 곤난을 극복하고 결함들도 제때에 시정하면서 당 중앙의 정책을 정확히 실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도당 단체들과 지방 정권 기관 및 경제 기관들이 경제 지도 사업에서 주요하게 주의를 돌려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1, 공업에 대하여

이번에 함남도 몇 개 군들을 돌아 다니면서 농민들과 담화하여 보니 그들은 식량을 더 생산하겠으니 비료를 더 달라, 집을 짓겠으니 쎄멘트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 정책의 기본을 규정하여 주는 객관적 요구입니다.

5개년 계획에서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회주의적 공업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타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체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자면 모든 것이 중공업에 의존되기 때문입니다.

식량을 증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를 발전시켜야 하며 우선 농기계, 농약, 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비료 생산을 위하여서는 화학 공장과 발전소가 복구되여야 하며 농기계를 생산하려면 기계 공장과 제철, 제강소들과 광산이 작업해야 합니다.

수산업도 그렇습니다. 물고 기를 바다에서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구와 어선들이 필요하며 배를 만들려면 엔진을 생산해야 하므로 기계 공업이 선행하여야 합니다.

집을 짓는 데는 쎄멘트, 목재, 철근이 요구됩니다. 철근 생산은 제철 공업이 있어야 하고 쎄멘트 생산은 화학 공업이 있어야 합니다.

입는 것은 경공업이 주는 데 방직 공업도 앞으로 자연 섬유가 부족한 조건에서 화학 섬유에도 의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벌써 중공업에 의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업들이 전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 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규정한 우리의 경제 정책은 정당하며 바로 이 중공업이 함남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데서 함남도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 및 경제 기관들에게 부과된 과업은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5개년 계획 기간에 비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흥남 지구에서 적어도 1년에 류안 비료 25만톤, 질안 비료 13만6천톤, 과린산 석회 약 15만톤, 석회 질소 약 3—4만톤을 생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나라에서 화학 비료를 논에 정당 400—500키로그람씩 주어 안전답에서 정당 평균 4—5톤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밭에는 정당 150—200키로그람을 주어 정당 평균 2톤 이상을 수확하며 과수원에는 정당 700키로그람 내지 1톤씩 주어 정당 평균 10톤 이상의 사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어려운 목표입니다.

우리는 본궁 화학과 흥남 비료 공장 복구와 질안 직장 건설을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 단체들과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사업을 잘 조직한다면 목표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흥남 비료 공장 일'군들은 복구 첫 시기에 변류기를 불과 몇대 밖에는 복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변류기들을 다 복구할 수 있게 되였으며 2대 만이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대도 금후 가능성이 발견되여 복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보아 나는 여러 동지들이 조직 동원 사업을 능숙하게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비료 문제는 1—2년내에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도당 단체들이 흥남 비료 공장 복구에 많은 힘을 기울였지 만 아직 부족합니다. 전체 힘을 비료 공장 복구 또는 질안 직장 건설에 돌려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금년 중으로 비료 공장 복구와 질안 직장 건설을 완성하자는 것이 당 중앙의 방침입니다. «모든 것을 비료 공장의 복구 건설에 복종시키라» 우리의 구호는 이렇습니다.

단천 린광 개발을 촉진시키며 금후 선광장도 건설하여 과린산 석회 15만톤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959년에 5만톤, 1960년에 10만톤, 1961년에 15만톤의 과린산 석회를 생산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덕 광산에도 일상적인 당적 주의를 돌려 류화 철광 생산 능력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궁 화학 공장과 흥남 비료 공장의 암모니야 계통을 완전히 복구하여 10만톤 이상의 암모니아 생산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공업 분야에서 함남도 당 단체들이 다음으로 류의해야 할 것은 본궁 화학 공장에 초산 비닐 공장 건설을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조 독해당 전문가들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데 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명년부터라도 초산 비닐 공장 건설에 투자를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는 염화 비닐 공장 건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남도 지도 일'군들은 본궁 지역에 금후 5개년 계획 기간에 대규모적 건설 공사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초산 비닐을 생산하여야 섬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자연 섬유를 제외하고 팔프 섬유와 화학 섬유를 대량 생산하도록 하여야 만 우리 나라에서 섬유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직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흥남 지구에서는 눈부신 투쟁이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가 질안 직장 건설을 금년 중으로 완성할 것을 호소하였는 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일'군들은 그 중요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룡성 기계 공장 일부 일'군들은 질안 직장 건설장에 부속품을 제작 공급하는 것을 «남의 제미»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결정을 «내 할 일인가, 네 할 일인가» 하고 서로 밀고 있습니다. 일부 소극적 건설 일'군들은 «이것이 없소, 저것이 없소» 하면서 아직 사상적으로 발동되지 못하고 중앙으로부터 «금년에 못하면 래년으로 밀자»는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강조합니다. 질안 직장은 반드시 금년 중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만일 주철관 납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체로 주철관을 생산합시다. 고용살이적 태도를 버리고 공산주의 건설자다운 태도로써 이 공사에 대한다면 못할 리가 없습니다. 사업의 실천 단계에 있어서는 항상 첫째로 사상 동원, 둘째로 간부 일'군들의 지도 능력 제고, 세째로 물질적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옳게 결합해야 할 것입니다.

동무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흥남은 우리 나라의 대공업 지구이므로 근로자들의 가정에 대한 연료 공급 문제가 응당 도당과 시당 또는 기업소 지도 일'군들의 관심사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료 문제에 있어서 상업 기관들이 배정하는 무연탄에 대해서 만 시비되였지 실지적으로 필요한 량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본질적 대책은 지금까지 취하여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근 년간 세번째 함남도에 왔는 데 올적마다 연료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동무들이 도내 탄광, 례컨대 고원 탄광에 기술적, 물질적 방조를 제공하여 채탄량을 높이도록 사업을 잘 조직한다면 왜 무연탄 공급이 중단되겠습니까? «석탄 더미 우에 앉아서 석탄이 없어 운다»고 3차 당 대회에서 지적된 말을 잘 연구하였다면 엎어지면 코 닿을 고원에 탄광을 두고 석탄 고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 부문에서도 급속한 시일 내로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발전소들을 완전히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진강 발전부 동무들은 5호 발전소 건설을 제기하였는 데 이것은 매우 훌륭한 창발적 의견이며 답사 설계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 부문에는 성을 비롯하여 새 것이나 큰 것 만 하려는 그릇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력 계통에서 발전량의 막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2월 전원 회의 이후 전기 부문 일'군들은 당의 비판을 접수하고 많은 전력 예비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존 발전소와 송전망들을 더욱 정비하며 언제를 보충하며 물의 리용률을 더욱 높임으로써 발전을 더 많이 하도록 하며 또한 전력 소비에 대한 강한 통제를 실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소 내부의 화력 발전소들도 다 복구하여 리용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산업에 대하여

함남도는 수산업의 비중이 큰 도입니다. 3개년 동안에 수산 사업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의 요구에 비하여 거리가 멉니다.

수산업에 대한 당적 주의가 더 돌려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업의 발전은 식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아직 알곡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3면으로 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발전이 극히 굼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산 부문이 지금까

지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은 당이 항상 강조하는 다종 다양한 어업, 특히 중 소 어업, 심해 어업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발동선을 포함한 어선들을 많이 건조할 것이며 어로 일'군들의 충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군 탐사를 위한 비행기도 배속시킬 것이며 또는 필요한 일체 기자재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쏘련, 일본 및 기타 외국의 경험을 연구하여 보아도 수산업에서 중 소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중 소 어업은 우리 나라의 경제 형편에서 더욱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낙도 하고 자망도 놓고 전광 어업도 하여 맛있는 고급 어족을 많이 잡아야 하겠습니다.

어선들은 다양한 어구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전일 신포 지구 수산 일'군들과의 담화에서 함남도 수산 트레스트 지배인은 멸치 그물을 해결한다면 함남에서 멸치 1만 7천톤을 더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적은 수'자가 아닙니다. 왜 1만 7천톤의 물'고기를 잡지 않고 잃어 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망 사업을 광범히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수산 부문에서는 다각적 어업이라는 술어는 잘 외우고 있으나 그것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수산 문제에 대한 당 결정이 잘 침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물론 중 소 어업을 발전시킬 것, 다양한 어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간단히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자들은 무엇이 다양한 어업인가, 중 소 어업이란 무엇인가, 그를 발전시키자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천 방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산업, 특히 중 소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광범히 어선, 어구의 생산을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륙대 수산 협동 조합에서는 2명이 타는 작은 목선으로 년 5—15톤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돼지 고기와 물'고기의 대비를 3대 1로 본다면 한 명의 어로 일'군이 돼지 고기 2톤을 생산한 계산으로 됩니다. 돼지 고기 1톤을 생산하려면 25두(한 마리를 40키로그람씩 계산하여)를 사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륙대 수산 협동 조합에서는 1명의 로동자가 50두의 돼지를 사료 없이 사육하였다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중 소 어업을 위하여서는 발동선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30—40마력의 발동선을 많이 건조하여 수산 사업소들과 수산 협동 조합에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척의 발동선이 수척의 어선들을 끌고 나가 물'고기를 잡는다면 어획고를 훨씬 제고할 수 있습니다. 륙대 수산 협동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배 이상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산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잡은 물'고기를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먹을 수 있게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목통과 상자 생산을 더욱 증대해야 하겠습니다. 수산물을 가마니에 넣어 공급하므로 선어를 먹지 못하고 상한 것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맛 있고 시원한 굴에서 물을 짜 버리고 슴슴한 껍데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신포 제통 공장에 가 보니 생산 능력은 괜치 않지만 목통 규격이 너무 작고 그 질도 좋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큰 것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송어, 방어, 고등어, 가재미 등 고급 어물들을 목통에 넣어 절구지 않는다면 판매할 수 없는 제도를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 일'군들은 수산물 가공 사업을 대단히 경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태에는 맛 있는 것이 배 속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공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애, 알, 밸 등 제일 영양 가치가 많은 것은 다 던지고 껍데기 만 먹게 됩니다.

명태에는 평균 약 7.5%의 명란(가공할 수 있는 것은 5%), 약 1.7%의 창란, 약 1.5%의 간유(애는 4%)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함남도 국영 수산에서 만도 약 6천톤의 명란, 약 2천톤의 창란을 가공할 수 있으며 약 1천 8백톤의 간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량의 명란, 창란, 간유가 어디로 갔습니까?

수산 일'군들은 여기에 대하여 아직 착안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담하게 가공 사업을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5개년 계획 기간에 랭동 시설을 더욱 확장해야 하겠습니다. 100마력 정도의 압축기를 제작하여 매개 수산 사업소들과 큰 수산 협동 조합에 랭동 시설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산 20—30톤 능력을 가진 랭동 공장들을 도처에 설치하여 소비지들에 충분한 량의 선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되겠습니다.

함남도에서는 수산 사업소, 수산 협동 조합, 반농 반어 협동 조합들을 더 많이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농촌들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반농 반어 협동 조합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뜯어 먹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뜯어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리유로 이 말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수산 일'군들은 옳지 못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장이 좁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를 보십시오. 해안선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함남도는 특히 해안선이 깁니다.

토지 면적이 적은 함남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해변'가 농촌들이 수산업을 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산 부문에서 끝으로 지적할 것은 수산 기술자 양성 문제입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수산 전문 학교에서 만 기술자를 양성하여서는 그 수요를 시급히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통신 강좌, 수산 기술 강습을 광범히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 부문에는 젊은 기술자들이 적으며 따라서 낡은 경험을 고집하며 새 것을 받아 들이기 위한 투쟁이 미약합니다.

우리는 기술 없이는 사업할 수 없으며 전진할 수 없습니다. 수산 부문에 청년들을 더 많이 고착시키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은 새 것을

좋아하며 대담하게 새 것을 받아 들이며 보수주의와 락후한 것과의 투쟁에서 앞장에 섭니다. 수산 협동 조합과 반농 반어 협동 조합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강습을 그들 자체 부담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수산 협동 조합이나 반농 반어 협동 조합으로 이행하려는 농업 협동 조합에서 어로반원들을 수산 사업소 또는 수산 협동 조합에 몇 달씩 파견하여 견습하는 사업도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산 협동 조합 또는 반농 반어 협동 조합들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수입이 많은 조합원들의 소비와 지출을 잘 보살피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산 협동 조합과 반농 반어 협동 조합은 3년간 간고한 투쟁과 그들의 열성적 로력의 결과 부유하게 되였습니다. 지도 기관들은 그들의 문화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영 수산 사업소들에서는 어로 로동자들에게 더욱 배려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신포 수산 사업소는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적은 바 바다에서 돌아 오는 로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어장은 극히 불결합니다.

신포 수산 사업소가 전후 3년간 계속 자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고 봅니다.

3. 농업에 대하여

몇 개 농업 협동 조합들을 방문하는 과정에 뚜렷이 눈에 띄운 것은 농촌을 협동화한 결과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앞으로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 함남도에 와서 농업 부문에서 모범적인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여 몇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함남도에는 토지 면적이 적은 조건하에서 토지 리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이미 북청, 홍원 지방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홍원군에는 지난 해 옥수수를 주작하고 콩과 마령서를 간혼작한 밭이 전체 옥수수 파종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1 500 정보였는 데 그중 700정보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 리용률을 250—300%로 제고하였는 바 정당 평균 옥수수 1톤 500, 마령서 12톤, 콩 2백키로그람의 수확을 거두었으며 이것을 알곡으로 환산하면 정당 4톤 7백을 수확한 것으로 됩니다.

홍원읍 기양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밭 2정보에 마령서를 주작하고 옥수수, 소채, 콩을 간혼작하여 토지 리용률을 350%로 제고하였는 바 정당 평균 마령서 24톤 3백키로그람, 옥수수 4톤 5백키로그람, 콩 630키로그람, 소채 25톤의 수확을 얻었으며 이것을 알곡으로 환산하면 정당 15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은 전국적으로는 고사하고 도'적 범위에서도 보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소책자로도 쓰고 신문에도 게재해야 하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선진적 영농법을 보급하지 않겠습니까?

북청군에서는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까지 사과나무를 심어 토지 리용률을 높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북청군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북청군 같이 토지를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에는 수만 정보의 과수원을 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수 재배에 있어서 북청군의 경험을 전국적으로 보급해야 하겠습니다.

함주, 홍원, 북청군 농민들과 담화하여 보면 그들은 자기 지방에서 랭상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랭상모는 일찍 이앙 할 수 있으며 륙상모와 수모를 계단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함남도에서도 명년도에 전체 논 면적에 대하여 랭상모를 20% 이상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랭상모를 실시한다면 적어도 1톤, 잘하면 3—4톤의 수확을 더 낼 수 있으며 만약 1톤씩만 더 낸다고 하여도 륙전을 1정보씩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천 정리 사업과 토지 건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하상이 경지보다 더 높아졌으며 강이 범람하여 수재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치산 치수는 농사의 대본이며 그래야 나라가 륭성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리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모래를 파내고동'둑을 쌓고 도랑을 정리하고 사방림을 조성하여 그야말로 치산 치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북청 지방은 토지 리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토지 정리도 잘 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 정리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함주, 퇴조 및 함흥 이남은 토지 정리는 더 말할 여지 없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논 두렁이 넓고 크고 도랑이 제멋대로 늘어졌고 폭탄 구멍이 3년 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 정리와 토지 건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투자도 하고 해당 건설 기계들을 많이 제작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인력과 축력으로써 협동 조합 자체에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하천 정리 사업과 토지 건설 사업은 농업 부문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 조합들은 중 소 관개 공사를 더 많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중 소 관개 공사를 광범히 전개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하나는 농민들 자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국가는 필요한 자재를 판매하여 주며 기술적 지도를 주는 것과 둘째로는 관개 사업소들에 공사를 위탁하고 농민들이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는 대규모적 관개 공사는 할 것이지만 수 많은 대상의 중 소 관개 공사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농민들이 위탁 공사 비용을 단꺼번에 갚을 수 없다면 2—3년 내에 지불할 수도 있고 농민 은행 대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급 비료 생산을 위하여서는 무축 농가를 퇴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집마다 돼지, 염소를 많이 기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어비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어비로 될 수 있는 해산물(상발)을 시험소에 보내여 그 성분을 분석할 것이며 그의 대량적 채취 방법을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 사업소들과 수산 협동 조합에서는 어한기에 어비를 생산해야 하겠습니다. 반농 반어 협동 조합은 물론 수산 협동 조합과 수산

사업소들에서도 전부 어비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금번 북청 지방의 과수업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들을 리용하여 새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산비탈들에 과수 적지를 조사 탐구하여 함남도에서도 5개년 계획 기간에 1만 정보 이상의 과수원을 더 확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묘목을 많이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나 하기만 하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산간 지대에까지 접목의 방법으로 과수 재배를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일본 시대의 전지 방법은 사과 생산고를 감소한다고 하므로 그 방법을 버리고 아지를 많이 남기는 선진 방법을 보급해야 하겠습니다.

분무기, 고무 호스, 농약 등을 제때에 공급하는 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매개 협동 조합에 과실 저장고를 건설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이에 필요한 쎄멘트를 배정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야생하는 열매, 나물들을 계획적으로 양식 채취 가공하는 사업도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함남도에는 이와 같은 식용 야생물들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뜯어 먹으라》는 말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돌'배나무에 과수를 접하거나 머루, 다래, 들쭉, 산딸기를 채취 가공하거나 버섯, 고사리, 도라지를 번식하는 것은 산간 지대 농민들의 현금 수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번식 가공하는 방법을 선전하며 강습을 조직하며 적당한 곳에 가공 시설들을 지방 산업이나 생산 협동 조합 계통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식물학자들과 교원들을 인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봉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산짐승들과 강과 호수의 물'고기들을 전문적으로 보호 증식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폭약과 독약으로 물'고기와 산짐승들을 멸족하는 행동을 내무 기관은 철저히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농업 부문에서 끝으로 농업 기술 일'군 양성과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 몇 마디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요사이 며칠 동안 도내 몇 개 군의 농업 협동 조합들을 방문하다가 어제 처음 한 명의 농업 기수를 만나보게 되였습니다. 전번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경리 형태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반드시 기술적 개조가 동반되여야 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협동 조합들에서는 모두 기계, 자동차, 뜨락또르, 심지어 불도젤까지 달라고 제기하였으며 어떤 녀성은 녀성들이 머리 우에 짐을 이고 다니는 것은 곤난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 농촌이 기술적 개조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 기계를 조종하며 선진 기술과 영농법을 도입함에 있어서 핵심으로 되여야 할 농업 기술자

의 부족입니다. 때문에 농촌 기술 일'군의 양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당 단체들은 농촌에 기술 연구 크루쇼크를 많이 조직하여 농업 기술 통신 강좌에 지식 청년들을 광범히 망라하며 농사 시험장에 견학단을 파견하는 사업도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당 중앙에서 이미 결정한 대로 농업 기술 양성소를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농업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농업 전문 학교 사업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협동 조합이 조직되기 전에는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매개 농호의 호주가 책임졌지만 협동 조합이 조직된 오늘에 와서는 우리 당 단체가 책임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농업 협동 조합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조합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선차적으로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함남도 당 단체들이 금년도에 도'적으로 매호당 평균 알곡 2톤 이상, 현금 2만—2만 5천 원의 분배를 받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를 달성할 것을 바랍니다.

4. 농촌과 군 소재지 건설 사업에 대하여

우리는 농촌과 군 소재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 특히 1957년과 58년 량년 간에 우리는 건재를 대대적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쏘련의 원조로 신마동 쎄멘트 공장의 건설과 승호리와 해주 쎄멘트 공장의 복구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쎄멘트 생산 수준은 년간 150—200만톤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석탄도 많고 석회석도 많습니다.

또한 1958년에는 철근도 10만톤 이상 생산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59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대규모적 건설에 충분한 자재를 공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농촌과 군 소재지 건설 준비를 잘 하여야 합니다.

보건대 함남도에도 좋지 못한 집들이 많습니다. 함흥 근처와 그 이북은 비교적 나으나 함흥 이남 지방의 집들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농촌과 군 소재지 건설을 위하여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까?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건설 작업반을 조직하여 현재 있는 집들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벽도 고치고, 문도 고치고, 굴뚝, 배수구, 이영도 고쳐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집도 제때에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설 작업반의 조직은 비단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설 기능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농촌의 면모를 새롭게 개조하자면 지금부터 이러한 기초적 준비가 진행되여야 합니다.

현재 군 소재지 건설에서 목재 랑비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비판하고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함흥에는 토피로 집을 짓은 좋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내려가 보면 집을 새로 짓는 데 모두 목재를 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업하지 말고 돌이나 혹은 토벽돌로 벽체를 쌓고 목재로써는 연목과 문을 만든다면 목재를 훨씬 절약하여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집도 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설에서 지방 자재를 많이 리용하는 데 주목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벽돌이라든지 돌같은 것을 건축에 많이 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쎄멘트를 국가에서 줄 것인 바 자체로 기와를 만들어 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에 가 보면 농민들의 생활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집을 짓겠으니 자재를 달라》고 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은 지방적 가능성을 옳게 동원하여 능히 보장할 수 있는 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집을 짓는 데 되는 대로 하는 습성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초도 쌓지 않고 집을 짓습니다. 물어 보면 《림시 건물인 데 무슨 기초가 필요한가》고 합니다. 토벽돌로 집을 지으면 수십년 쓸 수 있는 데 이것이 왜 림시 건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과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군에 건설 협동 조합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서로 서로 도와서 이번에는 이 사람의 집을 짓고 다음에는 저 사람의 집을 짓는 등 방법으로 건설 사업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함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에 대한 지도를 바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건설이 규모 있고 아담하게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농민들은 보고 배운 것이 적으며 그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집밖에 모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건설 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한 강습도 조직할 수 있고 건설 전문 학교에 통신 강좌도 설치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속성과를 두어 농업 협동 조합 건설 작업반에서 몇 명씩 청년을 선발하여 공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학교 건설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농촌에 벽돌만으로 2~3층의 학교를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토벽돌로써 단층이라도 알뜰하게 지으면 훌륭한 것이며 이렇게 하면 목재를 많이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개 농업 협동 조합들이 힘을 합하여 학교를 하나씩 짓는 방법도 좋습니다. 농민들은 생활 여유가 생기게 되자 교육 사업에 대한 요구를 더 크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초급 중학교를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어떤 학생들은 초급 중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10~15리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호만포 같은 곳에서는 초급 중학교를 경영할 만한 건물도 있고 선생도 자비로써 부담할터이니 중학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교원 폰트가 없어서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교원을 파견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7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데 이와 같은 방법은 그에 필요한 한개의 준비 사업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농업 협동 조합에서 진료소나 가축 병원도 자체로 건설하며 자체 부담으로 경영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농촌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문화적 요구는 높아졌습니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성이나 각급 인민 위원회들에서 의사나 수의들을 양성하여 파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약들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지방 인민 정권 기관 사업에 대하여

나는 도 인민 위원회를 비롯한 관하 각급 인민 위원회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 인민 위원회와 시, 군 인민 위원회들의 사업이 군중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결함입니다. 도, 시, 군 인민 위원회들은 주로 농사에 많이 매달리고 있으나 그것조차 잘 지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적게 돌려지고 있는 상업, 보건, 교육 사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방 인민 위원회들이 교육 사업을 지도한다고 하면 신학년도 준비나 돌보아 주는 정도이고 교원들의 교수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교양 사업을 옳게 검토 시정하는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 사업에서는 문서에 수표나 하여 주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지도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에서 보건 위생 사업이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욕탕과 세탁소의 경영은 고사하고 청결 사업이나 우물 정리조차도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도, 시, 군 인민 위원회들은 현재 보건 사업이나 교육 사업에서 거의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급히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류통 부문에 대하여서도 지방 인민 위원회는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로동자 지구에 상점이 잘 포치되지 못하였으며 또 그러한 상점들에 식료품들이 아주 적은 것이 현재 결함입니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인상되였으며 그들은 많은 식료품을 요구합니다. 이를 우리는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업 기관들이 농업 협동 조합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란, 채소 등 식료품을 많이 가져다 제때에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 경영 사업도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민 위원회들은 지방 정권 기관의 역할을 옳게 수행해야 하겠는 데 이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인민 위원회는 지방에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남도 인민 위원회에서는 분공을 옳게 하고 현지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가지고 간부들을 동원하여 현지 지도를 하였는데 그것이 아주 큰 효과를 주었습니다.

홍원군 어떤 반농 반어 협동 조합에서는 군 인민 위원회에서 현지 지도를 좀 해달라고 솔직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남도 각급 인민 위원회들이 꼭 현지 지도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며 하급 인민 위원회 사업들을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6, 당 사업에 대하여

나는 인민 경제 지도에서 도당 단체들의 과업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우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당 단체들이 반드시 류의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더 말하려 합니다.

도당 단체는 농촌에서 발생되는 비계급적 현상과 투쟁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의식을 개조하지 않고는 협동 경리를 더욱 강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농업 협동 조합들의 형편을 보면 조합에 가입한 자들 중에는 고리대를 놓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부족하게 한 결과이며 농민 은행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대부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농민들 속에서 리기주의와 투기 사상을 반대하는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들에게 지주 밑에서 압박과 착취를 당하던 과거를 회상시키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내에서 탐오, 랑비하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분적이나마 경제 건설에서 당의 정책을 망각하고 되는대로 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 설비를 잘 리용하지 않고 덮어 놓고 새로운 것만 요구하는 것도 당 정책의 위반입니다. 도당에서는 항상 당 정책을 견지하며 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도당 산업부나 농업부 등 경제 부서들이 행정을 대행하지 말고 당 정책을 침투시키며 당원들과 군중들을 조직 동원하는 사업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례컨대 수산 부문에 대한 지도에서 농업부는 수산 부문에 대한 당의 방침이 무엇인가를 이 부문 일'군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를 실천하도록 간부들과 군중을 동원시키는 것이 당 단체의 사업입니다. 당에서는 당 정책 집행 정형과 결과를 검토하며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도록 하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못된 것을 잘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 사업이며 이렇게 하여야 경제 건설에 대한 당의 정책을 틀어쥐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계속 침투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결정을 철저히 침투시켜 모두 다 한결같이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상에서 경제 지도에서 함남도 당 단체 앞에 제기되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함남도 당 단체가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성과 있게 실천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3차 당 대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한 상 두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1956년 4월 23~29일)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

제3차 당 대회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당과 조선 인민의 정치 생활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진술하신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와 그에 대한 결정 및 기타 모든 대회 문헌들은 지난 대회 기간 뿐만 아니라 조선 혁명 발전의 전 행정과 현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에 기초하여 현 계단에서 당과 인민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절실한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었다.

당 대회가 제시한 길을 따라 전진하여 온 지난 1년간의 실제적 경험들은 매개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의 사상 의식 속에 이 대회가 가지는 력사적 의의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침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3차 당 대회의 력사적 의의는 무엇보다 먼저 이 대회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강령을 제시한 대회라는 데 있다.

제3차 당 대회는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당의 로선을 다시금 천명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구체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것은 사회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인 로정이며 조선 인민의 사활적인 리해 관계를 표현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방도에 관한 문제가 당 대회의 전 준비 행정에서와 대회의 모든 문헌들에 일관된 중심적 문제로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제3차 당 대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당과 인민의 절실한 념원과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도를 천명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확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가일층 공고화하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반인민적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을 혁명적 진출에로 호소하였다.

제3차 당 대회는 당 건설 분야에서 일련의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가하였으며 우리 당의 투쟁 력사를 개괄하면서 우리 당 발전의 특성과 그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과 결론들을 내리였다. 특히 대회는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하며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의 당성 단련을 촉진시키며 당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제반 대책들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하였다.

제3차 당 대회의 문헌들에는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정신들이 신중하게 참작되였

으며 제3차 대회의 전 행정에서 쏘련을 향하여 진지하게 배우며 쏘련 인민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확고부동한 념원이 표명되였다.

제3차 당 대회는 지난 시기에 당 중앙 위원회가 집체적 지도에 관한 레닌적 규범을 철저히 옹호 준수하면서 조선 혁명 앞에 제기된 비상히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였다는 것을 만족하게 지적하고 김일성 동지를 위수로 한 새로운 당 중앙 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이리하여 당 중앙 위원회는 조선 혁명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고무자이며 당의 뇌수이며 최고 참모부로서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을 계속 명철하게 수행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에 전 당과 전체 인민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여 제3차 당 대회가 제시한 총 로선의 실현을 위한 긴장한 투쟁을 전개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각 령역에서 커다란 변천들을 이루어 놓았으며 또 이루어 놓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제3차 당 대회 결정 실행을 위한 지난 년간의 경험을 신중히 종합 연구하면서 대회가 제시한 총 로선의 실현에로 전 당과 전체 인민들을 더욱 정확히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 *

당 대회가 제시한 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당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

제3차 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경제 건설에 대한 당의 총적 방향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의거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며 그 기초 우에서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시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경제 정책은 과도기의 첫 시기로부터 일관되여 온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의 확고 부동한 기초이다. 우리 당의 이러한 경제 정책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40년 간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 리론의 정당성을 충분히 실천적으로 확증한 쏘련 공산당의 풍부한 경험들에 의거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과도기의 구체적인 사회 경제 조건에 근거하여 수립되였다.

주지되여 있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강력한 과학 기술적 장비와 그에 근거한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 생산력의 급속한 앙양에 기초하여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의 법칙이며 또한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이다. 이 법칙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현대적인 기계 공업을 가진 중공업을 창설 발전시키는 데 있는바 중공업은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의 기초이며 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와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기술적 토대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재생산에 관한, 특히 확대 재생산에 관한 리론을 천명하면서 사회적 생산의 두개 부류 즉 생산 수단의 생산과 소비재의 생산간의 호상 관계를 밝히였으며 이에 있어서 전자의 우선적 발전이 사회적 부의 부단한 확대 재생산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을 론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중공업을 구원함이 없이는, 그것이 부흥됨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산업도 건설할 수 없으며 또 산업이 없이는 우리는 도대체 독립 국가로서는 멸망하고 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후과와 3년간의 가혹한 전쟁에 의하여 인민 경제의 전반에 걸쳐 형언할 수 없는 혹심한 파괴를 당한 우리 나라의 력사적 조건하에서 중공업을 창설하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사활적 문제로써 제1차적 과업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적 공업화란 선진적인 과학 기술에 기초한 전체 인민 경제의 재건, 사

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결정적 승리, 국가의 경제적 자립성과 방위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의 공업, 우선 중공업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발전된 중공업에 의거함이 없이는 인민 대중의 의식주에 대한 수요와 문화적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의복, 신발, 식료품을 위시한 생활 필수품들과 주택, 의료 시설, 교육 문화 시설들이 더 많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는 오직 중공업 만이 줄 수 있다.

례를 들어 현재 우리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큰 기본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 있는 의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면화에 만 의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풍부한 팔프 섬유와 화학 섬유 원료를 광범히 리용하여 값싸고 질 좋은 각종 직물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화학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전력 생산과 기계 시설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는 바와 같이 중공업 부문인 전력 생산, 화학 공업원료를 공급할 광업, 기계 공업, 화학 공업들을 발전시키는 길 만이 우리 나라에서의 의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관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이 청진 방적 공장의 복구 확장과 본궁 화학 공장의 대규모적 개건을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인 식량 수요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서도 화학 비료의 대량적 생산과 현대적인 농기계, 농기구, 농약 등등의 대량 생산이 보장되여야 한다. 특히 화학 비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농산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하는 열쇠로 된다.

이와 같이 중공업의 발전이 없이는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타의 모든 경제 문화 생활의 계통적인 향상을 도모할 방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중공업을 발전시킬 수있는 풍부한 지하 자원——흑색 금속광, 유색 금속광, 유연탄, 무연탄, 전력 자원, 석회석, 마구네사이트 등——과 로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의 진정한 국제주의적인 물질-기술적 및 정신적 원조를 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특성과 조건에 적응하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적으로 급속히 장성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의 합리적인 국제적 분업의 견지에서도 완전히 부합되는 정당한 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항상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유기적 관계를 비속화하여 그를 인공적으로 대치시키려는 온갖 편향들에 대하여는 이를 당의 경제 정책의 기초적 사상에 대한 외곡으로서 엄격한 타격을 주어 제때에 시정하면서 자기의 경제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다.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일부 반당 분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을 훼방 반대하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로선을 허위적인 독설로서 비방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되여 있다.

그러나 어떠한 비방이나 외곡도 우리의 근로 대중을 기만하거나 그들을 동요케 할 수는 없었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기초한 당의 경제 정책을 실현합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풍부한 경험을 체득하였으며 이 정책의 정당성과 그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있다. 특히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승리적 총화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총화는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그것은 우선 우리 인민 경제가 짧은 기간 내에 전쟁에 의한 혹심한 피해를 회복하고 비상한 템포로 장성한 사실을 보여 주었으며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과 현명성을 보여 주었다.

1956년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량은 1953년도에 비하여 2.9배, 전쟁전 1949년도

에 비하여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에 생산 수단 생산은 4배로, 소비재 생산은 2.1배로 급속히 장성되였다. 이리하여 전력, 연료, 화학 공업을 제외한 모든 공업 분야에서 그 생산 능력이 전전 수준을 훨씬 릉가하였으며 특히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4배, 건재 공업은 3.6배, 방직 공업은 3배로, 알곡 생산은 108%로 각각 장성하였다. 또한 인민 경제의 질적 구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였는 바 그것은 인민 경제의 복구 재건 사업 행정에서 그의 기술적 개건이 크게 촉진되였으며 과거 우리 나라에 없었던 많은 새로운 공업 생산 부문이 창설되였으며 공업 생산력 배치가 개선됨으로써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적지 않게 극복한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금후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대한 원천으로 되는 기계 공업의 기본 토대가 구축되였다. 벌써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은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생산된 선반, 볼반을 위시한 각종 기대들과 공기 압축기, 전동기, 변압기들을 대량적으로 받고 있으며 우리의 건설장들에서는 국산품 기중기, 혼합기, 권양기 등 각종 건설 기재들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또한 농촌 경리에 대한 화학 비료의 생산 공급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양수기, 파종기, 제초기, 뿌라우, 사료 절단기 등 농기계와 농기구의 생산 품종이 확대되여 그의 질이 제고되고 있으며 수산업에서는 우리의 근로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열구 엔징으로써 건조된 각종 선박들과 어로 생산 기재들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이러한 전변은 근로자들이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리하여 3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더욱 확고한 지배적 및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는 바 특히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힘차게 촉진되여 최근 통계에 의하면 총 농가의 83.3%, 총 경지 면적의 81.2%가 망라되였으며 농업 협동 조합들의 조직, 경제적 토대가 현저히 강화되였다.

3개년 계획 기간에 당과 정부가 취한 제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전쟁으로 말미암아 령락되였던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급속하게 개선 향상되였다. 이 기간에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가장 총괄적 지표인 국민 소득은 2.1배로 장성되였으며 대중 소비품에 대한 수차에 걸친 국정 소매 가격의 인하, 로동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고정 농업 현물세제의 실시, 대규모적인 주택 건설의 촉진, 교육 문화 보건 시설의 확장,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의 증대와 구매력의 장성에 적응한 직물, 신발, 식료품 등 대중 소비품 생산의 확대, 상업 류통 및 사회적 리용 시설의 확장과 개선 등의 조치들이 다방면적으로 취하여졌는 바 이것은 우리의 사회 경제 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강력한 생활력의 실증이며 시위로 된다.

만일 우리가 일부 견실치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중공업 창설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지 않고 우리의 국가적 축적과 형제적 국가 인민들이 우리에게 주는 원조를 전적으로 생활 소비품 부문에 만 돌리였다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인민 경제의 전 령역에 걸치는 급속한 장성과 앙양을 볼 수 없었을 것은 매우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미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으며 또 그럴 수도 없다. 우리 인민 생활 수준이 짧은 기간내에 급속한 템포로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전전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기본적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전쟁 행정에서 입은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미증유의 것이였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적들은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을, 도시와 농촌들을 전면적으로 파괴 소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간 벽지의 독립 가옥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파괴하는 전고 미문의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후과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있어서 3년이라는 기간은 물론 부족하다. 어느 한 자본주의 국가도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우리들처럼 그렇게 비상한 속도로 회복한 력사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가장 간고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 섰으며 인민 생활을 더욱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당 대회는 인민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 부문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공업화의 기초 건설을 더욱 힘차게 촉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 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계속 향상시킬 데 대한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로선을 견지하면서 이 기간에 인민들의 의식주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로 그 중점이 돌려지고 있는 바 이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되는 것은

첫째로, 건재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강재, 쎄멘트 등에 대한 인민 경제의 증대되는 수요를 국내에서 충분히 해결하며

둘째로는, 섬유 원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기간에 적어도 화학 섬유, 팔프 섬유 및 목화 생산을 각각 년산 1만톤대에까지 올려 세움으로써 약 2억 3천만메터의 각종 직물 생산을 보장하며

세째로, 식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에서 알곡 증산을 계속 촉진시키며 식료품 공업, 수산업과 축산업을 강화하는 등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5개년 계획 기간에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을 현저히 증가시키며 공업 상품과 식료품에 대한 배급제를 폐지하며 도시, 농촌 건설, 특히 주택 건설 속도를 더욱 빨리하여 이 기간에 국가 자금으로 6백만 평방메터의 주택을 새로 건설하며 전반적 초중 의무교육제(7년제)로 이행할 조건을 조성하며 의료 기관들을 확장하여 매개 리에 1개소씩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인민 생활의 전반적 분야에 걸쳐 당 대회가 설정한 제 과업들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당 대회가 제시한 경제 건설에서의 총 로선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경제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정치적 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당 대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지난 1년간의 전 당적, 전 인민적인 긴장한 투쟁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사랑을 표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전면적인 지지——이것이 바로 3개년 계획 실행의 4개월간 기간 단축 운동과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최근 수개월간의 투쟁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수백만 대중의 한결같은 사상적 동원을 가능케 하였는 바 대중의 이러한 정치적 앙양은 어떠한 난관이든지 그를 능히 극복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주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대중적 운동의 의의와 특징은 우선 이 운동이 공업과 농업 및 상업 류통 부문을 위시한 인민 경제 전반에 걸쳐 당이 목전에 제기한 일련의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자각적인 전 군중적 운동이라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력량에 의한 높은 경제 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선진 기술의 도입, 선진 작업 방법의 적용, 소기계화,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비 리용률의 제고, 원료 자재의 소비 기준의 저하, 새로운 로력 기준량의 창조를 위한 일층 발전된 사회주의적 증산 경쟁 운동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상부의 지도와 대중적 창발성의 긴밀한 련계가 가지는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실천적으로 더욱 확증하고 있으며 우리 당의 시종 일관한 최고의 령도 방법인 집체적 지도 원칙의 커다란 조직적 및 동원적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이리하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호소한 40~50억원의 상품 증산, 5천~1만톤의 강재 증산, 5만톤 이상의 알곡 증산 과제에 대하여 그를 훨씬 릉가한

96억 원의 상품 증산, 2만 8천톤의 강재 증산, 340만톤의 알곡 생산을 결의하였으며 이 결의는 많은 부문에서 초과 실행되고 있다.

주지되여 있는 바와 같이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매우 방대한 계획이다. 1957년도 공업 생산 계획은 1956년도 실적에 비하여 22%의 장성을 예견하고 있는 바 1956년도 실적은 전쟁전 1949년도에 비하여 2배나 릉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의 근로자들은 커다란 추가적인 로력과 자재 및 재정적 지출을 하지 않고도 금년도 국가 계획을 훨씬 릉가할 수 있는 막대한 내부적 예비를 적발하였으며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높은 로력적 성과로서 기념하기 위한 투쟁을 계기로 하여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우리들은 앙양된 근로 대중의 정치적 열성을 계속 고무 추동하며 그들의 결의가 보다 더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온갖 방조를 주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들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운동을 계속 공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속에서 제3차 당 대회가 제시한 당의 경제 정책과 그에 근거한 당 중앙 위원회 8월 및 12월 전원 회의 결정, 3개년 계획의 총화,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의 의의와 경험들을 계속 광범히 해석 침투시키는 정치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큰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정치 사업을 통하여 우리들은 매 경제 분야에서 당의 정책이 구현되고 있는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연구하여 필요한 지도적 대책들을 강구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과 그 실행의 지연, 당 결정 정신의 외곡 또는 비속화 등 일체 부정적 경향들을 시정하도록 옳은 조직 정치적 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의 매개 당원들과 지도 간부들은 그가 어느 부문에서 공작하든지를 불문하고 당 정책의 책임적인 선전자로 또는 조직자로 행동하여야 하며 당 정책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어느 정도로 또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간에 반드시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당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일'군들 속에서 당의 경제 정책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책임적으로 연구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해당 경제 부문의 구체적 실정에 근거하여 그 정책의 집행을 창발적으로 조직하며 촉진시킬 줄 아는 정치적인 활동가로서의 소양을 높이는 것이 선결 문제로 나서고 있다.

당 정책의 창조적 적용의 정신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되는 것은 당 정책의 실행 방도를 대중과 더불어 광범히 토의하며 대중의 의견을 심중히 연구 종합하여 집체적인 대책적 의견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최근 수개월간의 투쟁은 중앙 기관들과 도, 시, 군 급 기관의 지도 간부들이 군중 속에 직접 침투하여 12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제반 과업의 실행 대책을 대중과 더불어 광범히 그리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 속에서 군중적 사업 작풍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모든 지도적 기관 내부에서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사무실적 사업 작풍의 표현들과 투쟁하여 행정 기구와 사무를 적극 간소화하며 상부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킴으로써 대중 속에서 축적된 경험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제3차 당 대회와 당 중앙 위원회 8월 및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서 제시된 당의 경제 정책이 매 부문에서 정확히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 *

지난 1년 동안에 당 건설 분야에서도 당 대회가 제시한 기본 방향에 따라 현저한 전진이 이루어 졌다.

당 중앙 위원회는 제3차 당 대회의 결정 정신에 근거하여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당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당 기관들의 사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 당 간부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당 핵심 육성 사업,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 등에 커다란 주의를 돌렸으며 정확한 지도적 대책들을 강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 대책들은 당 중앙 위원회 8월 및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조직—정치 사업과 평남도 당 단체와 일부 성 중앙 기관들과 교육 기관내 당 단체 사업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의 집중 지도 사업, 새로운 당 규약에 의한 초급 당 단체들의 조직 개편 사업, 조선 로동당 당증 교환 교부 사업과 이와 병행된 전체 당원들에 대한 강습 조직, 새 규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초급 당 단체들에서의 지도 기관 결산—선거 사업 등을 통하여 전 당에 깊이 관철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특히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월 전원 회의는 쏘련을 위시한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친선 방문한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사업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경제 문화 건설에 대한 당의 새로운 지도 방침들을 수립하며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을 그에 상응하게 개선 강화할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 과업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정부 대표단이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최 창익, 박 창옥을 비롯한 일부 종파 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후에서 기도하여 오던 반당적인 종파 음모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정부 대표단의 사업 보고를 토의하는 이 회의를 역용하여 당을 《불의에 공격》하려는 조직적인 도발적 음모를 꾸미고 우선 윤 공흠으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공동적으로 작성한 도전적인 《토론》을 들고 나서게 함으로써 전원 회의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당은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비방, 반대하며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을 비방, 중상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당내에서 조직 사상상 혼란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당 내에서 소위 《헤게모니야》를 쟁취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종파적 음모를 책동하는 데 대하여 그러한 행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루차에 걸쳐 집체적, 개별적으로 간곡한 충고와 비판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당의 충고를 접수할 대신에 더욱 도전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심지어 해방 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들을 모조리 부인하며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에 충실치 않다》느니 《우리 나라에서는 뽀즈난 사건이 없을 줄 아는가?》라는 등으로서 당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8월 전원 회의는 이들이 감행한 죄행의 엄중성과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를 신중히 고려하면서 반당적 음모를 계속하는 이들을 엄격히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였는 바 이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다.

당은 과거에도 그러한 바와 같이 8월 전원 회의에서도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당 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고수 옹호하였으며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행위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전체 당원들의 정치적 각성을 더욱 제고시켜 종파 분자들로 하여금 당내에서 발 붙일 곳이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전 당이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되였으며 당 단체들의 전투력이 일층 강화되였다.

그러면 이 투쟁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매개 당 단체들과 전체 당원들이 당 내에서 종파적 사상과 종파적 행동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를 막론하고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의 정당성을 다시금 더욱 깊이 인식한 데 있다.

우리 당의 투쟁 력사와 쏘련 공산당을 위시한 모든 형제 당의 력사적 경험들과 특히는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폭동의 쓰라린 교훈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내에서 종파 행동이 제때에 적발 폭로되지 못하고 그것이 방임될 때에는 크게 자라 당과 혁명의 리익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며 종파 행동을 시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들의 말로는 결국 반혁명에로 통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해방 후 우리 당이 창건된 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반종파 투쟁을 경과하였는 바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1920년 대에 창건되였던 조선 공산당은 당 내에서의 종파 투쟁을 근절하고 강력한 혁명적 전위대로 당 대렬을 통일 결속시킬만 한 세련된 당 지도부를 갖지 못하였으며 근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야수적 탄압과 종파 분자들의 내부적인 분렬 행위에 견디여 내지 못하고 결국 파괴되였다. 이리하여 당은 파괴되였으나 종파적 요소들은 어떠한 당적 타격도 받지 않은채 남아 있었으며 조선 로동 운동과 당 재건을 위한 투쟁을 계속 방해하였다. 이러한 종파적 요소들은 해방 후 합법적인 대중적 당 창건과 그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다시금 엄중한 해독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920년 대의 조선 공산당이 근절할 수 없었던 종파적 여독을 완전히 숙청할 과업이 우리 당 앞에 창건 첫날부터 날카롭게 제기되였다.

혁명적 당이 없이 해방을 맞게 된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친 조직 생활과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충분히 검열된 간부들이 매우 부족하였던 관계로 당 창건 당시의 간부 구성의 복잡성이 불가피적으로 조성되였으며 종파적 요소의 잠입이 또한 허용되였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의하여 규합 지지되고 있는 반혁명 력량과 대립되여 있으며,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 생활에서 소부르죠아적 요소들이 광범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은 당내에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 요소들이 침입할 수 있는 객관적 요인으로 되고 있는바 이것이 바로 당 내에 일정한 기간 종파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온상으로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당의 강화와 혁명 발전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치였는 바 남조선에서의 사태는 더욱 엄중하였다.

해방 후 남조선에서 혁명 운동을 파탄시킨 종파 분자들의 해독적인 파벌 투쟁은 그것이 과거 조선 로동 운동을 분렬 파괴한 바로 그들에 의하여 더욱 악랄하게 계속되였다는 사실과 이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종파 두목인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은 미제와 직접 야합하여 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 교살하려고 책동한 반혁명 집단이였다는 사실들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로 하여금 반종파 투쟁에서의 새로운 엄숙한 교훈을 얻게 하였으며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환기시켰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전원 회의들과 1955년 4월 및 12월 전원 회의들에서 심각하게 전개된 반종파 투쟁을 통하여 박 헌영, 리 승엽 종파 간첩 도당들과 허 가이, 박 일우 등 기타 일련의 반당적 종파 분자들의 정체가 전 당에 폭로 규탄되였으며, 종파주의의 사상적 근원에 대한 심각한 타격과 그를 개조하기 위한 거대한 조직, 사상적 조치들이 취하여 졌다. 이러한 투쟁 행정에서 당은 매 걸음마다 거듭되는 승리를 쟁취하면서 자기 대렬을 끊임 없이 강화하여 왔다.

오늘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전체 근로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무한한 신뢰를 받는 강유력한 혁명적 전위대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100 여 만의 당원들이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된 강철의 대오로 공고화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 내에서의 반종파 투쟁은 우리 당 발전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된 현상이였다.

이 투쟁 과정에서 우리 당은 이미 기본적인 승리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이것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당내에 종파는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으나, 종파주의

사상의 잔재 요소들은 적지 않게 남아 있으며, 당내에 비프로레타리아 사상 의식이 침투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들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파 행동에 참가하였던 당원들 중 많은 부분은 당의 충고와 비판을 접수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당과 혁명에 끼친 자기들의 엄중한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당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고집하며 종파적 악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하에서 우리들은 《지난 기간에 투쟁에서 쟁취한 당의 사상적 및 조직적 통일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고수할 것》을 전 당에 호소한 제3차 당 대회의 결정 정신을 받들고 당내에서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정치적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며 당 규률을 강화함으로써 당 생활과 혁명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불건전한 현상들을 제때에 시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당내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당내 투쟁의 구체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종파 행동을 단호하게 배격하며 그 죄상을 전 당에 광범히 폭로하여 그로 하여금 대중적인 집단적 통제와 교양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나 종파는 폭로하는 것만으로서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근원을 뽑아야 하며 종파 분자들이 의거하려고 하는 온상으로 되고 있는 일체 비프로레타리아적 사상 경향들과의 사상 투쟁을 강화할 조직적 대책들을 신중히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당의 통일을 저애하는 리기주의, 개인 영웅주의, 지방주의 등 기타 일련의 불건전한 사상 행동상 표현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그들의 당 생활을 정확히 조직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의 근본적 목적은 당의 로선과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당원들의 사상 및 행동상 일치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당의 통일과 단결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로 되는 것은 당 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일치한 인식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의 의식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는 당의 혁명적 규률의 유지 강화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본적 결함의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은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한 지도가 그들이 당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기본 임무 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지 못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된 기본적 임무들을 당적 립장에서 정확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당 생활의 첫째가는 요구로 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원들의 당성과 계급적 각성이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분야이기 때문에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여기에 주의를 집중시킨다면 당 결정에 대한 일부 불성실한 태도들과 당 규률을 위반하며 사업에는 열성을 내지않고 횡설 수설하는 자유주의적 경향들이 제때에 감축될 것이며 따라서 그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들이 옳게 강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당원들과 특히는 지도적 간부들 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항상 의무적으로 깊이 연구하도록 지도 교양하여야 하며 당 정책에 대한 충실성 여부로서 당원들의 당성과 그들의 당 생활에 대한 당적 평가를 주도록 당 단체들이 옳은 정치적 지도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3차 당 대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가 당이 그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과업의 요구와 당원들의 장성되는 정치적 수준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그러한 결함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당 대렬의 조직—사상적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소유가 커다란 본질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종파주의적 사상 경향을 포함한 당내에서의 이러 저러한 사상 행동상 편향들은 결국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이나 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사상—리론적 무장이 약한 데 주되는 원

인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실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은 일정한 리론적 준비와 관련되여 있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다. 이러한 충실성을 혁명적 실천에서 보다 더 훌륭하게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은 혁명적 리론으로 무장하며 계급적 립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하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해방 후 10년 동안 당에 의하여 교양되였고 정치 리론적으로 급속히 발전 장성되였으나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소유 정도는 아직 일반적으로 높지 못하며 또한 그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에도 적지 않은 결함들이 존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3차 당 대회는 사상 사업에서의 기본적 결함인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우리들 앞에 계속 신중하게 나서고 있는 과업은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당 정책이 가지는 사상, 리론적 의의를 당원들 속에 더욱 깊이 관철시킴으로써 당원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관점과 방법을 실천적 투쟁과 긴밀히 결부시켜 심오하게 파악하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학설이 당원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산 리론, 전투적인 리론, 당적, 계급적 리론으로서의 창조적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사상 리론적 해석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여기에 바로 조선 혁명의 구체적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천명되여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적용에 대한 혁명적 정신이 일관되여 있다.

특히 현 시기에 있어서 제3차 당 대회의 문헌은 전체 당원들의 지도적 지침으로 되며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 문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 사업을 계속 강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양 사업을 통하여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더욱 깊이 파악하며 당 중앙 위원회에 무한히 충실한 당원으로 육성하며 당이 제시하는 혁명적 과업들에 대하여 어떤 곤난과 어떤 희생도 헤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수행 관철시킬 줄 아는 혁명 투사로 교양 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상한 혁명적 정신을 깊이 리해케 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나라에서의 이 학설의 빛나는 승리를 위한 헌신적 투쟁에 더욱 충실하도록 고무하여야 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최근 년간의 실제적 경험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더욱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특히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최근 약 1년 동안에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에는 일련의 중요한 변천들이 있었는 바 위대한 쏘련과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애호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공세와 이 공세 의 가장 로골적인 표현으로 되는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폭동, 애급에 대한 침략 전쟁의 도발,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사상 리론 전선 분야에서 소위 《민족적 공산주의》 등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의 류포, 일부 나라들에서의 기회주의자들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비방과 수정주의적 경향의 로골화등 이 모든 형형 색색의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빛나는 승리와 그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가일층의 공고화 등을 들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의 수정주의적 경향은 그 본질에 있어서 과거 제2 국제당 《수령》들이 제창하던 구호와 동일하며, 특히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그의 공고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근로자들의 강력한 혁명적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부인 또는 비속화하려는 데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에 대한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충분히 견지하여 왔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꾸준히 투쟁하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항상 광범한 인민 대중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며 반혁명적 적대 분자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여 왔는바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우리 혁명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정책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가장 광범하고 철저한 민주주의적 형태이다. 이에 있어서 독재는 민주주의를 원만히 발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반혁명에 대한 전 인민적인 독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전제 조건으로 되는 것 만큼 민주주의와 혁명적 독재는 서로 고립된 범주가 아니라 호상 관련되여 있는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그러므로 혁명적 독재를 떠난 초계급적 《민주주의》와 무원칙한 《자유》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강력하고 세련된 사상적 무기인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정신과 이 학설이 제시하고 있는 고전적 명제들에 충실히 의거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

* *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총로선은 조선 혁명 앞에 제기된 성숙된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정확히 반영한 당과 인민의 절실한 념원과 지향이며 조선 혁명 발전의 리정표이다. 여기에 조선 인민의 운명이 달려 있으며 그들의 광명한 미래가 약속되여 있다.

그러므로 당 대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모든 부면에서의 하나 하나의 사업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가장 책임적이며, 영예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당 대회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고도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당 대회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지난 1년 간에 축적된 경험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이 경험을 신중히 연구하면서 김 일성 동지를 위수로 한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당 대회 결정과 그에 근거한 당 중앙 위원회 8월 및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로 전 당과 전체 인민들을 더욱 확신성 있게 정확히 조직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과학적 기초

김 기 남

전후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우리 인민은 온갖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페허로 된 도시와 농촌을 복구하여 앞으로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력사적인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고무된 우리 인민은 고도의 정치적 앙양과 로력적 열의로써 1957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수행에 착수하여 이미 빛나는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바야흐로 전체 우리 인민은 새로운 앙양과 전환의 시기를 걷고있다.

전후 시기에 경제적 난관과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거둔 자랑찬 승리는 우리 인민의 선두에서 그를 향도하여 온 우리 당의 정책이 정확한 정책이였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시위로 된다. 우리 당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투쟁 행로에서 부딪치는 온갖 난관과 적들의 음모를 타승할 수 있은 것은 그가 인류의 위대한 전취물인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당이 취해 온 정책의 어느 한 가지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은 없다.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발전시킨 여기에 우리 당 정책의 현명성과 위력의 근원이 있다.

본 론문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과학적, 리론적 기초를 전면적으로 해명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전후 경제 복구 건설 시기의 당 경제 정책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를 분석하는 데 국한하기로한다.

※ ※

우리 당 정책에서 경제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중요하다. 물론 당의 모든 정책이 이러 저러하게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과 관련되여 있지 않는 것이 없으나 경제 정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직접 인민 경제 분야에서 실시되는 당 정책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경제 정책을 론함에 있어서 우선 정치와 경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경제 정책 작성에 있어서 바로 정치와 경제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화된 것이다》(레닌 전집 33권 282페지). 정치와 경제의 호상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고전적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의 상부 구조의 한개 요인으로서의 정치적 견해와 기구는 결국 그 사회의 생산 관계의 발전에 의하여 규정된다. 생산 관계, 경제 관계는 해당 사회 생활의 기초를 이루며 일정한 정책은 경제 발전 행정에서 성숙된 제 요구에 의해 산생된다. 즉 경제가 선차적이며 정치는 후차적이다.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은 정치적으로도 지배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정치에 대한 경제의 규정적 역할은 량자간의 호상 관계에서 한 측면을 표시하는 데 불과하다.

정치는 경제에 의해 산생되기는 하나 단순한 피동적인 요소는 아니다. 일단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요구에 따라 산생된 정책은 경제 발전에 대하여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미치는 적극적인 요소로서 등장한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자기 계급의 경제적 리익을 옹호하기 위해 리용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지배 계급들의 정책에는 그 계급의 경제적 리해 관계가 반영되고 있다. 때문에《폭력(즉 국가 권력)—이것도 역시 경제적 력량이다》라고 엥겔스는 말했다 (맑스, 엥겔스 서한 선집 430페지).

정치는 각이한 방향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객관적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은 경제 발전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며 대중을 장악하여 동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 발전에 대한 진실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치는 위대한 변혁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회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낡은 경제적 제 조건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위대한 힘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로동 계급의 당의 정책은 바로 이와 같은 동원적, 조직적, 변혁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반면에 정치가 생산력 발전과 사회 생활의 온갖 분야에서 정체를 가져 오게 하며 장애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례를 우리는 제국주의 렬강들의 지배층이 실시하는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대 제국주의 체계는 이미 자기의 세기를 그칠 운명에 처하여 있으며 생산력 발전 수준과 그 성격으로 보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제반 전제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나라 지배층의 반동적, 반인민적 정책과 권력 기구에 의하여 생산력 발전과 인류 문화의 진보에 막대한 저애와 손실을 가져 오면서도 아직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제국주의 조건하에서는 경제 발전과 정치와의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조건하에서는 이 량자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생산자들이 주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 생산력을 대표하는 주체적 요인이며 생산과 문화의 발전을 저애할 아무러한 사회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로동 계급의 리해 관계는 낡은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과 결부되여 있으며 인류 발전의 합법칙성과 완전히 일치되여 있다.

그렇다고하여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정치는 언제나 자동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에 적응하며 그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정치에 대한 경제의 규정성, 량자간의 호상 관계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부분적인 경우에 있어서 만약 객관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타산이 결여되거나 착오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사물의 객관적 발전은 인간들에 대하여 가혹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그것이 옳게 인식되는 한 인간들의 목적에 관대히 순종할 수도 있다.

사회주의 시기는 정치의 역할이 비상히 제고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사회 생활의 어느 분야를 놓고 보아도 당의 의식적 지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은 당의 정책의 의의가 비할바 없이 제고되며 정책 작성과 그 집행에 대하여 정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는 경제에 대하여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 즉 모든 경제 문제 해결에 항상 정치적, 계급적 립장에서 대하여야 하며 로동 계급을 위시한 전체 근로자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검토 평가되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적극적인 반작용이 정치와 경제의 호상 관계에서 다른 제2의 측면을 이룬다.

정치와 경제는 각기 자체 발전의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으로 통일되여 있으며 만일 이 통일이 파괴된다면 그 어느 한 쪽도 건전한 발전을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언급된 것이 경제의 집중적 표현으로서의 정치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적 기초를 엄밀히 타산하지 못하고 수립된 정책은 모험주의이다.

반면에 정치적 견지를 잃은 경제 지도 사업

은 목적을 상실한 맹목적 행동이며 경제주의적 편향을 범하게 된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경제 정책은 경제 법칙을 발견하며 그것을 정식화한 맑스—레닌주의 정치 경제학의 제 명제들에 자기의 리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경제 정책의 정확성은 정치 경제학적 제 명제들을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생활과 옳게 결부시키는 데서만 가능하다. 경제 지도 사업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도 수법들을 능숙히 구사할 것이 요구되는 바 그러한 것으로서는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원칙과 자기 나라의 력사적, 민족적 및 기타의 특성들을 옳게 결부시키는 문제이며 또한 복잡한 사회 현상들 속에서 그것을 추켜 들므로서 나머지 모순들이 풀려 나오는 그러한 기본 고리를 포착하며 대중이 리해하기 쉽고 접수하기 쉬운 그러한 시기와 구호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당은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에 튼튼히 의거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들을 솜씨있게 구사함으로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온갖 위험과 암초를 극복하고 로동 계급이 위탁한 성스러운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할 수 있다.

*　　　*

조국 해방 전쟁 이후 시기는 우리 나라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세계 전쟁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 파괴를 목적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무참하게 짓밟아 놓았다.

우리의 공업 특히 중공업은 혹심한 파괴를 당하였으며 농촌 경리는 황페화되였고 인민 생활은 령락되였다. 전쟁에서 입은 물질적 피해는 불완전한 조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4 200여 억원에 달하는 바 이것은 전후 시기에 실시된 년평균 기본 투자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방대한 액수이다.

선철, 강철, 화학 비료, 세멘트 등 중요 생산물 생산은 전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연료 생산은 전쟁전 수준의 10분의 1로, 전력 생산은 4분의 1로 각각 축소되였다.

농촌 경리에서도 사정은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전시에 당이 농촌 경리에 중요한 관심을 돌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에 알곡 수확고는 1949년에 비해 88%에 불과하였으며 전시에 피해를 입은 소, 돼지 두수는 63만두에 달한다.

이밖에도 인명의 손실, 매 가정에서의 파괴는 극심하였다.

우리의 원쑤들은 우리 인민이 이러한 참혹한 전쟁 후과에 직면하여 도저히 경제를 복구 안정시킬 수 없어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이리라고 타산하였으며 악의에 찬 자기들의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조국을 영웅적으로 지켜낸 우리 인민 앞에는 전후의 경제적 난관과의 투쟁에서도 승리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조선 로동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우리 인민은 전시의 긴장성을 느춤이 없이 전후 경제 복구 건설 사업에 결연 동원되였다. 형제적 우방 국가 인민들의 거대한 원조는 우리 인민의 간고한 건설 투쟁에서 무한한 고무로 되였다.

이 시기는 우리 나라의 그후 발전을 규정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기였다.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 정전의 조건하에서 전시 경제 체계를 평화적 경제 체계로 개편하며 혹심히 파괴된 기간적인 산업 부문들을 복구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 인민 생활을 시급히 안정시키는 문제는 우리 당 앞에 전후 경제 발전의 총로선을 정확하게 수립할 무거운 임무를 부과하였다.

정전 직후에 열린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는 바로 이러한 객관적인 제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되는 전후 경제 복구 발전의 총로선을 제시하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은 전쟁에서 파괴된 우리 인민의 경제를 단순히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산업의 락후한 기술적 토대와 식민지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장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전원 회의는 또한 복구 건설 사업을 세 단계로 나누어 반년 내지 1년의 정리 및 준비 단계를 거친 다음 3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5개년 계획 작성에로 넘어갈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전후 경제 복구 건설 사업의 첫 단계인 정리 및 준비 단계는 불과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내에 완료되였다. 이것은 당이 이미 전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전쟁의 승리적인 종결을 확신하고 꾸준히 조사 정리 사업을 진행하여 전후 복구 사업을 준비하여 왔으며 또한 원대한 계획 밑에 우리의 경제, 기술 간부들을 다량 육성 확보하는 사업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결과에 이루어진것이였다. 그리하여 1954년부터 우리는 3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게 되였다.

《3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공업 및 농업 생산을 전전 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인민 경제의 각 부문과 과학, 문화, 예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견고한 경제적 기초를 닦는 데 있다》(김일성—《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3개년 계획 작성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전후 경제 복구 건설에 관한 당의 총로선에 기초하여 투자의 선후차를 옳게 확정하며 급속한 기간내에 경제를 복구 안정시킬 기본 고리를 포착하는 문제였다. 자체 내부 축적은 거의 없으며 주로 우방 국가들의 원조에 의거하여 복구 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될 조건하에서 이 원조를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인민 생활이 극도로 령락되였고 또한 일부 우방 국가에서 과거에 중공업 발전에 지나치게 치중한 페단을 시정하고 경공업의 급속한 장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던 새로운 국외적 환경하에서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우방 국가들의 원조를 주로 소비 물자로 받아 들여 생활을 우선 안정시키고 경공업에 치중하여 점진적으로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우리 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저애하며 결국은 앞으로의 인민 생활 향상에도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이러한 길을 택할 수 없었으며 우리 나라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따라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한 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것은 확대 재생산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 없이는 사회 생산의 확대와 선진적 기술의 도입은 물론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도 불가능하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기본적 문제에 대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이와같은 원칙적 규정이 정당하였다는 것은 3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 사실과 수'자로서 확증되였다. 만약 당이 목전의 곤난에 못이겨 전시에 인민이 발휘한 그 영웅성과 희생성을 버리고 우리 나라 산업의 기간적 부문들의 복구 건설 사업을 급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써 앞으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감히 말할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며 그러할 하등의 기초가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적인 문제의 고수는 항상 당 정책의 정확성과 기본적인 성과를 보장해 준다. 우리 당은 바로 이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충실함으로써 전후 발전 로선에 관한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의 원리는 무조건 사용될 수 있는 기성의 교조가 아니라 실천적 활동의 지침으로 된다. 일반적 경제 법칙인 확대 재생산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명제와 또한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 법칙은 소여 국가의 구체적인 사회 력사적 제 조건과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여 작용하게 되며 따

라서 이 법칙들의 리용도 창조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은 국내의 모든 주객관적인 요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타산과 국제적으로 조성된 력사적 제 조건의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중공업 발전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의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가지는 특수성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날 방대한 자원과 경제력을 가지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일원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하 우리의 조건하에서 자주적인 경제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반드시 모든 공업 부문들, 특히는 모든 중공업 부문들을 남김없이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민주 시장내에서 작용하는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우리는 우선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초를 이루며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요구되며 동시에 우리 나라의 경제 기술적 및 자연적 제 조건으로 보아 적합하고 유리한 그러한 부문들을 선차적으로 복구하며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여 우리 인민 생활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중공업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의 특성이다.

이러한 부문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동력과 원료로 사용되며 인민의 개별적 소비에도 직접 충당되는 발전 및 연료 공업, 둘째 전후에 대규모적으로 전개된 건설 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재, 세멘트, 벽돌 등의 건재 생산, 세째 알곡 증산을 위해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화학 비료, 농약 등을 생산하며 우리 나라에 부족한 섬유 자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학 공업, 네째 기계 공업, 기계 공업에 있어서는 우선 부속품 생산을 증대시켜 이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당하며 금속 가공 기계뿐만 아니라 농기계, 기관선 등을 다량 생산하며 점차 보다 복잡한 기계들을 생산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문들이 바로 우리 당이 전후 시기에 선차적으로 주력한 중공업 부문들이였다. 이것은 이 공업 부문들의 1953년—1956년 생산 동태에 관한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연료 공업	7배
발전 공업	3배
건재 공업	10배
야금 공업	14배
화학 공업	4배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	3배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관한 당의 경제 정책은 빛나게 관철되였으며 이것은 공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장성을 가져 올 수 있는 기초를 지어 놓았다. 1953년에 비하여 1956년에 생산 수단 생산은 4배로, 소비재 생산은 2.1배로 장성되였다. 한편 이 기간에 있어서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2.9배로 장성하였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공업의 발전은 량적 장성만 가져 온 것이 아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산업은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즉 과거의 식민지적인 편파적 부문 구조가 기본적으로 퇴치되여 가고 있으며 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적 토대에 의거하게 되였으며 과거의 불합리한 지리적 배치가 개선되여 가고 있다.

그 구체적인 한개 실례는 중공업의 심장을 이루는 기계 제작 공업의 장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 생산액의 비중은 해방전의 1.6%로부터 1949년에는 8.1%, 1953년에는 15.3%, 1956년에는 17.3%로 각각 장성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 나라에서 전혀 생산하지 못하던 전동기, 변압기, 선반, 볼반, 뿌라우, 호리, 제초기, 탈곡기 등 제품들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당은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는 물론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국방상 안전한 지대에 현대적 설비로 장비된 대규모적인 기계 제작 공장들을 건설하였다. 이리하여 현재 우리는 국내에서 요구되는 기계 제품 및 부속품의 압도적 부분을 자체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참고로 우리 나라에서 기계 제작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몇개의 우방 국가들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파란	22%(1954년—1955년)
웽그리야	18%(1955년 계획)
루마니야	19%(〃)
불가리야	12%(〃)
공화국 북반부	17.3%(1956년실적)

전후 기간에 당은 경공업 발전에 대하여서도 커다란 주목을 돌려 왔으며 특히 근로 인민이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소비품 생산의 확장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실시하였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 비률은 4대 1이였다. 이것은 전시에 중공업 부문이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나 경공업 부문은 1953년에 이미 전쟁전 1949년 수준을 달성한 조건하에서는 경공업에 대한 비교적 높은 비률의 투자였으며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의 일관된 배려의 표현이다. 일례로 면직물 생산은 현재 해방전 1944년 수준을 7배 이상으로 초과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공업은 바야흐로 자립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여 가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공업 분야에서의 우리 당 정책의 정확성을 확증하는 것이며 우리의 커다란 승리로 된다.

3개년 계획 년간에 농촌 경리 분야에서 실시한 당의 정책도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후에 우리 당은 농업 생산에서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과 아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빈농민들의 처지 개선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전쟁 시기에 당과 정부는 농촌 경리 발전에 전 당적 전 국가적 주의를 돌려 왔으나 전쟁의 피해가 막심한 조건하에서 농촌 경리는 의연 피폐한 형편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전후 시기에 있어서 공업의 급속한 복구 건설과 도시 인구의 장성 및 기타 일련의 사정은 농업 생산물에 대한 계속 증대되는 수요를 제기하였다. 불원에 나타날 수 있었던 공업과 농업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제때에 발견하고 농업 생산을 급격히 장성시킴으로써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여기에서 당 중앙은 일부 계획 일'군들과 농업 일'군들이 전쟁의 피해를 과소 평가하고 농촌에서의 생산력의 수준을 잘못 타산하여 무모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관주의적 오유를 범한 것을 시정시키고 농업 생산의 급격한 장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우선 전쟁에서 파괴된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집중적으로 회복 장성시키기 위하여 거액의 투자를 예견하였다. 이것은 대규모적인 관개 공사와 농기계 임경소 및 축력 확보 등 직접 농촌 경리에 대한 투자와 함께 화학 비료, 선진적 농기계의 다량적 생산 등 농업 발전과 직접 결부된 공업 부문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킨 데서 명백히 나타났다.

만일 일부 일'군들이 제기하듯이 고식적인 사업 방법으로 몇가지의 선진 영농 방법에 만 매여달려 농업 생산의 공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의 축성에 응당한 관심과 결정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에 와서 농업 사정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상상키 어렵지 않다.

농촌 경리에 대한 기본 투자는 3개년 계획 기간에 74억원에 달하였는 바 이것은 계획에 예견한 것을 30% 이상이나 초과한 것으로 된다. 이밖에 농업에서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 당은 농촌 로력 보충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다. 당은 전쟁 결과에 농촌에서 볼 수 있었던 혹심한 로력 부족과 로력 구성상 변동을 고려하여 농촌에 수 많은 제대 군인들과 초고중 졸업생들을 고착시켰고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제반 대책을 취하였다.

농업 생산의 급격한 발전을 위해 직접적 생산자들의 생산적 의욕과 관심은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조건 하에서 농민들 속에서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근본적 리익에 호소하고 사상 의식상 교양을 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당은 전후의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여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동시에 생산을 제

고지키게 하는 방향에서 일부 농산물의 수매 가격을 인상시켰으며 고정 현물세제를 도입하고 현물세 비률을 인하시켰다. 일시 국가 수중에 들어 오는 량곡의 량이 약간 축소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과연 그 후에 농업 생산의 앙양에 커다란 자극으로 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 분야에서 당이 취한 시책은 실로 거대하다. 그러나 과거 3년 간에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극히 중대한 사변으로서 농업의 협동화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극히 일면적이며 불완전한 것으로 될 것이다.

전후 시기의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서 농촌에서의 생산력 발전은 생산 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혁과 동반되였다.

농업의 협동화—이것은 농촌 경리의 테두리를 훨씬 벗어나는 우리 국내 생활에서 커다란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그것은 우리 나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고 자본주의의 가장 최후적이며 가장 광범한 토대인 소상품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력사 발전 단계에서의 일보 전진을 의미하는 혁명적 전환이다.

그러나 그의 력사적 의의가 큰만큼 개인농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로동 계급이 국가를 지도하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기술에 기초한 분산된 개인농 경리를 물려 받았다. 여기에는 공업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대규모 경영을 위한 객관적인 전제 조건이 결핍되여 있었다. 농업의 협동화를 위한 제반 조건은 바로 과도기 기간을 통하여 조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해방 후 우리 당이 일관하여 취해 온 농업 정책은 결국 우리 나라 농민이 착취를 모르는 유일하게 행복한 길—협동 경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하는 제반 조건들을 축성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전후 시기에 들어 서서 우리 나라 농촌에서 낡은 생산 관계의 개조는 합법칙적인 력사적 필연성으로서 제기되였다.

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적 기초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공업과 도시를 일방으로 하고 락후한 기술에 기초하여 지지한 발전을 보고 있는 개인농 경리의 농촌을 타방으로 하여 량자간에 거익 심화되여 가는 불균형과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였으며 둘째로 전후 시기에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켜야 할 긴박한 과업이 제기된 조건 하에서 생산력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되는 것은 낡은 소상품적 경제 형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형태이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생산력 수준과 그 성격에 합치하는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을 자극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농업 협동화의 성숙된 객관적 요구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당은 이미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우리 나라 농촌에서 시험적으로 협동 조합을 조직할 데 대한 력사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농촌의 사회적 개조가 그의 기술적 개조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것이 일정한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이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물질적 기초의 성숙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립의 기초로 되는 생산력 수준에 관한 문제를 론할 때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력 수준만을 떼여 놓고 지적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기타의 인민 경제 부문 특히는 공업 부문의 방조 없이는 농업 생산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바 여기서 반드시 사회 총체적으로 본 생산력 수준을 념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공업을 비롯한 사회적 총생산력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대규모 경리를 가능케 하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계화 정도가 아직 부족하며 기술적 락후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협동화 운동의 력사적 성숙성을 말소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극단에 빠지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사회적 개조가 앞서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협동화 운동의 한개 특성이라고 하여 현 사태를 단순히 긍정하고 기술 발전이 완만하게 진행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승리한 오늘날 농업 생산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무엇보다도 긴절히 요구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만이 협동 경리 그 자체가 공고화될 수 있다. 집약적 농법을 실시하여야 할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선진 기술의 발전은 당의 농업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정책은 자체의 일정한 특수성을 가지면서도 그것은 개인농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기본 정신에 철두 철미 립각하고 있다.

농업 협동화 운동에서의 당의 정확한 정책은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의 급속한 장성을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조건들(토지 개혁이 철저히 진행됨으로써 농업 협동화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의 비중과 력량이 극히 미약한 것,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한 농민들의 혁명적 전통과 해방 후 그들의 각성, 인민들 속에서 발생한 초보적인 공동 로력 조직 형태들이 그 우월성을 실증한 것 등)과 결부되여 협동화 운동의 성과를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경험적으로 협동 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한 이후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가 지배하게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의 장성 정형은 다음과 같다.

	망라된 농가 호수의 비중	망라된 경지 면적의 비중
1953년말 현재	1.2(%)	0.6(%)
1954년말 현재	31.8	30.9
1955년말 현재	49.0	48.8
1956년말 현재	80.9	77.9

특히 지적할 것은 이 협동 조합들중 압도적 부분이 완전한 사회주의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금년 1월 말 현재로 전체 농업 협동 조합의 97.8%는 제3형태에 속하고 있었으며 나머지가 제2 형태였다.

우리 당의 농업 협동화 정책의 정당성은 그 후의 농업 생산의 앙양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후 시기에 두 차례에 걸치는 자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 경리의 우월성과 당과 정부의 백방으로 되는 배려로 말미암아 농업 생산은 계속 증대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농민들의 압도적 부분이 과거 개인농 생활시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받게 되였다. 구체적으로 1956년도 알곡 생산은 1953년도 수준을 24%, 전전 1949년도 수준을 8% 각각 증가하였다. 지난 해에 협동 조합원 매호당 공동 경리로부터 분배 받은 것이 현물 수입에 있어서는 평균 1 616키로그람, 현금 수입에 있어서는 9 500 여 원에 달하며 과거에 빈농이던 약 25만호의 농민들이 중농 수준으로 향상되였다.

개인농 경리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이후에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동맹은 새로운 기초 우에서 공고화되였으며 그들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는 과거의 상품적 형태에 비하여 생산적 형태가 주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농업 협동화 운동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가 크다 할지라도 당은 항상 우리가 성과에 도취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에 정확하게 기초한 신중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농업 협동 조합의 규모를 확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은 제때에 이러한 주관주의적 오유를 시정시키고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제 조건과 생산력 발전 수준, 관리 기능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 있어서 매개 협동 조합의 규모를 40--100호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생산 관계가 생산력 발전 수준보다 지내 앞서 나갈 때 량자 간에는 모순이 발생하며 결국 생산력 발전을 저애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치는 도달된 경제 발전 수준에 뒤떨어져도 안되나 동시에 그것을 뛰여 넘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는 인민 경제 전반에 걸쳐 앙양을 가져 왔으며 이것은 인민 생활의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당 정책의 최고의 원칙--그것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생산의 급속한 장성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생산과 소비간에는 완전한 통일이 지어져 있으며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순은 있을 수 없으며 생산의 증대는 결국 근로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는 해당 사회의 생산 방식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제 법칙이 작용하게 되는 바 이 분배 법칙을 옳게 인식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이 법칙의 요구는 매개 사회 성원들이 각기 자기가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생산물의 분배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분배는 생산물의 균등적 분배를 의미하지 않으며 로동의 숙련도, 경중, 해당 생산 부문의 인민 경제적 의의 등이 엄밀히 고려되여 등차적으로 실시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분배 법칙의 제 요구가 정확히 타산된다면 그것은 생산에 적극적인 반작용을 가하여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사회 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가져 오게 되므로 여기서 국가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간의 합치를 보게 된다.

전시에 복잡성과 부분적으로는 혼란을 면치 못하였던 우리 나라 로임 체계는 전후 시기에 당의 옳바른 로임 정책으로 인하여 정돈되였으며 사회주의적 분배 법칙의 제 요구에 보다 더 순응하게 되였다.

1954년에 설정된 가급금 제도는 중요 생산 부문들에서의 로동에 대한 우대, 근속 년한의 참작, 각종 상금제의 도입 등을 통하여 당시의 조건 하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객관적인 분배 법칙의 제 요구를 타산한 것이였다.

그러나 생산의 부단한 발전과 함께 분배의 형식과 방법이 불변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작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로임 체계는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평균 35%의 대폭적인 로임 인상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것으로 개편되였다. 금번 제정된 로임표의 주되는 우월성과 특성은 첫째로 과거의 균일적인 로동자 임금표 대신에 각 산업 부문들의 특성을 고려한 각이한 등급을 가지는 부문별 임금표가 작성되였으며 둘째로 과거에 허용되였던 동일 직종의 동일 기능 등급에 대한 차별적 보수가 페지되였고 끝으로 최저 임금이 특히 많이 인상되였다는 점들이다.

전후 3년 간에 당이 취한 제반 조치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의 현저한 제고를 초래하였다. 1956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이 받은 평균 화페 임금은 1953년 수준을 58% 릉가한 반면에 이 기간에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의 소매 가격은 정전후 5차에 걸치는 물가 인하로 말미암아 45%가 저하되였다. 1949년 수준에 대비하여 보아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제고되였는 바 이 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계비 지수는 168%로 오른 데 대하여 1956년 12월 현재로 화페 임금은 226%로 장성하고 있다. 즉 이 기간에 실질 임금은 135%로 제고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 제고를 론하면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들의 생활 수준은 화페 임금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실시되는 유급 정휴양,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 일련의 사회 문화 시책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로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제도 하에서 만 가능하다. 전후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이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승리는 크다. 그러나 당은 이 승리가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록 실질 임금은 제고되였으나 전쟁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매개 가정에서의 생활 기초를 전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는 아직 약간한 거리가 있다. 이것을 당은 무엇보다도 아파하며 그 상처를 가시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반당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의 이러한 정책을 외곡하여 자기들의 음흉한 반당 행위에 리용하려 하였다. 이들은 과거 당이 취한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달성한 성과들을 비방하였으며 특히 전후의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경주한 우리 당의 거대한 배려를 비방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수준이 결국 생산력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합법칙성이며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다. 앞으로 우리가 주로 자체의 힘으로써 경제를 건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조건 하에서 근로 인민의 수입이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를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로임 장성을 로동 생산 능률 장성 속도보다 앞세우는 것--이것은 생산의 축소와 기술의 퇴보를 가져 오는 자멸의 길이다. 반당 종파 분자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으려고 한 것은 그들의 의도가 나변에 있었는가를 똑똑히 말해 주는 것이다. 이들의 정체와 음모 활동을 백일하에 들어 내 놓은 이후에 있어서 국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가일층 정치적으로 앙양되였으며 당 주위에 전체 인민이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였다는 것은 우연치 않다. 1956년의 국제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련의 해를 조선 인민은 훌륭히 이겨냈으며 나아가서 새로운 승리에로의 전환을 준비하여 놓았다.

전후 3년 간의 복구 건설 사업의 총화는 당이 최초에 제기한 그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전쟁전 수준을 기본적으로 회복하고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는 데 있다.

*　　　*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경제가 전후 복구 건설 시기를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새로운 발전에로 이행하는 력사적 시기에 소집되였다. 12월 전원 회의에서의 토의와 그 후의 사태 발전은 우리 당 중앙이 제시한 1957년 계획 과제가 완전히 과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12월 전원 회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쟁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하루 속히 자립적, 균형적 경제 토대를 축성하며 금번 실시된 로임 인상과 농민들의 수입 증대로서 근로 인민의 구매력이 현저히 제고됨과 관련하여 이에 해당한 충분한 량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속 높은 생산 장성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1957년도에 있어서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을 22% 제고시키며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17.2%, 소비재 생산은 25.5% 각각 더 장성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생산의 장성 속도가 계속 높은데 비하여 그것을 보장할 물질적 조건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형편에 놓여 있다. 즉 과거 3년 간에 우리는 적지 않게 형제적 국가들의 원조에 의하여 파괴된 기업소들을 복구하였다면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자체의 내부 원천에 의하여 기업소들을 개건, 확장, 신설하지 않으면 안되며 외화 발란스와 재정 발란스에서 상당한 긴장성을 예견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복구 기간에 투자한 기업소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어도 1--2년을 경과한 다음에야 현재 특히 부족을 느끼고 있는 원료, 공업 제품 및 소비품의 생산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 화학 비료, 농약, 농기계 생산의 증대에 따라 량곡 사정도 이 기간에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이렇듯 5개년 계획의 시초로 되는 1--2년은 가장 긴장성을 예견하게 되며 특히 1957년은 5개년 계획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이다.

우리가 목적하며 또한 객관적으로 긴박한 요구로서 제기되는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와 이것을 보장할만한 물질적 보장과의 사이에는 일정한 모순과 난관이 놓여 있었다. 이 난관으로부터의 출로--이것이 12월 전원 회의에서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일부 일'군들 속에는 1957년 계획 과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듯이 말하며 난관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당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당 중앙은 이 계획이 결코 무리한 것

이 아니며 이 난관을 타개 극복할 모든 조건이 우리 자체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직 리용되지 않고 있는 예비의 적발 동원과 우리 사회 제도가 발휘할 수 있는 우월성의 충분한 리용—여기에 모순 해결의 기본 고리가 있다.

일찌기 레닌은 과도기의 경제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우리의 중요한 정책은 국가의 경제 건설이여야 한다. 몇 뿌드의 곡물을 더 많이 수확하고 몇 뿌드의 석탄을 더 많이 제공하여 굶주린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이 곡물과 석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리용할 것인가—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이다》(레닌 전집 제31권 346페지).

우리에게는 설비, 자재, 로력 등의 리용면에서 아직도 예비들이 허다하다. 일례로 기계 공업성 산하에서는 금속 절삭 기계의 리용 정형이 락후하며 작년 8월 1일 현재로 설비의 71% 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당 중앙 위원회는 모든 가능성을 엄밀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1957년 계획 과제가 완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 실행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일치한 결론을 내렸다.

12월 전원 회의의 력사적 의의는 5개년 계획 첫해에 과학적으로 계산된 전투적인 계획 과제를 수립하였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는 이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을 동원하며 궐기시키는 지도 사업에 있어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일대 혁신을 가져 왔다는 점이다. 정치는 대중에 관한 과학이다. 만약 전원 회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하부에 시달하고 증산을 요구한다면 도저히 예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당 중앙은 12월 전원 회의 결정 침투 사업을 일대 사상 동원 사업으로 전개하였으며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직접 기업소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계획 과제를 토의하고 이 계획 과제의 초과 실행을 그들에게 호소하였다. 우리는 금번에 있어서와 같이 근로 대중과 함께 계획 과제를 실질적으로 토의 결의한 일이 일찌기 없다. 가장 성숙된 문제를 대중에게 직접 제기할 때 그것은 료원의 불'길처럼 대중을 휩쓸고 그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각 공장, 기업소와 농촌들에서 1957년 증산 과제를 토의한 결과는 12월 전원 회의가 전체 인민에게 호소한 증산 과제——40—50억원의 상품 증산, 5천—1만톤의 강재 증산, 5만톤 이상의 알곡 증산——를 훨씬 초과하여 공업 상품 생산에서 94억원, 강재 생산에서 28 600톤의 증산과 알곡 생산을 340만톤까지 제고시키겠다는 새로운 결의가 나왔다. 최초에 공업에서 22%의 장성을 예견한 데 대하여 매우 긴장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국가 계획 과제를 공업에서는 12%, 농업에서는 19% 이상 초과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증산 과제는 1차적으로 토의하여 나온 것이며 그 이후에 있어서 김 책 제철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업소들에서 련속 다시 추가적 증산 과제를 내놓는 사실들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상에서 말한 지표는 어디까지나 결의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앙양된 근로 대중의 기세를 옳게 조직 동원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실행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12월 전원 회의 이후의 모든 사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 인민이 겪고 있는 거대한 앙양은 일조 일석에 준비된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친 우리 당 지도의 정당성의 결실이다. 당 정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정은 대중의 적극성의 앙양과 생산의 급속한 발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당이 조선 인민의 선두에서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패배와 두려움을 모르며 오직 승리적 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나라의 구체적인 객관적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과학적인 기초 우에서 자기의 정책을 수립하며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 내에 담겨 있는 모든 우월성을 남김 없이 리용하는 데서부터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은 과거에도 그러 했거니와 계속 당의 정책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신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의 운명을 튼튼히 그에게 위탁하고 있다.

레닌과 10월 혁명

정 판 률

오늘 전 세계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과 제국주의의 불가피적 멸망을 점점 더 명백히 목격할 수 있게 된 환경하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앞두고 우리 인민은 전 세계의 진보적 인류와 함께 이 위대한 혁명 승리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인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 탄생 87주년을 맞이한다.

전 세계의 로동 운동과 혁명 운동,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력사, 나아가서는 모든 인민의 사상 생활의 력사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력사상 영원 불멸의 기념탑으로 될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레닌의 이름과 불가 분리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오늘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 9억의 인민들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10월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바 앞으로 전 인류가 이 길을 따라 10월의 사업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달성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레닌주의와 그의 실천으로서의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 노예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밝혀 주었으며 오늘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민족 해방의 완성 및 사회주의 건설의 도상에 있는 우리 인민을 고무하고 있으며 승리의 길을 가리켜 주고 있다.

10월의 위대한 승리는 불멸의 맑스—엥겔스의 학설과 그를 제국주의 시기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발전시킨 위대한 레닌주의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레닌에 의하여 창건 지도된 쏘련 공산당의 레닌적 전략 전술의 승리이였다.

로씨야를 전쟁과 기아의 파국으로부터 구출하는 동시에 로씨야 제 인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착취와 억압으[illegible]부터 영원히 해방하는 길을 열어 준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함에 있어서 레닌이 세운 바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특출한 공적은 무엇보다도 우선 맑스의 경제학의 계승 발전으로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천재적 분석에 기초하여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을 론증하고 사회주의 혁명 리론을 완성 발전시킨 데 있다.

레닌의 제 리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개척하는 로씨야의 로동 계급과 그들의 당에 사회주의 혁명 승리에 대한 튼튼한 사상적 무기를 줌으로써 혁명의 준비 및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동원적 조직적 및 고무적 역할을 놀았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에서도 또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레닌은 또 직접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준비 및 수행을 지도함에 있어서 수다한 불후의 위훈을 세웠다.

2월 혁명후 2중 정권이 출현한 조건하에서 조성된 특수하고 복잡한 정세——영, 불 제국주의자들의 지지와 지시를 받은 로씨야 부르죠아지는 략탈적 제국주의 전쟁 정책을 계속 추구하였으며 쏘베트 내에서 다수를 차지한 타협적 멘쉐위끼, 에쎄르들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이기 때문에 주권은 부르죠아들이 장악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주권을 부르죠아지에게 넘겨 준 자들인 만큼 림시 정부를 추종하

면서 인민 대중의 절박한 요구, 평화와 빵과 토지에 대해서는 다만 달콤한 약속으로써 기만하고 있었으며 인민 대중은 아직도 이 타협주의자들을 지지하여 무경각한 형편에 있는 정세하에서 볼쉐위크 당 앞에는 혁명을 어데로 인도하여야 할 것인가, 쏘베트와 림시 정부와 전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여 있었다.

까메네브를 비롯한 당 내의 일부 기회주의적 분자들은 부르죠아 림시 정부의 정책을 조건부로 지지하며 림시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전쟁을 중지시킬 교섭을 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반(半)멘쉐위크적인《방위론》적 립장에 서 있었으며 쓰딸린도 포함하여 국내에서 혁명을 지도하던 지도적 볼쉐위크들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로선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레닌의 천재는 이미 《원방》 망명지에서부터 준비되였던 혁명 발전 및 혁명 령도에 대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방침으로써 당을 무장시켰다. 이것은 혁명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준 유명한 4월 테제에서 제시된 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 및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발전에 관한 근본 방침이였으며 이로부터 규정되는 쏘베트와 림시 정부, 전쟁에 대한 방침들이였다.

쏘련 공산당 력사를 학습하면서 종래에 우리가 충분히 명백하게는 리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의 당내의 동요와 레닌의 역할은 쓰딸린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여 더욱 명백해진다. 《당은(그 대다수는) 손 더듬질로써 이러한 새 방향 결정으로 향하여 나갔다. 당은 강화 문제에 있어서 림시 정부에 대하여 쏘베트의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라는 낡은 구호로부터 쏘베트 정권이라는 새 구호에로 즉시 진일보할 것을 결정하지 못하였었다. 이러한 중도 반단적 정책은 쏘베트들로 하여금 강화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을 가지고 림시 정부의 틀림 없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쏘베트들을 림시 정부로부터 분리시킬 것을 예산한 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그릇된 립장이였다. 왜냐 하면 그러한 립장은 평화주의적 환상을 번식시켰고 방위론의 물방아에 물을 대여 주었으며 대중의 혁명적 교양을 곤난케 한 때문이다. 이 그릇된 립장에 나도 그 당시 당의 다른 동지들과 같이 서고 있었는데 레닌의 테제에 찬성함으로써 4월 중순에 가서야 비로소 그 립장을 완전히 던졌던 것이다》 (쓰딸린 전집 6권 456—457페지 조선문판).

레닌의 4월 테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자각성과 조직성이 부족한 탓으로 정권을 부르죠아지에게 넘겨 준 혁명의 제1 단계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와 빈농민 손에 정권을 넘겨 주어야 할 혁명의 제2 단계로 이행》할 데 대한 당의 기본 과업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회주의 혁명을 먼 앞날의 일로 보는 제2 국제당 기회주의자들과 뜨로쯔끼 분자들의 《만리 장성론》적 견해가 멘쉐위크, 에쎄르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국내에 있던 다른 볼쉐위크들이 계속 혁명의 과업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맑스—레닌주의적 령도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레닌의 령도의 위대성은 우선 쟁취하여야 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주권 형태를 확정한 데서 표현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의 계급 투쟁 경험을 연구 총화하며 파리 콤뮨과 1905년 및 1917년 2월의 로씨야 혁명의 구체적 경험들을 고려하여 쏘베트 공화국이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가장 좋은 주권 형태라는 결론을 주었다.

레닌은 이미 자기의 론문 《먼곳으로부터의 편지》에서 로동자, 병사 대의원 쏘베트는 전 주민의 10분의 9를 망라하는 전 빈민 대중을 대표하며 평화와 자유와 빵을 획득하려고 하는 로동자 정부의 맹아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다. 레닌은 4월 테제에서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로부터 의회제 공화국에로의 복귀는 일보 퇴각일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맑스주의 과학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였으며 거대한 공헌이였다. 레닌은 당시까지 모든 맑스주의자들이 의회제 공화국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정권 형태라고 생각해 왔던 낡은 견해를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견해로 교체하였던 것이다. 이 천재적 발견은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왜냐 하면 이는 부르죠아지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과 로동 계급에게 정확한 길과 목표 즉 사회주의 혁명 승리 후에 어떠한 형태의 국가 주권을 반드시 창설할 것인가를 명시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레닌은 이미 2월 혁명 훨씬 이전부터 모든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것은 필연적이지마는 그의 형태에 있어서는 매개 나라의 발전의 특수성, 력사적 전통, 정치적 경험, 풍습, 관습 등등에 의하여 다양할 것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주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쏘베트는 승리한 모든 프로레타리아트에게 필연적인 국가 주권 형태가 아니라는 것, 이 이행에 있어서 불변한 조건은 다만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오늘의 현실은 레닌의 명제들의 진리성을 점점 더 확증해 주고 있다.

레닌은 또 림시 정부에 대한 태도 문제, 혁명의 발전의 로정에 관한 문제 즉 전술 문제의 분야에 있어서도 탁월한 령도를 보장하였다. 레닌은 테제에서 림시 정부의 자본가, 지주적 성격과 그들의 계속하는 전쟁의 제국주의적 략탈적, 침략적 성격을 폭로하면서 《림시정부에게 어떠한 지지도 주지 말자》라는 구호를 제기하였으며 림시 정부의 소멸로써 2중 주권을 해소할 방침을 확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림시 정부의 즉시 타도, 폭력적 전복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당시 멘쉐위크, 에쎄르들이 지도하고 있던 쏘베트가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대중은 쏘베트를 지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림시 정부의 즉시적 타도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또 당시에 아직 대중에 대한 림시 정부의 탄압은 없었고 2월 혁명후 로씨야는 구라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던 까닭에 정부의 폭력적 전복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로부터 당은 레닌의 지도하에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 전쟁으로》라는 구호를 일시 철회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자기의 테제에서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평화적 이행에 관한 방침을 규정하면서《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를 제기하였다. 레닌은 2월 혁명 승리의 결과로 하나의 주권으로서의 쏘베트가 형성된 조건 하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평화적 발전 즉 평화적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그것은 쏘베트가 실지에 있어서 무장력과 일체의 실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림시 정부는 무력하며 다만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성과 조직성이 미약한 탓으로 정권이 부르죠아지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이였다. 따라서 볼쉐위크들은 대중에게 쏘베트가 혁명 정부의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이며 림시 정부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독재 기관이라는 것, 따라서 이러한 정부에 인민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림시 정부를 지지하는 멘쉐위크, 에쎄르들의 타협 정책은 반인민적이라는 것, 이러한 조건하에서 혁명의 유일한 출로는 모든 정권을 쏘베트로 넘기는 것이라는 것을 꾸준히 해설함으로써 로동자, 병사, 농민들의 다수를 볼쉐위크 편으로 쟁취하며 그리하여 쏘베트에서 볼쉐위크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쏘베트를 볼쉐위크적 쏘베트로 전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쏘베트를 통하여 정부의 구성과 정책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즉 볼쉐위크적 쏘베트에 모든 주권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였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주의 혁명은 류혈적인 공민 전쟁 없이 수행될 수 있었다. 여기

로부터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것이였다.

레닌은 또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 준비를 위하여 경제적 분야에서의 일련의 구체적 방책들을 규정하였는 바 그것은 아직 의식성이 약한 대중에게 리해될 수 있고 접수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내의 모든 은행을 한개의 전국적 은행으로 병합하여 쏘베트의 통제하에 두며 아직 자본주의적인 산업 생산물의 사회적 생산 및 분배에 대한 쏘베트의 통제를 실시하며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과업의 해결로서 지주의 토지 몰수 및 전체 토지의 국유화를 실시하며 빈농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적 력량으로서의 로농 동맹을 확대 강화할것 등이였다.

력사적인 레닌의 4월 테제는 당의 정확한 사회주의 혁명 로선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선상의 혼돈으로 인한 당내의 일부 동요를 극복하고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놀았다.

레닌과 레닌의 4월 테제——사회주의 혁명 로선이 부르죠아지와 멘쉐위크, 에쎄르 기타 기회주의 분자들의 횡포한 비난과 적의를 불러 일으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였다. 다만 한때의 탁월한 맑스주의자였던 쁠레하노브까지도 레닌의 테제를 잠꼬대라고 비웃을 만큼 그는 맑스주의적 립장과 그리고 레닌으로부터 멀리 락오되여 있었으며 레닌은 그로부터 너무나 멀리 그리고 높이 서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을 위한 레닌의 로선의 정당성은 즉시로 생활에 의하여 립증되기 시작하였다. 레닌의 로선이 처음으로 채택된 볼쉐위크 당 뻬뜨로그라드시 대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4월 20일) 림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여 단행된 수도 로동자, 병사들의 시위 운동은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전쟁을 없애라!》《비밀 조약을 발표하라!》는 구호를 들고 나섰던 것이다.

볼쉐위크들의 제7차(4월) 전로 대표 회의는 전 당을 레닌적 로선으로 무장시켰는 바 레닌은 여기서 4월 테제의 방침을 더욱 부연 완성시켰으며 주권 문제가 모든 혁명에서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깊이 분석하였다. 레닌의 령도하에 당은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로써 2중 주권에 의한 주권의 분할을 제거하고 쏘베트에 일체 주권을 넘기는 것을 당면의 주요 임무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림시 정부의 반동적 본질과 멘쉐위크, 에쎄르들의 타협 정책의 해독성을 계속 폭로 해설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볼쉐위크 당은 4월 테제——4월 대표 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대중을 교양 조직하는 거대한 활동에로 넘어 갔다.

레닌과 그의 당은 레닌적 로선을 수립하며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선 당내의 기회주의, 본질상 부르죠아 정부를 유지하려는 까메네브, 뤼꼬브 등의 반레닌적 립장을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대중을 교양 조직하며 레닌적 로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레닌의 활동은 실로 정력적이였다. 《쁘라우다》 지상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레닌의 론문이 발표되였다. 레닌은 4월 귀국 이후 7월 사변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무려 150건 이상의 론문 소책자들을 썼다.

재형의 수령 레닌은 동시에 대중 속에서 사업하는 것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았는 바 그는 특히 공장 로동자들 앞에서 자주 출연하였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위한 당의 로선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면서 부단히 대중을 교양 조직하며 때로는 그 력량을 시위 검열하며 정세의 변동에 민첩하게 적응 대처하여 투쟁 방법을 변경하는 등 맑스주의적 전술의 수다한 모범들을 보여 주었다. 레닌은 당과 대중의 혁명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절대로 《배를 파선시키지 않는 선장》이였다. 그는 4월에서 10월에 이르는 동안에 일부 당 단체들의 좌경적 편향을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대중의 지나친 급진주의적 기분에 결코 영합하지 않았으며 적들의 어떠한 촉발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전투에로 대중을 내몰지 않았다.

림시 정부의 첫 위기였던 4월 시위 당시 림시 정부 즉시 타도라는 모험적 구호를 제기한 보그다찌예브 기타 동무를 레닌과 볼쉐위크 중앙은 엄격히 규탄하였다. 6월초 쏘베트 대회 당시 정권을 쏘베트에 넘기게 하는 방향으로 대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수도에서의 시위를 결정하였을 때 대회의 금지에 부닥치자 이 금지를 반대하여 진출하는 것은 혁명 간부들을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본 레닌과 당은 시위 계획을 취소하였다. 림시 정부의 6월 위기와 관련하여 전선에서의 로씨야 군대의 부질 없는 공격이 시작되고 그것이 또 수치스럽게 실패하자 7월 3—4일 대중의 분격이 폭발하여 수도의 혁명적 로동자, 병사들이 볼쉐위크적 구호를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레닌과 그의 당은 대중의 무장 진출을 제지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아직 혁명의 전위적 계급의 다수가 볼쉐위크 편에 없었으며(6월 제1차 전로 쏘베트 대회에서 볼쉐위크 대표는 전체 대표수의 13%였다) 전 인민의 혁명적 앙양이 없었고 적들과 소부르죠아당들 가운데 심각한 전면적인 정치적 동요가 없었던 때인 7월초에 폭동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오유였고 볼쉐위크들은 정권을 지탕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당이 대중과 리탈하지 않을 것을 가르쳤으니 6월 시위, 7월 시위의 경우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은 대중의 시기 상조한 또는 모험적인 진출은 언제나 제지하면서도 대중을 자연 생장성에 방임함이 없이 그들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며 평화적 조직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업하였다.

적들에 의하여 도발된 7월 사변을 계기로 하여 전체 국가 권력은 전쟁 악당과 흑백단적 학살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멘쉐위크, 에쎄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쏘베트는 림시 정부의 부속물로 됨으로써 2중 주권은 사실상 끝이 났다. 적들은 손에 무기를 잡았다.

2월 혁명후 7월 사변에 이르기까지는 인민 대중에게 가장 쉽고 고통을 적게 받는 길인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로선과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가 전적으로 가능하고 정당하였다면 7월 사변 이후는 이 구호도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길도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레닌은 가르쳤다.

그는 자기 론문 《구호에 기함》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구호는 객관적으로 인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인민에게 마치 쏘베트는 현재에 있어서도 역시 정권 장악을 원하기만 한다면 혹은 그가 정권을 틀려 받기 위하여 그 문제를 제기하기만 한다면 다 되는 듯한 환상, 또 마치 도살자들을 방조하고서도 더러워지지 않은 그런 당들이 쏘베트 내에 아직도 있는 듯한 환상, 또 마치 지나간 일을 다시 돌려 놓을 수 있을 듯한 환상을 넣어 주는 것으로 될 것이다》.

레닌의 지도하에 볼쉐위크 당은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여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를 일시 철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였고 쏘베트 정권을 위한 투쟁과 쏘베트내에서의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레닌은 강조하였다.

7월 26일에 소집된 제6차 볼쉐위크 당 대회는 레닌이 작성한 테제에 근거하여 당의 목표를 사회주의 혁명에 집중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트가 빈농과의 동맹에 의거하여 폭력으로써 정권을 장악할 데 대한 레닌적 방침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뜨로쯔끼파들의 기회주의적 전술——당의 무장 폭동 방침과 프로레타리아 독재 및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에 대한 레닌의 학설을 반대한——을 결정적으로 반격하고 자기의 수령의 지시를 실천하면서 당을 무장 폭동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에로 준비시켰다.

레닌의 정력적 활동은 지하에서도 멈추어 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최후의 지하 활동 기간(7월—10월)에 사회주의 혁명, 무장 폭동 준비를 위한 당의 활동을 지도하면서 60편에 달하는 론문을 집필하였다. 그의 탁월한 로작 《국가와 혁명》과 《닥쳐 오는 파국,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당시에 저술한 것이였다. 후자에서 레닌은 사회주의에로의 전진

만이 나라를 파멸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전진을 위한 강령적인 방책들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혁명의 적들은 볼쉐위크들이 단 두주일도 정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민을 기만 위협하였다. 레닌은 자기의 론문 《볼쉐위크들은 국가 주권을 유지할 것인가?》에서 원쑤들의 이 모든 책동을 분쇄하였는 바 로씨야에는 사회주의 혁명의 모든 조건이 현존한다는 것을 증시하였으며 볼쉐위크들이 주권을 장악만 한다면 사회주의 혁명의 전 세계적 승리에 이르기까지 유지하는 것을 지구상의 어떠한 힘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가르쳤다.

레닌은 반혁명적 음모에 대한 경각성을 높일 것을 교시하였는 바 이 경고는 적중하였다. 혁명을 압살하고 군주 정체에로 복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꼬르닐로브 장군의 반혁명적 반란이 8월 25일에 일어났다.

반혁명적 반란은 멘쉐위크, 에쎄르들과 함께 림시 정부를 몹시 놀래웠는 바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오직 볼쉐위크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인식한 림시 정부와 타협주의자들은 볼쉐위크들에게 보호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정세에 대처하는 전술에 있어서도 레닌의 영재는 우리가 종래에 충분히 알지 못했던 특출한 역할을 놀았다. 레닌은 반란을 분쇄함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주되는 공격의 방향과 대상을 꼬르닐로브 도당에 두면서 두개의 적 즉 림시 정부와 꼬르닐로브 도당간의 모순을 혁명에 유리하게 리용할 데 대한 문제를 맑스주의적으로 설정하였다. 레닌적 볼쉐위크당은 혁명적 대중을 반란 분쇄에 궐기시키면서 림시 정부 전복에 관한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꼬르닐로브파와 싸우는 동안은 림시 정부의 즉시 전복이 아니라 궐기한 인민들 속에서 께렌쓰끼 정부의 일체 반동성과 취약성을 계속 폭로 해설하는 데 힘을 돌렸다.

볼쉐위크들은 레닌의 지도하에 반란 격파를 통하여 프로레타리아트를 더욱 잘 무장시킬 기회를 가졌는 바 이는 10월 무장 폭동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볼쉐위크 당은 또 꼬르닐로브와 밀류꼬브의 체포, 혁명적 부대의 수도 접근, 로동자, 농민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대책 수립 등을 림시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것은 물론 림시 정부가 승락할 리 없는 것이였으나 이를 통하여 림시 정부의 정체를 적라라하게 폭로함으로써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 혁명에로 더욱 잘 준비시킬 수 있었다.

볼쉐위크 당의 전술은 정확하였는 바 혁명적 대중은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볼쉐위크들이 자기의 진실한 벗이라는 것, 림시 정부를 전복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였다.

볼쉐위크당의 지도하에서의 무장한 혁명 력량에 의한 반혁명적 반란의 격멸은 혁명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멘쉐위크, 에쎄르들의 타협주의적 세력은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인민 대중은 볼쉐위크 편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였는 바 특히 중요한 것은 동요하던 중농들이 빈농과 련합하기 시작한 것이였으며 뻬뜨로그라드와 모쓰크바의 쏘베트가 볼쉐위크 수중으로 넘어온 것이였다. 혁명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서의 레닌의 지도의 현명성은 그가 정세의 변동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 평가하고 새로운 구호를 제기하며 무장 폭동을 일정에 올리고 당과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폭동을 직접적으로 준비시킨 데 있었다.

일시 철회되였던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는 레닌이 예견하였던 바와 같이 다시 전면에 내세울 때가 왔던 것이다. 새 정세 하에서의 이 구호의 내용은 벌써 7월 사변전의 혁명의 평화적 발전 방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 폭동에 의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수립, 쏘베트 정권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였다.

정세의 급격한 변동을 간취한 레닌은 당 중앙 위원회에 보내는 자기의 편지 《볼쉐위크들은 정권을 장악하여야 한다》, 《맑스주의와 무장 폭동》에서 무장 폭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 조건들이 성숙되였다는 것, 특히 인민 대중이 혁명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장 폭동을 일정에 올릴 것을 제의하였다.

레닌은 9월 27일 당 중앙 위원회에 보내는 자기의 편지에서 위기가 성숙되였다는 것, 로씨야 및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판가리에 들어 섰다는 것을 또 다시 강조하였다.

망명에서 다시 돌아 온 레닌은 《지체는 사멸과 같다》고 지적하였으며 무장 폭동이 승리하자면 당은 반드시 선진적 계급과 인민의 혁명적 앙양에 의거해야 하며 인민의 선진적 부대의 적극성이 절정에 달한 때, 그리고 적의 대렬과 혁명의 약한 벗들의 동요가 가장 심한 때에 의거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조건들은 전적으로 성숙되였다고 가르쳤다.

《국외자의 충고》라는 론문에서 레닌은 무장 폭동에 관한 맑스, 엥겔스의 견해를 발전시키면서 당면의 폭동 계획을 빈틈 없이 완성하였다. 바로 레닌의 이 천재적 계획에 의거하여 10월 무장 폭동은 수행되였으며 승리하였다. 10월 10일에 소집된 당 중앙 위원회는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근일중에 무장 폭동을 단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정서는 무장 폭동의 불가피성, 그 조건의 완전한 성숙, 모든 당 사업은 무장 폭동의 조직과 수행에 복종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까메네브, 지노비에브, 뜨로쯔끼 등의 가증할 변절 배신과 배신자들의 예고를 받은 림시 정부가 선수를 써서 혁명을 분쇄하려던 책동에도 불구하고 폭동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보장케 한 것은 레닌의 위훈 중에서도 특출한 위훈에 속하는 것이였다.

10월 24일 저녁에 쓴 《중앙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레닌은 《력사는 혁명가들에게 조금도 지체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또 틀림 없이 승리할 것이라면) 래일은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아니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날 밤 스몰리늬에 도착한 레닌은 무장 폭동을 직접 지휘하였다.

레닌적 계획에 의하여 레닌의 직접적 지휘밑에 수행된 무장한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를 선두로 한 인민 대중의 10월 폭동은 순식간에 승리하였다. 10월 25일 밤 10시에 열린 제2차 전로 쏘베트 대회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체 정권이 쏘베트로 넘어 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레닌은 그날 밤에 첫 쏘베트 법령 초안을 썼다. 대회 제2일에 레닌은 평화와 토지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평화와 토지에 관한 레닌적 법령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회는 인류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쏘베트 정부—인민 위원 쏘베트를 조직하였는 바 레닌이 첫 인민 위원 쏘베트 위원장으로 선거된 것은 지당한 일이였다.

인류 력사에 새 시기를 열어 놓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레닌의 령도하에서 승리하였다. 10월의 승리는 레닌주의의 승리였다.

전 세계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끌어 올린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우리 인민의 해방 투쟁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사상이 우리 나라에 급속히 침투 보급됨에 있어서 급격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조선의 우수한 애국자들은 레닌의 학설을 심오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레닌의 교시들은 그들에게 있어 고무적 힘으로 되였으며 자기의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 그들의 지침으로 되였다》 (김 일성《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위대한 레닌은 제국주의 시기의 민족 식민지 문제, 민족 해방 투쟁은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부분으로 되며 량자의 유기적 련계는 그들의 승리의 필수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교시하였다. 10월의 산아인 쏘련과 조선의 민족 해방 투쟁과의 관계도 바로 이 진리를 립증해 주고 있다.

레닌은 생전에 식민지 조선의 운명에 대하여 부단한 관심을 돌렸으며 쏘련은 레닌적 민족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우리 인민의 해

방 투쟁에 지지와 원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레닌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우리 인민의 해방 투쟁은 또한 쏘련 및 형제적 인민들의 해방 투쟁과의 국제주의적 련계에 의거하였다. 우리의 《빨찌산 운동의 지도적 핵심은 자기의 혁명적 활동에 있어 불패의 레닌주의 학설에 굳게 립각하고 있었으며 레닌의 불패의 사상이 구현된 위대한 쏘련은 무장 빨찌산들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힘의 원천으로 되여 있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빨찌산 투쟁을 진행함과 동시에 레닌의 학설에 의거하여 당시 국내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통일적 민족 전선으로 단합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김 일성, 상게 론문).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하여 조선은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였다. 이는 민족 문제에 관한 쏘련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레닌적 정책의 구현이였다. 해방후 10여 년에 걸친 반제, 반봉건 혁명의 완수 및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그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당 건설을 위한 투쟁의 력사는 바로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기초지어 지고 레닌에 의하여 발전 풍부화된 당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학설 및 쏘련에서의 선진적 경험들의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의 창조적 적용의 력사였다. 맑스주의, 레닌주의는 우리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우리 나라를 민족적 자주 독립과 사회주의에로 인도하였으며 또 인도하고 있다.

10월의 승리, 쏘련의 승리, 오늘 사회주의 체계의 세계적 체계에로의 장성 발전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갖 종류의 개량주의, 기회주의, 수정주의들에 대한 순결한 맑스주의, 레닌주의의 승리였다. 그것은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로농 동맹에 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관한, 맑스주의 당에 관한,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전멸 또는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중공업의 우위적 발전 등등에 관한 맑스, 엥겔스의 사상, 레닌의 사상의 승리였다. 맑스—레닌주의의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떠나서는 민족적 독립도 사회주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쏘련의 경험이 고전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오늘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또한 보여 주고 있다. 진보적 인류가 이 모든 것을 쏘련의 경험에서 확인하기 이전에 레닌은 이미 1920년에 그의 로작《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에서《경험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몇개의 극히 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는 불피코 로씨야에서 이미 수행된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라고 썼던 것이다.

리론과 력사적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국제 공산주의 운동내 일부 수정주의자들은 모든 나라들에서 타당한 보편적 진리인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외곡 또는 거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형태와 방법의 다양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명제를 외곡하면서 《민족 공산주의》를 표방하며 혹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유일하게 정당한 독자적인 길을 운운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사실상 거부하며 로씨야 혁명의 경험을 로씨야의 일국적 범위의 것이라고 떠든다. 이는 이미 레닌과 위대한 10월의 승리에 의하여 배격되였고 타격을 받은 낡은 기회주의와 수정주의의 재현에 불과하며 그들이 부르조아지의 물방아에 물을 대주는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맑스—레닌주의의 원쑤들,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야수적 발악도 자본주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원쑤들도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끔 현실은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원쑤들의 활동이 멎을 수는 없는 것이며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수정주의, 기회주의의 객관적 기초도 잔존하는 것이며 따라서 혁명적 경각성과 수정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맑스—레닌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맑스—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오늘 레닌적 사상의 체현인 위대한 10월의 기치는 진보적 인류의 머리 우에 더욱 더 높이 또 널리 휘날리고 있으며 레닌의 이름은 더욱 더 그들의 가슴 깊이 간직되고 있다.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원쑤에 대한 독재

정 진 영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에서의 새로운 위력한 전진을 불러일으킨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전 세계 제국주의 반동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발광적인 《반쏘 반공》 깜빠니야를 전개하면서 소위 《민족 공산주의》를 고취함으로써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통일 단결을 파괴 약화시키고 이 국가들을 분렬시켜 소위 《각개 격파》할 것을 망상하고 있다. 《민족 공산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기본 원칙들을 거세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부르조아 민족주의에로 유도할 것을 기도한다.

쏘련 공산당이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와 그의 후과를 시정하기 위한 비판을 전개한 이후, 특히 웽그리야 사건 이후 미제를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부르조아들과 그 이데올로그들은 쏘련과 사회주의를 비방 중상하는 데 광견의 무리처럼 미쳐날뛰고 있는 바 공격의 기본 목표는 결국 《독재》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이며 그들의 주되는 무기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낡은 구호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우경 기회주의적, 수정주의적 분자들은 또한 부르조아적 《민주주의》의 간판을 들고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뒤흔들려고 시도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물방아에 물을 대여 주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호는 결코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며 폭로 분쇄된지도 오랜 것이다.

그것은 인민의 원쑤들 간의 전 세계사적 투쟁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바로 쏘련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되던 첫날부터 혁명과 반혁명간,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원쑤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인 것이다.

맑스주의 운동,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최대의 반역자 까우쯔끼가 쏘베트 혁명과 그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배반하고 원쑤의 앞잡이로 전락하던 그때 그는 바로 이 《민주주의》를 구실로 삼았던 것이다. 《볼쉐위크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볼쉐위크들은 독재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때문에 그들의 사업은 부정당한 것이다》 (레닌 전집, 2권, 322페지)라고 그는 말했다.

레닌은 《자유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혁명——사회주의 혁명이건 민주주의 혁명이건——을 위하여 극히 본질적인 구호이다》 (동상, 323페지)라고 지적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귀중한 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상식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없이는 사회주의는 건설될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원칙들을 승인하고도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부인하는 자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레닌은 갈파하였다. 사회주의를 위하여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사회주의의 원쑤들에게 가장 나쁘고 무서운 것으로 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부르조아들, 모든

제국주의자들, 그들의 직접 간접의 모든 앞잡이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한결 같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공격의 초점으로 삼는 것은 리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자유》와 《민주주의》가 여기에서 그들의 주되는 구호로 되는가?

민주주의를 독재와 대립시키는 《자유》와《민주주의》의 구호——이것은 순전한 외곡이며 기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쑤들에게는 무기로 되며 인민에게는 위험으로 된다. 원쑤들로부터 이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는 우선 이 구호의 기만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비방하면서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는 독재의 나라》라고 왜칠 때 그것은 반동들 자신에 관해서라면 심각한 진리이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는 지주와 반동적 자본가들이 로동자, 농민들을 착취하며 억압할 자유가 없다. 거기에는 그들이 존재할 자유조차 없다. 아니 거기서는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전쟁과 침략을 선동할 자유도 없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바로 그들 인민의 원쑤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며 그들에게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민주주의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 인민들 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반동들은 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 인민들은 바로 지주, 자본가들로부터 빼앗은 그 토지와 공장과 국가 주권의 주인으로 되여 있으며 기타 일체의 생산 수단들과 문화 시설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향수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로동과 휴식, 교육과 보건, 선거와 피선, 언론과 출판, 집회와 시위 등——자기들의 리익과 행복을 옹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다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자기들의 원쑤에게 복무할 《자유》와 《권리》인 바 이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인민의 원쑤들, 제국주의 반동들은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자기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주지 않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마치도 그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는 듯이 선전 기만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이 인민의 벗이며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인 듯이 가장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을 사회주의로부터 물러서게 하며 《자유 세계》 즉 자본의 기반에 얽매여 두자는 것이며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동의 길로 사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호의 반동적 내용과 본질이 있는 것이다.

원쑤들은 그들의 계급적 리해와 형이상학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주의와 독재를 추상적으로 분리시키며 대립시킨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세계는 민주주의 세계, 자유의 세계로 부른다. 즉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바와는 전연 다른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독점가들의 황금 만능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대중에 대한 착취와 독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인류 력사에서 계급을 떠나 국가란 없었고 계급을 초월한 민주주의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실제로 존재하였고 또 존재하는 것은 고대 노예 소유자들을 위한, 부르조아지를 위한, 근로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추상적으로 분리 대립시키는 것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인 비계급적인 리해를 결정적으로 반대한다. 맑스—레닌주의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어떤 국가에서 누구를 반대하여 또는 누구에게 대하여 독재가 실시되며 누구를 위하여 민주주의가 실시되는 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실재하는 민주주의와 독재는 불가분적, 변증법적 통일 속에 있으며 량자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을 이루고 있다. 량자의 불가분성의 객관적 기초는 국가가 사회의 계급적 분렬에 토대하고 있다는 사실, 즉 국가에서 리해가 모순되는 계급들이 대립하는 한 주권을 잡은 계급은 다른 계급들에 대한 독재 없이는 자기 계급의 주권과 자유와 권리——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없다는 거기에 있다.

이리하여 부르조아 국가는 소수 유산자들을 위한 또는 그들 내부의 민주주의인 동시에 다수 무산자들, 근로 대중에 대한 소수 유산자들의 독재이며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는 소수 착취자들에 대한 다수 근로자 대중의 독재인 동시에 다수 근로자 대중 자체를 위한 또는 그들 내부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어떠한 국가에서를 막론하고 독재와 결부되지 않은, 적대되는 계급들에 다 같이 적용되는 《순수한》 민주주의나 《일반적》 민주주의란 존재한 일이 없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 전반적 평등, 《순수한》 민주주의에 대한 까우쯔끼 도배의 공담이나 그들의 상전들의 선전은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 사이의 평등과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론의할 여지 없는 사실에 대한 부르조아적 은폐이며 분식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계급의 원쑤,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자기의 독재를 결코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커다란 손실을 가져 온다는 것을 강조한다. 왜냐 하면 계급과 그의 원쑤, 인민과 반동의 계선을 가르는 것은 사회주의, 맑스주의의 출발점이며 이를 가르지 않으려 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것은 즉 대중의 계급 의식을 약화시키며 그의 장성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원쑤들이 바라는 바 이기 때문이다.

부르조아 독재를 비롯한 모든 착취자 계급의 독재가 주로 피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착취 제도를 유지 공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능으로 삼는다면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과 목적은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프로레타리아 계급들, 특히 농민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경제 문화의 사회주의적 개조 즉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 그의 주되는 기능과 목적이 있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착취자들, 자본가, 지주들 및 그들의 앞잡이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용서 없이 준엄하고 신속하고 또 단호한 폭력의 행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다만 착취자들에 대한 폭력만이 아니며 또 주로 폭력인 것도 아니다. 《그의 주요한 본질적인 것은 근로자들의 선진 부대이고 그의 전위대이며 그의 유일한 지도자인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사회주의 건설, 사회의 계급적 분렬의 절멸, 사회의 전 성원을 근로자로 되게 하는 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온갖 착취의 근원을 배제하는 것이다》(전집, 24권 314폐지) 라고 레닌은 교시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것은 과학적 사회주의, 맑스—레닌주의의 초석이며 그에 대한 리론은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전 세계 반동들과 그들의 모든 이데올로그들, 수정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리론을 외곡하여 나서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킨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사실상 진정한 자유 및 최고의 민주주의와 결부되여 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폭력 즉 무장력을 비롯한 일체의 국가적 강제력에 의거함으로써 원쑤들에 대한 진압, 제재, 징벌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도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성과 규률성에 의거하며 그의 령도하의 로농 동맹, 나아가서 더욱 광범한 대중과의 계급적 동맹에 의거하여 그의 목적인 사회주의 건설(광의의)을 수행한다.

진압과 건설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모든

기능은 광범한 근로 인민과의 밀접한 련계와 그들의 적극적 지지 및 직접적 참가를 떠나서는 수행될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데 광범한 근로 대중, 나아가서는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참가하고 그 결과를 향수하는 거기에 있어서의 그들의 자유와 평등——이것이 곧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즉 주권의 소유자로 되여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국가 사회 생활을 관리하되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정치적 제도를 말한다. 인민 주권과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이러한 기본 내용들은 오직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절,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지배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객관적, 경제적 기초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이다. 경제적으로 예속된 자들의 자유와 평등이란 형식이며 기만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레닌은 《어떠한 자유도 만약 그것이 자본의 압박으로부터의 로동의 해방의 리해와 모순된다면 그것은 기만이다》(전집, 29권 324페지) 라고 언제나 강조하였다. 착취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자유의 기초이다. 사회주의만이 근로자들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지어 준다. 부르죠아 민주주의가 대중에 대해서는 기만으로, 형식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경제적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어떠한 분야에서를 막론하고 프로레타리아트와 전체 근로 인민의 사회주의 사업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일체 반사회주의적 세력에 대한 투쟁에서의 그들의 적극성을 최대 한도로 발휘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체의 복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중앙 집권제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많든 적든간 필수적이다. 중앙 집권제 없는 민주주의, 그것은 지방 할거주의이며 무규률성이며 결국은 무정부주의에로 통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그것은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로 됨으로써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와의 호상 관계도 고정적이 아니며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이 측면 혹은 저 측면이 보다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에 대한 소수의 독재로서의 모든 착취자들의 독재가 대중에 대한 그들의 착취와 그 제도의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력사상 최초의(로농 독재와 같은 특수적, 과도적인 독재를 잠시 도외시한다면)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독재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착취의 영원한 폐절과 독재 자체의 폐절을 위한 력사상 최후의 독재이다. 따라서 이와 결부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도 력사상 최고 형태의 가장 완성된 민주주의로 되며 최후의 민주주의로 된다.

주민의 절대 다수를 위한, 또는 전체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의 모든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류 력사에서의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민의 원쑤에 대한 독재 및 프로레타리아 당의 령도와 결부됨으로써만 인민을 위한 가장 철저하고 가장 광범한 민주주의로 될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 당은 그의 목적, 지향과 그의 능력에 있어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 보장하기에 가장 잘 준비된 지도적 향도적 력량이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도 프로레타리아 독재도 있을 수 없다.

독재와 민주주의에 관한 부르죠아적 기회주의적, 수정주의적 외곡과 기만은 요컨대 량자를 형이상학적으로 분리시키고 독재를 사회주의 국가에만 결부시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호도하려 하며 민주주의를 부르죠아 국가에만 결부시켜 부르죠아 독재를 음폐하려는 거기에 있다. 이것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결국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거부와 계급 의식의 말살에로 통하는 것이다.

지난 해의 웽그리야 사건의 경험은 모든 혁명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되는 민주주의와 독재에 관한 문제를 반혁명이 어떻게 외곡 리용하는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 준다.

* *

웽그리야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제국주의 략탈자들의 발광적 소동, 이와 발맞추는 국제 공산주의내에서의 수정주의, 우경 기회주의 자들의 대두, 우리 나라에서 이미 적발 폭로된 종파 분자들의 반당 행위 등 최근의 국제 국내 정세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두 측면——원쑤에 대한 독재와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다같이 강화함이 없이는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여 주면서, 원쑤에 대한 독재를 철저히 함이 없이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도 강화할 수 없으며 당 대렬의 통일과 맑스—레닌주의 사상, 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함이 없이는 원쑤에 대한 독재도 철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 혁명의 전 운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데 대하여 경종을 울려 주고 있다.

웽그리야 사건의 근본 원인은 원쑤에 대한 독재가 불철저한 데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되였다. 야노슈 까다르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10월 이전의 웽그리야 인민 민주주의 주권은 부르죠아지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또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 진압 체재하지 않음으로써 맑스—레닌주의 혁명의 기본 원칙의 하나를 위반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10월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되였었다. 10월 이전에 웽그리야에서는 헌병과 군대를 제외하고는 부르죠아 국가 기관이 격파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국가 행정 및 경제 문화 생활에서 부르죠아지의 잔재 세력이 현저한 정도로 유지되였다. 실로 10월 이전의 웽그리야에서는 반혁명 분자들은 철저한 타격을 받지 않았으니 10월 사건 이전 수개월에 걸쳐 반동 작가, 기자들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근로자당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는 선전 선동이 허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 례로 된다. 웽그리야에는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되여 있지 못했다.

웽그리야 사건은 공고한 당의 통일이 없이는,당내에 종파를 두고는 원쑤에 대한 독재를 철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 주었다. 요제프 레바이 동지는 웽그리야에서의 10월 사건의 《결정적 원인의 하나는 웽그리야 반혁명이 지도적 로동자당 자체 내부에 중요한 동맹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당 내의 조직적인 그루빠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전복을 사상적 및 정치적으로 준비하는 수치스러운 역할, 즉 자본주의 복구 운동의 앞잡이의 역할을 부담한 그것이였다》고 분석하였다.

나지—로존찌 반혁명 종파 도당은 일단 출당까지 당하면서 집요하게 당의 지도부에 파고 들어 반혁명 무장 폭동 준비 및 수행을 교묘하게 방조 유도하였으며 드디여 웽그리야 인민의 조국을 적 앞에 내여 맡겼다. 10월 이전의 당 지도부의 결정적 오유의 하나는 바로 《임레 나지의 기회주의적 정책과 종파 활동에 대하여 운운하면서도 그것을 로골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을 통하여 폭로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데 있다》(레바이). 나지 그루빠의 기회주의 앞에서의 당의 이러한 사상적 퇴각은 10월 이전의 수개월 동안 이 반혁명 종파로 하여금 당을 더욱 더 파괴 약화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당과 로동 계급 앞에서 10월 직전의 당 지도부의 정책을 결단성 없고 동요하는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며 당의 와해와 혁명의 위기를 초래케 하였던 것이다.

우리 당내에 둥지를 틀었던 박 헌영, 리 승엽 종파 간첩 도당도 남반부에서 당과 혁명을 적에게 팔았으며 북반부에 기여 들어서까지 당과 인민 공화국의 전복을 흉책하였다. 모든 종파는 결국 적과의 야합으로 끝마칠 수 있으

며 어떠한 종파를 물론하고 종파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하며 철저히 뽑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은 반복하여 보여 주고 있다. 최 창익, 윤 공흠, 서휘, 리 필규, 박 창옥, 김 승화 등 반당 종파 분자들에 대한 우리 당의 타격과 그 뿌리를 청산하는 투쟁은 우리 당 대렬의 통일의 가일층의 공고화로 되며 시위로 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담보를 더욱 튼튼히 해 준다.

웽그리야에서 반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발광적으로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독설을 퍼붓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에 호응하여 도처에서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들을 반대하여 수정주의적, 우익 기회주의적 언론들이 나타났다. 맑스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웽그리야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주권을 반대하는 폭동을 《혁명》이라고 선전하며 로농 혁명 정부에 대하여 반혁명 분자들과 그들이 조종한 《로동자 쏘베트》에 《민주주의》를 주라고 설교하며 반혁명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의 쏘련 군대의 원조를 《간섭》이라고 비방하며 《쓰딸린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서 또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구실 밑에서 쏘련을 반대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반대하는 선전을 전개하며 국가에 대한 당의 령도를 훼방하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거부하며 지어는 국가 주권 해소론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부인하는 데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반동에 복무하는 것이며 이데올로기에서의 반동은 실천에서의 반동에로 통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사상, 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의 필수 조건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자들의 무조건적 의무로 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어떠한 수정주의적 외곡의 시도도 전 세계 공산당, 로동당들로부터 결정적인 반격은 받았으며 또 받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야 등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과 불란서, 이태리, 미국 등 나라 공산당들의 대회와 대표 회의들,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 최근의 각국 형제당들의 회담들과 공동 성명들은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확고 부동한 통일과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그의 어떤 사소한 외곡과 수정도 묵과 타협하지 않을 단호한 결의를 명시하고 있다.

웽그리야 사건의 원인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 거기에서의 반혁명의 전술, 제국주의 반동들과 우경 기회주의적 분자들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대한 외곡 수정 등에 대한 반격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고귀한 교훈으로 되고 있다.

✻ ✻

김 일성 동지가 일찌기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인민 주권도 인민의 원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을 위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우리는 이것을 음폐하지 않으며 이것을 모호하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민 주권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혁명의 원쑤, 인민의 원쑤들——지주 예속 자본가 계급을 비롯한 일체의 친미 분자, 민족 반역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민주주의적 자유도 권리도 주지 않으며 줄 수도 없다.

인민 주권은 그들의 경제적 토대를 박탈 청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체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까지도 근절할 것을 과업으로 삼는다.

동시에 인민 주권은 모든 계급의 민주주의가 그러한 바와 같이 자체의 리해, 즉 우리 인민의 리해에 모순되지 않는 한 인민의 모든 계층——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도시 소시민, 민족 부르죠아지——에게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위업에서 그들의 모든 력량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며 그 결과로서 그들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의 부단한 증진을 보장하게 한다.

우리 인민의 원쑤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북반부에서의 평화적 건설을 방해 파괴하기 위하여 갖은 악랄한 수단을 다 쓰는 것이다. 그러나 원쑤들은 **말로써**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인하며 자기들 자신에 대한 우리 주권의 독재를 우리 인민에 대한 독재로 묘사함으로써 자기의 앞잡이들을 고무하는 동시에 남반부에서 인민들을 자기들의 영향 하에 얽매여 두려는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 주권은 원쑤에 대한 철저한 독재로써만 인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행사, 그들의 모든 행복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민주주의적 단결과 활동에 의거함으로써만 원쑤에 대한 독재와 평화적 건설의 승리적 수행을 보장하고 있다. 독재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확대 발양, 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주요한 담보로 된다.

해방후 10 여 년간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거대하고 빛나는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결합인 인민 민주주의 독재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생산 수단들이 전 인민적 소유로, 토지가 경작하는 농민들 자신의 소유 특히 오늘에는 그들이 협동적 소유로 되고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전체 인민과 그의 주권이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를 받고 있는 조건하에서 국가와 인민간에 대립이 있을 수 없다. 인민은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생활 령역에서 국가의 중앙 집권적, 통일적 지도의 필요성 및 원쑤에 대한 독재의 요구와 모순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민주주의가 없다면 로농 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날로 장성 강화되는 인민 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 단결이 있을 수 없으며 당과 정부와 인민 대중의 불패의 련계가 조성될 수 없다. 이러한 통일 단결과 련계가 없다면 원쑤들에게 전대 미문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준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와 원쑤들을 점점 더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경이적 발전 속도는 그 무엇으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전전 시기는 차치하고도 전후 시기의 첫 선거였던 지난 11월의 지방 주권 기관 선거에서 우리 인민은 99.99%의 참가률을 보여 주었으며 참가자의 99.89%가 추천된 립후보자들에 찬성 투표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선거의 결과는 당과 정부 주위에의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정치—사상적 통일을 다시 한번 시위하였으며 이러한 국가 사회 제도는 원쑤들과 간첩, 반당 종파 분자들의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써 똑똑히 보여 주었다. 선거 과정을 통하여 인민들과 주권 기관과의 련계, 대의원들의 사업에 대한 인민 대중의 통제, 집행 기관에 대한 주권 기관의 통제는 각종 형식으로써 강화 발전되고 있는 바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 인민 주권의 강화에 관한 제3차 당 대회 결정의 구현의 일부로 된다.

미국에서는 1947—1956년 간에 공업 생산이 통털어 약 42% 장성하였다면 공화국 북반부에서 로동자들은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폐허에서 복구 건설을 시작하면서도 공업 생산액을 매년 평균 42%씩 장성시켜 1956년에는 1953년에 비하여 2.8배로 장성시켰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길을 따라 제1차 5개년 계획 실천에로 들어선 로동자, 기술자, 농민들은 주지된 사실이지만 1956년도 실적보다 현저히 증가된 1957도 계획을 완수하는 우에 40—50억원의 상품, 5천—1만톤의 강재, 5만톤의 알곡을 증산할 것을 호소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의 호소에 호응하여 96억원의 상품, 28 600톤의 강재 증산, 340만톤의 알곡을 생산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그후 이 결의들은 매일 같이 초과실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증산 목표액은 훨씬 더 증가되고 있다.

이 기적적인 사실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근로자들이 나라와 생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와 그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적, 문화적 복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계획과 조직 운영 사업에 광범한 근로 대중을 인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실제적인 길로 된다는 레닌적 국가 관리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인민 경제의 계획을 제기하며 토의하며 작성하는 데서 점점 더 큰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다. 계획 작성 시에 예견되였던 곤난들이 근로자들 자신의 창의 창발성에 의하여 백방으로 극복되고 있으며 계획 지표들은 하달된 이후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력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새 기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지표로써 바꾸어지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의 인민적 민주주의가 더욱 더 고도로 발양되고 있다는 데 대한 의심할 바 없는 증거로 된다.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의 인민적 민주주의를 더욱 고도로 발양시키는 동시에 원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원쑤, 인민의 원쑤들은 북반부에서는 전복 소탕되였지마는 남반부에서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집결되여 있다. 그들은 간첩 파괴 공작자들을 대량적,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매일같이 북반부에 침입시키는 데 자금과 정력을 아끼지 않는다.

원쑤에 대한 독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의 일부 일'군들은 우리 당의 민주주의적 관대 정책을 외곡하여 무경각하게도 원쑤의 앞잡이나 적대 분자들에게도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 없지 않다. 범죄를 하였거나 적에게 복무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이 본의가 아니였거나 혹은 엄중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앞으로 인민의 대렬에 들어 설 것이 확실한 그런 때의 관대 정책이지 원쑤에 대한, 적대 분자들에 대한 관대 정책이란 없으며 또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외곡과 오유는 응당 혁명에 적은 많은 손해를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

모든 국가에서의 독재가 그러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도 원쑤에 대한 독재와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결합이며 불가분적 통일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 혁명의 승리, 인민의 해방과 행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다. 원쑤에 대한 독재는 민주주의의 개화 발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되며 민주주의의 발양은 원쑤에 대한 인민의 독재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된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중앙 집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착취 계급의 주권이 아닌 인민 자체의 주권하에서 인민은 자기들의 원쑤에 대한 진압과 제재의 요구 및 전체 인민의 창조적 활동에 대한 전 국가적 통일적, 조화적 지도의 요구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향유한다. 만약 이 요구들과 모순되는, 즉 이 요구들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 및 범위의 자유와 평등—민주주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인민의 리익에 대한 침해로 되는 자의와 방종 또는 무규률을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부르죠아적 자유주의이며 원쑤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의 근로 대중은 우리 당 제3차 대회의 결정과 특히,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한히 고무되고 있는바 이 결정들은 인민적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원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동원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원쑤들의 발악의 매 걸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위력을 증시하는 반면에 부르죠아적 자유와 평등, 부르죠아적 민주주의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오늘 제국주의의 취약성과 그의 불가피적 멸망의 운명을 폭로하는 결과로 되고 있다.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리 장 수

국가 기관 특히 성 기관들은 전 국가적 범위에서의 해당 부문 당 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이며 혁명의 매 계단에 있어서 사회, 정치, 문화 건설의 각 분야에서,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경제 문화 건설에서 조직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당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수단으로서의 성 기관들의 사업과 그 기관내 일'군들의 사업 작풍과 군중 공작 방법은 전체 국가 관리 활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국가 관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 기관들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 내 당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그 기관 내 당원 및 비당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확한 집행에로 고무 추동하는 정치적 기관이다.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 사업에는 일정한 특수성이 있는 바 그것은 당 단체에 성 전반적인 행정 사업에 대한 통제의 권한이 부여되여 있지 않은 것이다.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 사업에서의 일정한 특수성은 그가 처한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데 그것은 성 기관들과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의 사업 범위와 한계가 서로 다른 것이다. 즉 성 및 중앙급 기관들은 전 국가적인 범위에서 인민 경제의 한 부문을 담당 지도하나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오직 그 기관 자체 내의 범위에서 조직되여 있으며 또 그 범위내에서만 사업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전 국가적인 범위에 걸친 성 기관 내 전반적 행정 사업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하여 성 기관 사업들이 당의 통제 밖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 기관들에 대하여서는 당 중앙 위원회가 직접 당적 통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 기관 책임자는 성 기관 전반적 행정 사업에 대하여 직접 당 중앙 위원회와 내각 앞에 책임진다. 동시에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는 성 기관내 당 사업에 대하여 당 중앙 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상급 당 위원회 앞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성 기관 내 당원들의 당 조직 정치 생활과 당원들의 당적 임무 수행 정형에 대하여는 행정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응당 당적으로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성 기관 내의 다수 초급 당 단체들은 자기가 처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특수성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당을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강화하면서 당의 조직 력량을 옳게 동원하여 행정 사업을 당적으로 성과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 적응하게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조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활동에서 이러 저러한 좋지 못한 경향과 결함들이 발로되고 있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의 주되는 임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제3차 당 대회와 수차에 걸치는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해방 후 정확한 정치 로선과 경제 정책들을 수립하였다. 지난 11년간의 실제 생활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확성에 대한 확고 부동한 신심은 전체 당원과 인민 대중의 정신적 및 물질적 생활에 깊이 관통되여 있다.

성 기관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총로선과 정책을 옹호 집행하기 위한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상급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 자기 관하의 조직된 력량을 우리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 당이 제기한 정책적 과업의 성과적인 수행에로 옳게 동원한 데로부터 이루어진 성과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의 활동 방법과 수준은 아직은 높지 못하며 여러 가지 결함들을 발로시키고 있다. 일부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기관 내 당원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며 그의 실행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원만히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성 기관 내에서 정치적 무관심성을 조성시켰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일부 그릇된 태도들과 심지어 그를 외곡 비방하며 당 정책 실행을 지연 파탄시키려는 엄중한 반당적인 종파적 책동들까지도 제때에 폭로 비판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반당적 종파 분자인 최 창익을 비롯한 일부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이 일하던 성 기관 내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침투 관철시키며 그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당 및 행정적으로 토의 강구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 부문 사업 정형을 당에 반영하며 시정 대책을 당에 제기하는 당원들의 권리를 행정적 직권으로 억제하면서 당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고취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특히 윤 공흠은 하부 일'군들로 하여금 《당에서 사업을 알지 못하는 데 이야기만 듣고 접수하여 두라》는 태도로 상업 분야에서 발로된 결함들에 대한 당적 지적과 비판을 대하도록 고취하였으며 《꿩 잡는 것이 매다. 계획 수'자만 올리면 된다》는 불순한 사상을 상업 부문 일'군들 속에 전파시킴으로써 그들 속에서 상'적 행위를 조장시켰던 것이다. 또한 김 승화를 위시한 건설성 내 일부 지도 일'군들은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연설에서 제시된 과업들과 내각 결정 제4호에서 제기된 건설 사업의 금후 발전 대책에 대한 방침들을 《시기 상조》라고 외곡하면서 그의 실행을 조직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반당적 종파 분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당 정책을 란포하게 위반 외곡하며 반대하는 비당적 행동들을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눈 앞에서 은폐된 방법으로 혹은 공개적 방법으로 감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 특히 일부 책임 간부들은 반당적 종파 분자들과 견결히 싸울 대신에 그들과 결탁하거나 그들의 반당 행위들을 알면서도 융화 묵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문제의 엄중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당적 종파 분자들의 종파 행동이 유해롭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들의 반당 행동을 제때에 간파하고 그를 당원 대중 앞에서 폭로 분쇄하지 못하고 종파 활동을 허용한 것이 초급 당 단체 사업에서의 아주 큰 결함이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원들과 정무원들 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침투 관철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부터의 사소한 리탈일지라도 그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경제 사업에서, 당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결함들을 나타내고 있다.

석탄 공업성은 당이 석탄 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들인 기본 갱도 굴진의 선행, 탐사 사업의 촉진 및 중점적 투자, 탄량의 확보 등을 아주 불만족하게 집행하였으며 전기성은 당의 지시에 따라 수십대의 발전기들을 복구하며 조업중인 발전기들과 송배전 시설들의 리용률을 높이며 전력을 절약하려고 노력할 대신에 새로운 대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것만을 주장하였으며 수산성은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어로 방법을 도입하며 서해 어업을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한 일련의 중요한 당 방침들을 책임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기계 공업성은 각종 부속품을 생산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충실히 실천하지 않았다. 일련의 엄중한 결함들이 발생한 주되는 원인은 정무원들 속에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당의 정책과 로선을 침투시켜 연구케 하며 그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잘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당 정책이 집행되는 곳마다에서 당 단체 사업이 활발히 조직 진행되지 못한 데 있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현존하는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며 그 사업을 새 과업의 요구의 수준에까지 제고하는 데 선차적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침투 관철시키기 위한 사업을 그가 처한 환경과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 진행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이 자기가 처한 형편에 적응한 당 로선과 정책의 침투 관철 방법과 계획을 강구하기 위하여서는 그를 초급 당 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충분히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의 결정된 방침에 근거하여 강연회, 독보회, 개별 및 부문별 좌담회와 학습 그리고 직관물 선전 등을 다방면으로 조직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 정책에 대한 침투 사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매개 당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 및 당의 정책을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제기된 창발적인 의견들을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그에 적응한 정치 사업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당 정책의 관철 행정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 정책의 침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성격에 따라서 성 당 위원회 혹은 총회와 열성자 회의에서 토의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도를 강구하며 해당한 의견들을 성의 행정 지도부에 제기하는 등 사업을 민활히 조직 진행할 것이다.

물론 정치 기관으로서의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자기 사업을 성 기관 내 일'군들 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침투시키며 해당한 실천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에 만 국한시킬 수 없는 것이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 정책을 침투시킴과 함께 성 기관내 매개 당원들과 부서 일'군들이 당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정형을 일상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실천 행정에서 발로된 현상들을 종합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해당한 지도와 방조를 계속 주는 데 당적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 위원회 혹은 총회에서 성 내의 일부 부서들과 개별적인 당원들이 당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정형을 총화 또는 중간 총화하면서 그의 집행 과정에서 발로된 결함들을 시정하는 동시에 당의 정책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과정을 통하여 초급 당 단체들이 성 기관 내 정무원들을 개별적 당 일'군에게 복종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이 당 정책의 실현과 행정 사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 사업의 각 부문에 당 사업을 침투시키며 그리하여 당원들과 정무원들의 활동을 정확히 료해 장악하여야 하는 바 행정 사업에 대한 당적 방조는 일'군들에 대한 정치적 지도와 사상적 동원을 통한 것이니 만큼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일'군들에 대한 정치적 지도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 사업에 대한 일련의 의견들을 성 지도부 또는 상급 당 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

도록 방조하는 데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류의하여야 할 것은 행정에 대한 통제권과 당원들에 대한 통제권과의 혼돈을 피하는 문제이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행정 사업을 방조하기 위해서는 성 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위원회 핵심들이 당의 정책과 경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깊이 연구 료해하며 동시에 행정 사업과 경제 사업에 정통한 많은 당원들의,지혜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것이 요구된다.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를 위하여

오늘 전 세계에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당 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당 강화의 필요 불가결의 조건으로, 당 발전의 법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로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 제도와 그의 온갖 유물들을 청산하며 부유하고 행복한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맑스—레닌주의당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당내 사상 의지와 행동의 통일이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립각한 강철 같은 단결이며 이는 인류 사회에 당이 존재하는 한 불멸의 진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당을 창건하는 첫날부터 제3차 당 대회와 8월 및 12월 전원 회의에 이르는 오늘 날까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계속 강조하여 왔으며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를 받들고 전체 당원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단결된 력량을 옳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성 기관 앞에 제기된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승리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성 기관 내 당 단체들의 통일과 단결은 한층 공고화되였으며 이는 곧 전 당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에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이와 같이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의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전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그렇게도 계속 부절히 강조하였으며 당 강화 발전의 확고 부동한 법칙으로 되여 있는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잘 조직 진행하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틈을 리용하여 자기들이 일하던 일부 성 기관들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와 그 지도부를 비방하며 당 중앙 위원회를 공격하기 위한 음흉한 준비를 조직 진행하였으며 자기들의 측근자들을 사촉하여 당의 지시들을 거부케 하였으며 당의 정책이 잘 집행되지 않도록 암해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지난 시기에 최 창익을 비롯한 반당 종파 분자들은 당 중앙의 간곡한 충고를 접수하지 않고 혁명 사업을 전적으로 태공하면서 자기들을 추종하는 몇몇 분자들을 모아 놓고 당 정책과 당 중앙 위원회 지도부를 비난하며 자기들이 당과 정부를 장악할 가소로운 음모들을 작성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에 충실한 간부들을 비방하며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 내 당원들 호상간에 중상 모해케 하여 그들 간에 알륵과 불신임을 조성함으로써 동지들 간의 원칙적인 단결을 파괴하며 그들을 당으로부터 떼여 내여 자기들에게 추종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반당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에게 만 충실한 일부 추종 분자들을 항상 전면에 내 세우면서 그들을 무원칙하게 지지 찬양하는 반면에 성실한 당원들의 정당한 의견들을 억제하는 등으로 일'군들 간의 단결과 호상 신임을 약화시켰다. 반당 종파 분자들은 《나는 동무의 등용을 지지하는 데 누가 반대하였다》 《누구는 동무의 뒤를 파니 주의하라》 《나는 동무를 등용하려고 하는 데 당에서 반대한다》는 등의 추악한 방법으로 당원들 간의 단결을 약화시키며 나아가서는 당에 대

한 불신임의 사상을 조성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들이 지난 시기에 일하던 일부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은 종파 분자들의 해독적인 활동과 기도들을 당적 립장에서 제때에 간파 제지하지 못하였으며 지어 일부 당 단체들은 종파 분자들의 암해 활동을 정치적 각성이 무디게도 《쓸데 없는 말공부》니 《자유주의》니 등으로 단순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파 분자들의 비위에 발을 맞추어 견실한 당원들을 박해하면서 종파 분자들에게 리용 당하였으며 또는 종파 행동을 묵과하고 그와 융화하는 엄중한 결함들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성 기관과 그곳의 당 단체들에서는 당원들의 생기 발랄한 창조적 기풍과 당적 원칙을 위한 투쟁 기풍을 찾아 보기 힘들었던 것이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우선 전체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당 내에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제3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에 엄격히 립각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더욱 단련하며 종파 분자들이 끼친 후과들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과 종파 분자들의 영향하에 있었던 당원들에게 사상 교양을 주기 위한 사업에 당의 력량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성 기관 내일'군들의 사상 령도와 당성 단련을 옳게 조직 진행하여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려면 당 생활을 통하여 일'군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타 사생활에 이르기까지를 정확히 료해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토대하여 당 단체들은 당 내에서 당적이며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이 전개되도록 하며 동지들 간에 호상 존중하고 호상 믿고 호상 의지하며 동지의 결함을 진심으로 제때에 권고 시정하여 주는 기풍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업 과정에서 초급 당 단체들은 간부 정책 집행에서 초래된 결함들을 시정하도록 방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원 대중들 속에서 종파 분자들의 죄행을 계속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그들을 사상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며 종파 분자들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일부 동무들로 하여금 자기가 범한 과오의 본질을 똑바로 알게 하며 그를 시정하기 위한 방도를 정확히 찾도록 일상적으로 효과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끝으로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에 대하여는 계속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하는 바 그들은 온갖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음흉한 방법으로 발악하며 반당적 종파 행동을 또 다시 감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개심하려고 애쓰는 당원들은 당 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그의 사상 생활을 계속 검토하면서 방조를 주는 원칙에서 사업하여야 할 것이다.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사업 작풍을 일층 개선하자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지도적 사상으로 삼는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시종 일관하게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사업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 당적으로 전개하였다. 우리 당의 당 대회들과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2월 연설, 1954년 3월 전원 회의와 1955년 4월 전원 회의들은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며 사업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 커다란 계기로 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1954년 당 중앙 위원회 3월 전원 회의에서 우리의 지도 사업에 있어서 사무실적, 관료주의적 방법을 퇴치하며 생생하고 실무적이며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지도를 수립하며 개인의 책임성과 유일 관리제를 강화하며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검열이 그 기관 내의 지도적 일'군들의 중심 과업으로 되도록 하며 사업상 결함에 대하여 무자비한 비판을 전개하며 국가 법령과 결정

들을 위반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호소를 받들고 성 기관 내 일'군들의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사업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그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성 기관 내 당원들과 정무원들의 옳은 군중 관점과 사업 작풍은 하급 정권 기관 일'군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인민 정권과 인민들과의 혈연적 련계를 더욱 강화케 하였으며 인민들 속에서 인민 정권의 위신과 신임을 한층 제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성 기관 내 일'군들의 조직 지도 수준을 제고하며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방침들을 정무원들 속에 철저히 침투 관철시키며 그로부터의 온갖 리탈과 외곡 및 위반을 반대하여 견결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결과에 일부 성 기관 내 일부 지도 일'군들은 관료주의적으로 틀을 차리기 위하여 구체적인 타산이 없이 성 관리 기구를 팽창시키여 문서주의를 조장시키는 경향들이 발로되였다. 건설성에서는 2개의 기업소를 대상으로 방대한 성 관리국을 설치하였으며 건재 공업국에서는 국을 성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관리 기구를 급속히 팽창시키면서 크지 않은 4—5개의 기업소를 대상으로 관리국을 조직하였다. 관리 기구의 팽창은 행정 경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재 체계와 사무 처리의 복잡성을 초래하며 지도를 문서로 대치케 하며 일'군들을 사무실에 얽어 매여 놓았다. 실례로 재정성에서는 지난해 11개월 동안에 관계 기관들과 하부 기관들로부터 1만 5천건의 각종 문건을 접수하고 2만 2천건을 발송하였는 바 이는 매일 평균 54건을 접수하고 80 여 건을 발송한 것으로 된다. 물론 이러한 문건 중에는 필요 없는 것이 많았으며 전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것도 있었다.

일부 성 기관 내 일'군들에게서는 관리 기구를 팽창시키고 문서 놀음에 사로 잡혔기 때문에 하부에 대한 지도 사업을 거의 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부에 대한 실정을 참작함이 없이 주관적으로 사업을 처리하여 혼란을 일으키며 하부 일'군들과의 접촉과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불성실하게 해결 처리하는 관료주의적 태도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건재 공업국 내 부국장, 처장, 부처장들은 지난해 각각 평균 10일간 밖에 하부에 내려 가지 않았으며 재정성 국가 수입국, 대내외 상업성 계획국, 가격국 및 공업 상품 관리국 등 책임 간부들은 최근 수년간 단 한번도 하부에 내려 가지 않았던 것이다. 문서로서만 사업을 지도하며 하부 실정에 암둔한 탓으로 건설성에서는 지난해 정적으로 건설 계획을 변경시킨 것만 무려 37회, 석탄 공업성에서는 기본 굴진 계획 244건 중 93건을 취소하고 120건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굴진을 871메터나 더 진행케 하였다. 그리고 건설성, 석탄 공업성, 건재 공업국 내 일부 관료주의자들은 로력 혁신자들과 선진적 기술 일'군들의 제의와 창의 고안들을 묵살하여 버렸는 바 특히 김 승화를 비롯한 건설성 내 일부 일'군들은 창의 고안자들에게 《공명주의자》 《창안 뿌로까》 《아첨쟁이》 등의 부당한 감투까지 씌웠던 것이다.

일부 성 기관 내에서 발로되고 있는 관료주의는 이상의 것에 만 그치지 않는 바 일부 성 기관들은 대중의 의견에 기초한 개인 유일 관리제와 협의제의 결여에서 그리고 개인 독단의 횡행과 그로 인한 행정 규률과 질서의 물란, 무책임성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건재 공업국 참의회는 리 필규의 독단에 의하여 운영되였는 바 지난해 계획 안건 41건 중 단 1건을 취급한 데 불과하며 참의원들의 출석률은 58.7%이며 년간 총 토론자는 17명에 불과하였으며 김 승화는 성내 신소 처리 정형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참의회에서 토의하는 것을 자기 개인 독단의 의견으로 기각하여 버린 사실도 있었다. 이렇게 성 기관 내에서 밑으로부터의 대중의 의견과 성 책임자와의 의견이 조화적으로 결합되지 못한다면 필연코 사업에서 오유를 면하지 못할 뿐더러 대중의 지혜를 발동시켜 그들의 지혜의 도움으로써 거둘 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할 데 대한 당의 거듭되는 호소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성 기관 내 일부 중요한 간부들 속에서 엄중한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들이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주로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당원들에 대한 사상 령도를 극히 불만족하게 진행하면서 성 기관 내에서 낡은 사상 요소와 그릇된 사업 작풍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당원들을 옳게 조직 발동하지 못한 데 있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지난날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찾으며 당원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사업 작풍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3차 당 대회 문헌 정신에 근거하여 활발히 전개하되 당원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관점, 태도, 방법들을 더욱 깊이 해석 침투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당 생활에 대한 일상적 지도와 통제

맑스—레닌주의 당의 모든 당원들은 례외 없이 초급 당 단체에 속하여 있으며 그곳에서의 당 생활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연구하며 당적 분공을 받은 뿐더러 당적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요한 력량을 기울여 왔는 바 당 중앙 위원회 5차 전원 회의와 4월 전원 회의 특히 3차 대회 후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 사업은 일층 개선 강화되였다.

그러나 일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제3차 당 대회 결정서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바와 같은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에서 당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과업의 요구와 당원들의 장성되는 정치적 수준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결함들을 시정하기 위한 사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미 폭로된 바와 같이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당원들 속에서 당 정책을 철저히 침투 관철시키며 당 정책에 대한 외곡 및 비방, 불성실한 태도들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며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며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등 사업에서 중요한 결함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당원들의 당 생활이 정치적으로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으며 당 중앙 위원회가 성 기관 내 당원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요구성에 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물론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개별 당원들의 당 생활을 결코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성 기관 성원들의 구성과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지도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이 매 시기에 제기하는 정책과 그의 실천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의 사상 동향을 심각히 분석 연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사업과 당 생활에서 어떠한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게 어떠한 당적 지도가 요구되는지 모르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서 창조되고 있는 좋은 경험들을 모르면서 당원들의 당 생활을 일률적으로 지도하였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이상과 같은 결함들을 시정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급 당 단체 핵심 열성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 열성자들을 정확히 료해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개별적인 당원들을 당 정책 실행과 일상적인 당 생활을 통하여 료해 연구함으로써 그들 속에서 당 핵심 열성자들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그를 거쳐서 당원들의 당 생활을 일상적으로 지도하며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개별적 당원들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며 그들을 당 생활에 적극 인입하지 않으며 개별 당원들과의 담화 사업, 분공과 그의 실행 정형에 대한 료해와 방조 및 총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써 일부 초급 당 단체들은 실제로 당원 대중들 속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는 일부 락후한 당원들을 《핵심》으로서 인정하고 그를 대상으로 사업한 사실이 있었다. 바로 지난날 재정성, 건설성, 직총, 문화선전성, 대내외 상업성 내 초급 당 단체들이 그렇게 일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 당 위원회들은 당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규범들인 당내

민주주의의 발양, 집체적 지도 원칙의 준수, 건전한 비판과 자기 비판의 발전 등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천을 저해하는 경향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당 생활 규범들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의 옳은 사업 조직과 함께 성 기관의 행정 간부들이 당 생활에서 모범이 되며 언제나 당 단체들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하부로부터의 건설적인 의견과 비판적 제의들에 신중하게 대하며 자기를 항상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집체적 통제하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당 생활을 지도 통제함에 있어서 반당적인 종파적 오유를 범한 분자와 그렇치 않은 오유를 범한 당원들을 구별 료해하며 과거에 과오를 범하였다 할찌라도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려고 애쓰는 당원과 그와 반대로 자기 과오의 시정을 거부하는 당원들을 정확히 료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료해 장악한 토대 우에서 초급 당 단체들은 개별적 당원들의 당 생활을 그가 처한 환경과 또한 그가 범한 과오의 성질에 따라서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지도함으로써 그들이 또 다시 오유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끝으로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당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상 정치 교양 사업에 깊은 당적 주의를 돌려야 한다. 초급 당 단체들은 당 정치 교양 사업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선 혁명 실천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와 결부하여 진행케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문제들을 당 사상 교양 사업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며 당원들을 우리 당 건설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계급 교양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 사상 교양 사업이 당원들의 정치적 각오 정도와 혁명적 의식을 제고하는 정치적 심각성을 가짐으로써 당원들이 실지 사업에서 정치적인 목적 의식성을 가지며 매개 당원들과 비당원 정무원들로 하여금 당을 믿고 당 정책을 성심 성의로 지지 옹호하며 인민 민주주의적 전취물에 대한 고상한 자부심과 우리의 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하며 동시에 그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 투사로 육성하여야 한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자기의 기능을 보다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 당 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바 성 당 위원회 구성에 성 행정 간부들이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평양시 당 위원회와 구역 당 위원회들의 성 당 단체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되여 있는 바와 같이 성 당 단체는 구역 당 위원회에 직속되여 있는 초급 당 단체이다. 그러므로 구역 당 위원회에게는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로 하여금 당 규약에 규정된 성 당 단체들의 기본 임무들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지도 통제할 책임이 있으며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성 행정 사업 전반에 걸쳐 당적 영향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구역 당 위원회들은 성 기관 내 당 단체 사업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므로 그 성 기관 내 당원들의 사상 동향을 제때에 료해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당 생활을 정확히 지도하여야 할 지도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 일'군들은 당 조직 원칙에 립각하여 구역 당 위원회의 지도를 허심하게 대하여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당 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를 잘 가지지 않으며 구역 당 위원회의 지도를 신중히 대하지 않는 경향들도 있다. 심지어 지난 시기 일부 성 당 위원장들은 정책적 문제는 당 중앙 위원회, 교양 사업 문제는 시 당 위원회, 당 내부 조직 문제는 (당비 수납, 당원 규률 위반, 입당 수속 등등) 구역 당 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것 같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상술한 결함들을 시정하고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에 대한 구역 당 위원회의 지도를 한층 강화하며 그 지도 방법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성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이상에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들에 당적 주의를 돌리며 그에 근거하여 자기의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제3차 대회와 8월 및 12월 전원회의 결정 실천을 보다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국민 소득의 급속한 장성과 인민 생활의 향상

윤 기 복

우리 나라는 토지, 산림, 유용 지하 자원, 수력, 수산 자원 등 실로 풍부한 자연 부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나라의 방대한 잠재적인 사회 부를 이룬다. 그러나 나라의 진정한 현실적인 사회 부 즉 국민 부를 이루는 것은 과거 다년간에 걸쳐 조선 인민의 로동으로써 창조되여 현재 보존되고 있는 물질적 향리품들의 총체이다.

물질적 향리품의 생산과 소비는 한시도 중단될 수 없다. 해마다 그리고 매일 일정량의 물질적 향리품이 생산되여 그중 일부는 생산적 및 비생산적으로 소비되고 다른 부분은 축적된다. 국민 부는 과거 다년간에 걸친 축적의 결과인 동시에 사회적 생산과 소비의 필수적 전제이기도 하다.

국민 소득은 당해 년도에 생산된 총 사회 생산물 중 소비된 생산 수단을 보상하고 남는 부분으로서 당년 축적과 소비의 원천을 이룬다.

그리하여 전후 시기에 나라의 국민 소득 생산의 급격한 장성과 그 제 요인, 국내에서 생산된 국민 소득과 형제적 우방들로부터 보내온 무상 원조의 옳바른 리용, 축적 폰드에 의한 국민 부의 급속한 증대와 소비 폰드에 의한 주민 복리의 급속한 향상에 대한 고찰은 전후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리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미제와 리 승만 역도가 도발한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의 국민 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무엇보다도 국가 소유의 공장, 광산, 제조소 건물들과 설비들, 광대한 몽리 면적을 가진 관개 시설, 운수, 체신 시설 등을 비롯하여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등이 무참히도 파괴 소진되였다.

미제의 야만적 폭격과 략탈로 인한 귀중한 재부의 손실은 비단 국가 소유에만 미친 것은 아니다. 협동 단체 소유,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의 소규모적 사'적 소유, 도시와 농촌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소유, 로동자, 사무원 기타 주민들의 개인적 소유에 속한 국민 부의 피해도 막심하였다.

공식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쟁 피해 총액은 무려 4 200억 원에 달한다. 3년 간에 걸친 가렬한 전쟁 행정에서 8 700여 동의 공장, 제조소 건물들과 생산 설비들이 파괴되였으며 37만 정보의 농토가 피해를 입었고 25만 두의 조선소, 38만 두의 돼지, 9만 본의 과수가 피해를 당하였으며 2 800만 평방 메터의 주택, 5 000여 개소의 학교, 1 000 여 개소의 병원 및 진료소, 260 여 개소의 극장 및 영화관과 수천 개소의 문화 후생 시설들이 파괴되였다. 실로 조국의 거리와 마을들은 문'자 그대로 재'더미로 화해 버렸다.

물론 당과 정부의 옳바른 시책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전시 생계가 어느 정도 안정 유지되긴 하였으나 가증스러운 미제의 만행으로 인하여 인민 생활은 여지 없이 령락되였고 다수 주민의 생계마다 이미 평화 시기에 마련하였던 가구, 식기, 문화용품, 침구, 의복 기타 일체의 생활 밑천이 모조리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전 협정이 체결되고 우리 나라에서의 류혈적 전쟁이 종식되자 조선 인민은 다

시금 평화적 경제 건설에 나서게 되였다. 여기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걸친 전쟁전 수준의 회복을 기본 과업으로 하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실천하는 길로 전체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공화국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옳게 타산한 기초 우에서 현명하고도 정당한 전후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 방향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천명한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우리 인민 경제를 단순히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일제의 악독한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장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할 목적으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이 방향에서 작성된 1954——1956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은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와 로동 계급, 농민 기타 전체 근로 인민의 창발적 및 헌신적 로력과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 국가 인민들의 사심 없는 기술 경제적 원조에 의하여 빛나게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조선 인민은 이로써 또 하나의 거대한 혁명적 전취물을 달성하였다.

전후 년간에 나라의 국민 부는 전쟁의 혹심한 상처를 회복하고 급속히 보충 증대되였으며 그중 사회주의적 소유의 비중도 가일층 제고되였다. 그것은 오직 전후 시기에 국민 소득이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그 소유 형태 별 구성이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변동된 결과이다.

전후 년간에 있어서 국민 소득은 다음과 같이 매년 급속히 장성하였다.

전년에 대비한 국민 소득 장성 템포(%)
(1948년 가격으로)

1954년	1955년	1956년
137	120	125

그리하여 1956년에 국민 소득 총액은 1953년에 비하여 2.1배로,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 146%로 장성하였다. 전후 부흥기에 있어서 국민 소득의 년 평균 증가 템포는 대략 27%에 해당하는 바 이는 거의 류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국민 소득의 증가 템포이다.

전후 국민 소득의 급속한 장성의 첫째 요인으로 된 것은 사회주의적 로동 생산 능률의 확고한 장성이였다.

전후 년간에 물질적 생산의 각 부문들에서는 새 기술의 도입, 근로자들의 숙련 제고, 로력 조직의 개선 및 로동 규률의 강화로 말미암아 로동 생산 능률이 현저히 향상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속한 템포로써 로동 생산 능률이 장성한 부문은 공업이였는 바 1956년에 공업 로동 생산 능률은 1953년에 비하여 194%로, 전쟁 전 1949년에 비하여 152%로 장성하였으며 건설 로동 생산 능률은 1953년에 비하여 132%로 장성하였다.

전후 국민 소득 장성의 둘째 요인으로 된 것은 사회적 생산 로력 투하의 증대이다.

당과 정부는 전쟁으로 인하여 총 인구중 로력 적령 인구, 특히는 남성 로력의 비중이 저하된 사정을 타산하여 농촌 로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증대되는 로력 수요를 옳게 균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였다.

전후 시기에 인민 경제 로동자, 사무원 수는 다음과 같이 장성하였다.

전년도에 대비한 인민 경제 평균 재적 종업원 수의 증가 (1 000명 단위)

1954년	1955년	1956년
126	73	45

이리하여 1956년에는 인민 경제 평균 재적 종업원 수가 80만 8천명에 달하였으며 1953년에 비하여 23만 4천명 즉 41%,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는 24만 3천명 즉 43%나 더 증가하였다.

그런데 1956년에 비예산제 부문의 종업원 수는 1953년에 비하여 58%, 그중에서도 특히

공업 부문에서는 78%, 건설 부문에서는 60%나 각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3개년 계획 기간에 당과 정부의 정당한 로력 수급 방책을 받들고 국가 행정 관리 기구를 계속 축소하며 비생산 로력의 생산 로력에로의 개편 동원을 실현하는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결과 물질적 생산 분야의 로동자, 사무원 수는 비생산 분야에서 보다 더 빨리 장성하였다. 그러나 농촌 로력까지 포함한 전체로서의 사회적 생산 로력의 투하 규모는 인민 경제 로동자, 사무원 수보다는 훨씬 완만하게 장성하였다.

전후 국민 소득 장성의 세째 요인으로 된 것은 생산 수단 소비의 절약이다. 로동의 기술적 장비의 제고에 따라 단위 생산물의 가치 구성에서 체화 로동이 차지하는 몫이 점차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물 단위당 생산 수단의 소재적 지출의 계통적 감소는 결국 동 기간 중 국민 소득 물량의 빠른 장성 템포를 보장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전후 년간에 있어서 제반 설비의 리용률과 각종 실수률은 현저히 제고되였고 원료, 재료, 연료, 전력 등의 원단위 소비 실적도 계속 저하되였으며 엄격한 절약 제도의 확립을 위한 투쟁이 광범히 조직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3개년 계획 기간에 주요 공업 제품들의 단위 당 원가도 현저히 저하되였다.

이상은 전후 국민 소득의 급속한 장성을 위하여 성과적으로 동원된 자체의 생산 내부적 원천들이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은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국민 소득의 장성에 미친 형제 국가 인민들의 기술 경제적 원조의 거대한 영향이다.

이 기간에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 국가 인민들은 각종 공업 설비들과 공업용 원자재들,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기타 각 부문의 기자재들, 아스팔트, 유지류, 비료, 농약을 비롯한 화학 제품들, 문화 보건 기자재들과 과학 연구 기자재들, 가축들과 량곡,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내의류, 신발류 등 각종 대중 소비품들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소재적 관점에서 볼때 국민 소득은 총 사회 생산물 중 당년에 소비된 생산 수단을 현물적으로 보상하고 남는 모든 생산 수단들과 당해 년도에 생산된 전체 소비재들로써 구성된다. 그리하여 우방 인민들로부터 무상으로 보내온 생산 수단들과 소비재들은 결국 형제 국가 인민들의 로동에 의하여 그 나라들에서 창조된 국민 소득 중 전후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충당된 부분들이다. 그중 생산 수단은 생산적으로 소비된 만큼 국내에서 생산된 사회 생산물의 구성에 포함되였으나 국내에서 생산된 국민 소득의 구성에는 원칙상 포함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원조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된 국민 소득에 크게 추가되여 축적과 소비에 긴요하게 배정 리용되였다. 또한 형제적 벗들의 이 거대한 기술 경제적 원조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원가 저하 등 전후 국민 소득 장성의 생산 내부적 제 요인에 대하여 강력한 적극적 작용을 주었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인민 경제의 부단한 확대 재생산은 과도기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로정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대 재생산을 동반하였다. 당과 정부의 정당한 시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의 국영 경제 성분은 계속 부절히 확대 공고화되였으며 소상품 경제 성분은 협동화의 길을 따라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여 왔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은 자본주의적 요소들도 인민 정권의 지도 하에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고 있다. 특히 전후 시기에 주목할만한 사변은 농촌 경리의 협동화 운동에서 거둔 승리인 바 1953년 말에 800여 개소의 농업 협동 조합에 총 농가 호수의 1.2%가 망라되여 있었다면 1956년 말에 와서는 무려 1만 5 825 개소의 농업 협동 조합에 총 농가 호수의 80.9%와 농민 경리 경지 면적의 77.9%가 망라되였다.

이로써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지배적 및 통치적 지위가 현저히 강화되였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달성된 이 거대한 승리는 국민 소득 생산의 경제 형태별 구성에 뚜렷이 반영되였다. 전후 년간에 국민 소득 생산에서 사

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통적으로 제고되였다. (%)

1949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44.5	45.6	55.5	70.0	82

전후 년간에 있어서 농촌 경리에 비한 공업의 훨씬 더 빠른 발전 템포는 본래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압도적 비중이 확립되여 있던 공업으로 하여금 전체로서의 국민 소득 생산에서 더욱 더 주도적 역할을 놀게 하였으며 필경 국민 소득 생산의 부문별 구성에서 공업의 비중을 일층 강화하였다.

* *

국민 소득 생산에서의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압도적 우세는 국민 소득의 분배와 리용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규정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 축적이 불가피적으로 근로 대중의 실업과 빈궁과 기아를 초래하며 축적과 소비간에는 적대적인 계급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하에서는 국민 소득의 제1차적 분배에서 자기를 위한 로동과 사회를 위한 로동간에 아무런 적대적 모순도 없으며 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회 순소득도 생산의 확대에 충당됨과 함께 필경은 또한 비생산 분야의 근로자들과 로동능력 상실자들의 개인적 수요 및 전체 인민들의 집단적인 사회 문화적 수요의 충족에 충당되게 되며 평시 경제의 조건에서는 다만 극히 적은 부분이 국방상 필요에도 충당된다. 이리하여 국민 소득의 분배와 리용에서 축적과 소비의 상용적 배합과 균형적 량립은 사회주의적 재생산의 결정적 우월성의 하나이다.

자본주의적 요소의 국부적 잔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 하에서 국민 소득은 근로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합법칙성에 따라 생산, 분배, 리용되고 있다.

특히 전후 부흥기에 있어서 국민 소득은 우리 당이 제시한 전후 경제 건설의 총 로선에 엄격히 립각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 현실 조건에서의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구체적 요구에 순응하여 정당하게 분배 리용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방향에서 파괴된 인민 경제를 시급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심대한 피해를 입은 나라의 국민 부를 새로운 질적 구조의 궤도에로 보충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는 결국 방대한 축적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국민 부 중에서도 특히는 생산적 고정 폰드의 급속한 보충 확장이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였는 바 전후 년간에 물질적 생산 제 부문에의 기본 건설 투자는 실로 거대한 규모에 달하였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실적은 총액 806억원에 달하였다. 그 부문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 문 별	구성비
생산 부문 건설	73.1
그중 공업 건설	49.6
〃 농업 건설	9.2
〃 운수 체신 건설	13.1
〃 상업 및 사회 급양 건설	1.2
비생산 부문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주택, 공공 등) 건설	26.9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	100.0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복구 건설에는 399억 원이 투자되였는 바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투자액(억원)	구성비(%)
중공업	324	81.2
경공업	75	18.8
전체공업	399	100.0

당과 정부가 전후 기본 건설 투자를 물질적 생산 분야에, 그중에서도 공업, 특히는 중공업에 선차적으로 집중시킨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였다.

그것은 생산 수단의 우선적 장성이 무엇보다도 확대 재생산의 필수적 조건인 Ⅰ (v+m) >Ⅱc의 확고한 지속을 위하여 합법칙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정, 중공업 특히는 그 심장부인 기계 제작 공업 만이 인민 경제 각 부문을 부단히 새로운 높은 기술로써 장비하며 자립 경제의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정, 전후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 축성의 과업이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과 함께 특수하게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써 설명된다.

첫째로 전쟁 기간에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었고 가장 여지 없이 파괴된 부문이 중공업이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953년에 공업에서 소비재 생산은 전시 인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책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1949년 수준의 99%에 해당하는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생산 수단 생산은 1949년 수준의 42%에 불과하였다. 평시 경제 체제로 이행하면서 전쟁의 후과로 조성된 이와 같은 불균형을 시급히 극복하고 사회적 생산의 2대 부류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무조건적으로 요구되였다.

둘째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령락된 인민 생활을 급진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려면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켜야 하며 재'더미로 된 거리와 마을들을 소생시켜 주택과 문화 후생 시설들을 대규모적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는 바 그를 위해서는 결국 농기계, 농약, 비료, 쎄멘트, 벽돌, 목재, 철근 등을 대량적으로 생산 제공하여야 하며 따라서 기계 제작, 금속, 건재 및 화학 공업과 그와 관련된 석탄, 전기 공업의 우선적 복구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였다. 이리하여 중공업 부문이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한 의식주 문제의 해결에 직접 기여하는 내용을 현저히 구현하고 있는 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두 부류간 호상 관계의 중요한 구조상 특성으로 되여 있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시종 관철되였다. 전후 공업에 대한 대규모적 기본 건설 투자의 결과 전시에 심히 파괴되였던 240 여 개소의 대 중 공업 기업소들이 새 기술로 장비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복구, 확장되였으며 80 여 개소의 대 중 공업 기업소들이 신설되였다. 그리하여 1956년에는 1953년 및 1949년에 비하여 공업 생산은 다음과 같이 장성되였다.

		1953년에 대비한 1956년의 장성 템포	1949년에 대비한 1956년의 장성 템포	1953−1956년간 년평균 증가 템포
전체 공업		2.8배	1.8배	42%
그중	생산 수단 생산	4배	1.7배	59%
	소비재 생산	2.1배	2.1배	28%

보는 바와 같이 전후 년간에 중공업의 장성 템포는 경공업보다도 두배 이상이나 더 빨랐으나 전쟁 전 1949년 수준에 비한다면 경공업이 보다 더 높은 생산 수준에 처하여 있다.

전후 3개년 간에 농업 부문에도 막대한 기본 건설 투자가 진행되였다. 즉 동 기간중 농업 건설 투자액은 74억원에 달하였는 바, 그중 대규모적 관개 하천 공사에 만도 42억 원이 투자되였다.

이리하여 농업 생산도 역시 급속히 복구 발전되였다. 3개년 계획 기간에 농작물의 총파종 면적은 11만 8천 정보나 증가되였으며 그중 알곡 파종 면적은 6만 4천 정보가 증가하였다. 3개년 계획 기간에 동해안과 서해안의 일부 지대들에서 계속되는 랭해와 한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 총 수확고는 계속 장성하여 1956년에는 287만톤에 달하였으며 1953년 수준을 24%, 1949년 수준을 8%나 각각 릉가하였다.

전후 시기에 국가 기본 건설 투자는 비생산적 고정 폰드의 확장에도 적지 않게 돌려졌다.

전후 기간에 도시에는 610만 평방메터, 농촌에는 730만 평방메터, 도합 1 340만 평방메터의 주택이 신설되였다. 그중 국가 자금에 의하여 건설된 로동자, 사무원 주택만 하더라도 510만 평방메터에 달한다. 그리고 무참히도 파괴되였던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이 급속히 복구 건설되여 1956년에 학교 수, 극장, 영화관 및 구락부 수, 병원 수와 그 침대 수는 전쟁전 1949년 수준을 모두 다 릉가하는 데 이

로렸다.

이와 같이 전후 시기에 있어서는 해마다 국내에서 생산된 국민 소득의 방대한 부분과 대외 무상 원조의 압도적 부분이 축적되여 전시에 혹심하게 파괴된 국민부의 급격한 복구 확장에 충당되였다. 그중 비생산적 고정 폰드의 확장에 돌려진 부분과 소비재 생산을 위한 고정 폰드 및 류동 폰드의 증대에 돌려진 부분은 인민 생활의 향상에 직접 복무하였거나 또는 복무하고 있으며 지어는 생산 수단 생산을 위한 고정 폰드 및 류동 폰드의 증대에 충당된 부분도 역시 필경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사명을 지닌 것이였다. 그리하여 축적 폰드가 주민 복리의 증진에 직접 기여하는 내용을 현저히 구현하고 있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축적과 소비간 호상 관계의 중요한 구조상 특성으로 되여 있다.

* *

전후 시기에 있어서 해마다 비생산적 소비에 직접 충당된 국민 소득 부분도 급속히 장성하였다. 이는 령락된 인민 생활을 시급히 개선 향상시킬 당면하고도 긴급한 과업에 의하여 제기된 필연적 결과이였다.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끊임 없는 배려 ——이것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최고 법칙이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은 물론, 임의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이 강구 실시하는 모든 경제 정책들과 방책들은 그 어느 하나도 인민들의 진정한 행복과 생활 향상을 추구하는 길로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다. 우리 당은 조국의 부강과 인민들의 최고 복리를 되도록 단시일내에 실현하려는 지향으로 충만되여 있다.

그리하여 전후 시기에 당은 기본적 정치 경제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국민 소득 및 방대한 대외 원조 수입의 분배와 리용을 계획적으로 지도하면서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옳게 설정, 실현하였다. 일가 생계에도 《규모》가 있어야 하거늘 하물며 국가의 백년 대계를 꾸려 나감에 있어서 《규모》와 여축이 없어서 되랴! 여기에서 우리 당은 생산의 부단한 장성 개선과 인민 생활의 원대하고도 확고한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축적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매시기마다 가능한 최대한의 몫을 당면한 소비에 충당하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의 급속하고도 부단한 향상을 도모하는 방침을 시종 일관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3개년 계획 기간에 당과 정부의 배려와 옳바른 시책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급속히 개선 향상되였다.

동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은 가급금제의 실시와 년말 상금의 수여, 특히는 작년 11월부터 실시된 평균 35%의 임금 인상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전후 년간에 있어서 로동자, 사무원의 평균 화폐 임금의 동태를 공업 및 건설 부문의 로동 생산 능률 동태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로동 생산 능률과 화폐 임금의 장성 템포(%)

	1953년에대비한 1954년의 %	1954년에대비한 1955년의 %	1955년에대비한 1956년의 %	1953년에대비한 1956년의 %
공업 로동 생산 능률…………	141	120	115	194
건설 로동 생산 능률…………	123	105	102	132
인민 경제 로동자, 사무원의 평균 화폐 임금……	122	111	117	158

인민 경제 전체 종업원의 평균 화폐 임금을 공업 로동자들의 그것과 조건적으로 등치한다면 적어도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공업에서 만은 전후 시기에 축적이 소비보다 기본적으로 더 빨리 장성하는 방향으로 국민 소득의 제1차적 분배가 진행되여 온 것이 명백하다.

다만 1956년만은 전년도에 비하여 소비가 다소간 더 빨리 장성하였다.

만일 공업 부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 인민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은 공업 로동 생산 능률보다 현저히 완만하게 장성한 것 만큼 전후 년간에 있어서 로동자, 사무원의 화폐 임금이 얼마나 빨리 장성하였는가 하는 것이 더욱 뚜렷해 진다. 더구나 1956년 12월의 화폐 임금만을 따로 본다면 그것은 1955년 12월에 비하여 43%나 증가하였으며 1953년 12월에 비하여 2.1배로, 전쟁 전 1949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는 2.3 배로 장성하였다.

이로부터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로동자, 사무원의 화폐 임금 장성 템포가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템포이며 우리 당이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최대한의 배려를 돌린 결과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

당과 정부는 또한 전후 시기에 5차에 걸쳐 대중 소비품에 대한 국정 소매 가격의 대폭적 인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56년에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의 물가 수준은 1953년에 비하여 45%, 그중 자유 판매품 물가 수준은 52%나 각각 저하되였다.

전시에 등귀되였던 물가 수준이 전후에 이와 같이 급속히 저하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6년의 물가 수준은 아직도 1949년 수준보다 비교적 높다. 그러나 로동자, 사무원의 생계에 있어서는 전쟁 전에 비하여 배급 구매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으므로 로동자, 사무원 생계에서의 평균 구매 물가는 전쟁 전보다 아직 높기는 높되 자유 시장 물가나 국정 소매 상업(자유 판매) 물가가 전쟁 전보다 등귀되여 있는 데 비하면 훨씬 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적어도 그들의 화폐 임금이 전쟁 전 수준을 릉가한 만큼은 등귀되여 있지 않다.

이리하여 로동자, 사무원의 화폐 임금의 제고와 소매 물가의 저하로 말미암아 전후 시기에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은 해마다 급속히 장성하여 1956년에는 전체 년간에 걸친 실질 임금이 전쟁전 1949년의 년간 실질 임금에 거의 도달하였으며 화폐 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실시된 1956년 11월과 12월에 와서는 월 실질 임금이 드디여 전쟁전 1949년 동월의 실질 임금 수준을 릉가하였다.

이 밖에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 무료 정휴양, 무료 보건 치료와 무료 교육 등에 충당되는 국가 예산 지출액도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였다. 전후 시기에 각각 전년도에 대비한 국가 예산 사회 문화 시책비의 증가액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억원 단위)

1954년	1955년	1956년
79	95	121

로임 이외에 국가로부터 베풀어 지는 모든 추가적인 복리들과 혜택들을 다 고려할 때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소득은 사실상 그 실질 임금보다도 현저하게 더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 동태를 보더라도 로동자, 사무원 실질 소득의 장성은 전후 시기에 실질 임금의 장성보다 비교적 더 빨리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는 전후 기간에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계속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돌렸다.

농촌 경리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됨에 따라 협동 경리의 우월성은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현물 수입과 화폐 수입의 현저한 증대를 보장하여 주었다. 게다가 인민 정권은 전후 영농상 방조를 위하여 식량과 종자와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전시에 미납된 현물세, 대여곡 등 9만톤의 량곡과 14억원의 대부금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 밖에도 중요하게는 농업 현물세률의 감소, 고정 현물세제의 실시, 관개 사용료의 경감,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 비료에 대한 량곡 교역 비률의 개정 등으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증가되였다.

로동 계급과 농민의 생활 뿐만 아니라 3개년 계획 기간에 공화국 정부가 실시한 소득세률 및 지방 자치세률의 인하와 개인 상공업에 대한 지도 및 배려의 결과로 수공업자, 상인, 기업가들의 소득도 증가되였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급격한 장성과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증대에 따라 국내 시장의 용적은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그 중에도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액이 현저히 증대되였다.

1956년에 국내 소매 상품 류통액에서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3%에 달하였다. 이제는 주민들이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구매 소비함에 있어서 더욱 더 결정적으로 조직 시장에 의거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1956년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액은 1953년에 비하여 2.8배로,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는 2배로 각각 장성하였으며 몇 가지 주요 상품들의 판매량을 보더라도 1956년에는 1953년에 비하여 면직물은 2.5 배로, 견직물은 8.1 배로, 간장은 2.8 배로, 된장은 3.3 배로, 소채는 3.6 배로, 수산물은 5.5 배로, 담배는 3.6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와 같이 전후 시기에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이는 우리 당이 제시한 전후 경제 건설의 총로선과 그의 경제 정책이 현명하며 철두철미 정당하였다는 것을 재삼 실증하여 준다.

* *

전후 시기에 우리의 인민 생활은 매우 급속한 템포로써 개선 향상되였다. 불과 3년 만에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은 전쟁 전 수준을 릉가하였다. 이것은 사실이며 전후 경제 건설에서 거둔 고귀한 결실이다.

여기에서 전쟁 전에 대비한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 동태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적 설명을 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 동태와 공업 생산고 동태와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1956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전쟁전 1949년 수준에 비하여 1.8 배로, 그중 소비재 생산은 2.1 배로 장성하였는 데 왜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은 1956년 말에 와서야 전쟁 전 수준을 릉가한 데 불과하였는가에 관한 질문이 간혹 제기된다. 그런데 로동자, 사무원 생계의 소비고 물량 증대는 경공업의 장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농업 생산의 장성에도 의존하며 따라서 로동자, 사무원 실질 임금의 동태는 어느한 부문의 생산고 동태보다도 오히려 전체로서의 국민 소득의 동태와 더욱 긴밀히 관련되여 있다.

둘째로 로동자, 사무원 실질 임금의 동태와 국민 소득의 동태도 응당 혼동되여서는 안된다. 사실상 국민 소득의 최종적 리용에서 축적 폰드와 소비 폰드간의 비률은 정세와 경제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저히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로동자, 사무원의 소비, 농민의 소비 등 각이한 사회 성분에 속한 주민 소비의 장성이 각이한 템포로써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로동자, 사무원의 소비와 국민 소득 총액의 물량 장성 템포들 간에는 일정한 배리가 야기 될 수 있다.

그런데 1956년에는 1949년에 비하여 축적 폰드의 비중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생산 확대에 충당된 몫이 비상히 증대되였음은 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택 건설과 교육, 문화, 보건 건설과 같은 비생산적 고정 폰드의 확장에 만도 전쟁전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축적 자금이 투하되였다. 이는 물론 국민 소득의 급격한 장성에 의해서 만 실현될 수 있었으나 비생산적 고정 폰드의 확장은 1956년의 실질 임금 장성에 당면하게 작용한 요인이라느니 보다 앞으로 장기간을 두고 인민 생활의 물질적 기초로서 복무하게 될 그러한 요인인 것이다.

그리고 1956년에는 농업 생산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이는 1956년의 1949년에 비한 국민 소득의 높은 장성 템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계절성을 띤 농업 생산의 앙양은 보통 다음 년도의 인민 생활 향상에 가격적 및 현물적 측면들을 통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만큼 1956년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에는 1956년의 높은 농업 생산보다는 오히려 1955년도의 낮은 농업 생산이 더 긴절한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 전후 년간에 있어서 국내 소비 폰드에는 대외 무상 원조의 일부가 또한 추가 배정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전 1949년에 비한 1956년의 로동자, 사무원 실질 임금의 동태는 동 기간에 걸친 국민 소득의 장성 템포보다 훨씬 낮을 수 밖에는 없었다.

세째로 1949년에 비하여 1956년의 자유 시장 물가 또는 국정 소매 상업(자유 판매) 물가가 비교적 높다는 것 만을 념두에 두고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이 아직도 전쟁 전 수준만 못하다고 표상하는 일면적인 경험적 착각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에서 고려되여야 할 물가 변동의 요인을 반드시 국정 소매 배급 가격, 국정 소매 상업 (자유 판매)가격, 자유 시장 가격 등 로동자, 사무원의 생계에 관계되는 모든 가격들의 변동과 그 구성(특히는 배급 비중)의 변동을 통일적으로 반영한 로동자, 사무원 생계에서의 평균 구매 물가의 변동으로써 규정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자, 사무원의 화페 임금 중 낮은 고정 가격에 의한 배급 상품 구매에 지출된 몫이 전쟁 전에 비하여 현저히 증대된 사실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실질 임금의 변동에 대한 일면적인 외곡된 표상을 줄 것이다.

끝으로 그와 같은 일면적 표상을 자아내는 객관적 생활 조건의 하나로서 전쟁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부의 혹심한 피해를 들어야 하며 전후 생활 향상의 높은 템포와 도달된 생활 수준의 현실적 저위성간의 모순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의 급속한 템포— 여기에 바로 우리 인민 민주 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잠겨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민 경제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도달될 수준은 물론 아직도 낮으며 불만족하다. 그리고 1956년 말에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이 전쟁 전 수준을 릉가했다 하여 그로부터 곧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전쟁전 수준을 넘어서서 그때 만큼 유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일정한 생산 방식 하에서 소여 나라, 소여 시기의 사회적 생산과 소비의 수준은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현존 국민 부의 규모와 구성에 크게 의존하며 매개 가정의 생활 수준은 또한 그의 축적된 생활 부의 규모와 구성에 크게 달려 있는 까닭이다.

우리 나라 국민 부는 해방 전 반 세기간의 일제에 의한 악독한 식민지적·착취와 노예적 략탈의 흔적을 아직도 완전히는 씻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미제가 도발한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일단 재'더미로 화했다가 다시금 일떠선 청소한 부이다. 여기에 바로 국가는 이 청소한 국민 부를 계속 증대시키면서 국가 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주민들도 역시 자기의 생활 밑천을 고쳐 장만하면서 생계를 견실히 영위해야 할 사정이 있다.

생산 관계의 선진성과 우리 제도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나라의 생산력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처해 있으며 인민 생활이 그 개선 향상의 높은 템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족치 못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이것이 장구한 일제 통치의 악 결과인 동시에 특히는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에 의한 야만적 파괴와 략탈의 저주로운 후과임을 조선 인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날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며 축적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인민 생활의 원대하고도 확고한 향상을 꾸준히 도모하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로선은 더욱 더 현실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바로 전후 기간에 생산 수단 생산과 축적 폰드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는 원칙이 관철되였기 때문에 오직 그를 토대로 하여서만 인민 복리의 급진적 향상을 위해 취해진 당과 정부의 대담한 방책들이 비로소 가능하였으며 더구나 1957년 인민 경제 계획에서 예견된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격한 앙양과 소비 폰드의 급속한 장성이 능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지시한 방향을 따라 력사적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증산과 절약을 위한 온갖 예비들과 내부 원천들을 동원하며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57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 만이 오직 우방 인민들로부터의 무상 원조가 현저히 감소되며 주로 국내의 생산 내부적 원천들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야 할 새로운 경제적 조건에서 금후도 국민 소득 장성의 빠른 템포를 계속 유지 강화하며 국민 부의 확고한 증대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민 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꾸준히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류통 부문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리　상　선

오늘 우리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이 제기한 길을 따라 제1차 5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하면서 특히 국내 상품 류통 사업에는 실로 중요하고 긴급한 과업들이 제기되고있다.

전후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취한 제 대책의 결과에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주민들의 지불 능력있는 수요는 급속히 장성하였다.

이렇게 급속히 장성된 인민들의 수요는 한편으로는 상품 생산의 확대와 지방적 상품 자원을 더욱 광범히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 공급 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만약 국내 경제 생활에서 성숙된 이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산과 소비간에 불균형이 조성될 것이며 개인 시장이 우리 나라 경제 생활에서 아직 상당한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비 조직 시장에서의 가격 등귀를 초래하고 원의 구매력의 저하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종 일관한 제 대책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후 인민 생활 향상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는 국내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환경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 대책을 제시하면서 생활 필수품 생산을 확대하며 상품 공급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인민들의 실질 수입이 급속히 제고되고 지불 능력있는 수요가 현저히 장성된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특히 국내 상품 류통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문제는 현 시기 우리 당 경제 정책 수행에서 가장 중심적 고리의 하나이라는 데 대하여 전 당적 주의를 환기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상업 앞에 제기한 중요 과업들의 해결을 위하여 지난 1월 24일 당 중앙 상무 위원회는 국내 상품 류통 사업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며 수매 활동을 강화할 데 대하여》 결정을 채택하였다.

*　　　*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이 승리적으로 수행된 결과에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전반적 부문에서는 량적, 질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공업은 물론 농업, 수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였으며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는 상품 생산 및 판매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을 요구하게 되였으며 국내 상품 류통의 급속한 발전과 보다 다양하고 기동성 있고 민활한 상업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공급 사업과 농산물의 수매 교류 사업의 현 상태는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 장성하는 인민 생활과 인민 경제의 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들의 사업에서는 엄중한 결함들과 오유들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기간 대내외 상업성을 비롯한 상업 기관들과 계획 기관들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상업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나라 과도기 경제 발전의 제 요구와 특성 및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깊이 연구 타산하지 않은 데로부터 상품 류통 규모의 설정, 상품의 지역간 배정 및 공급, 지방적 상품 원천의 동원 및 가격 제정 사업 등 상업의 기본적 문제들에서 엄중한 주관주의적 오유를 범하였다.

많은 상업 기관들은 도와 도, 군과 군, 상점과 상점간의 상품 류통 계획 규모와 상품 배정 계획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매개 지역의 주민 구성과 그의 구매력의 변동, 수요 구조의 변화, 지방적 생활 관습과 자연—경제적 제 특성 등을 면밀히 연구 타산하지 않고 이를 일률적으로 과거의 낡은 실적에 일정한 비률을 가산하여 기계적으로 루진 평균적 장성을 예견하는 무원칙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왔다.

소매 기관에 대한 상품 공급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률과 일정한 절차가 수립되지 않고 있었다.

하부에서 요구하지 않는 상품을 내려 먹이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응당 모든 소매 기관에 분배되여야 할 희귀한 상품까지도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라 해서 일부 재빠르게 주문한 기관에 만 편중시키는 사실이 적지 않게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지방에서는 남아 돌아가는 상품이 다른 지방에서는 품절되게 하는 등으로써 상품 류통의 속도를 지연시켰으며 불필요한 역수송과 반복 수송을 초래하며 상품의 질을 손상하며 막대한 비경제적 지출을 내게 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 기간에 수 많은 경공업 기업소들을 복구 확장하였으며 인민 소비품 생산을 위하여 수 많은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 생활 필수품 생산은 매 개인의 수요를 제각금 골골이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상업은 아직 완전히 전개된 자유 상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 일부 중요 품종의 상품에 대하여서는 계속 배급제의 실시를 보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로동 공급 사업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들은 식량과 로사용 물자의 배급 사업을 비롯하여 탄광, 광산, 공장 등 산업 지대에 대한 로동 공급 사업을 매우 등한시하여 왔다.

많은 로동자 지구에서는 우선 구매력에 비하여 상품의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하였으며 상점, 식당 수도 현저히 적게 배치되였었다.

그러면 지난 기간에 로동자 지구에서 이와 같이 상품의 심한 부족 상태를 초래케 한 것은 우리에게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직 우리에게 상품이 유족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동자 지구에 상품이 적게 공급되게 된 리유로는 전혀 되지 않는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서는 상품 류통 계획을 작성할 당초부터 근로자들의 구매력에 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상품 원천은 충분히 예견하였으며 또한 계획대로 공급하였다.

로동자 지구에서 상업이 락후하게 된 원인은 우리 상업 일'군들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상업이 우선 누구에게 복무하여야 되는가 하는 계급적 립장에 서지 못함으로써 로동자 지구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차요시해 온 데 있으며 지난 날 윤 공흠을 비롯한 상업성의 일부 지도 일'군들이 당의 상업 정책을 외곡하여 집행한 데 있다.

일부 상업 지도 일'군들의 상업 정책 수행에서 계급적 립장을 고수하지 못한 것은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의 락후성에서 더욱 심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상업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 형태이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들의 개인적 수요에서 식

료품은 절대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기간 많은 상업 일'군들은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각종 부식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거의 도외시하여 왔다.

사회 급양 사업도 근로자들이 대중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직 운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들은 몇개의 규격화된 종합 상점과 간이 매점에만 매달려 상업 활동을 극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전개하여 왔다. 상업에서 봉사의 질이 낮으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기동성이 없고 수요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산물 수매 사업의 락후성은 국내 상품 류통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약점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국가 배정 상품의 압도적 부문이 공업 상품으로 되고 있는 반면에 농산물의 방대한 원천은 국가 계획권내에 인입되지 않고 자유 류통에 맡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이 거대한 상품 원천을 남김없이 탐구 동원함으로써 국가의 보충적 상품 폰드를 증대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 경제 생활에서 심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지난 기간 국가 및 협동 단체 수매 기관들은 자기 사업에서 적극성과 대담성이 없이 협소한 틀 안에서 안일하게 사업하면서 수매 활동을 수백만 생산자들 속에서 광범히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광활한 수매 원천에 깊이 침투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거대한 상품 자원은 그 전부가 국가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유익하게 동원 리용될 대신에 적지않게 사장 랑비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매 사업에서 이와 같은 락후성은 농민들 속에서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부 농산물과 부업 산물 생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적지 않게 농촌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많은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서 식료품과 농업 부산물에 대한 부족을 느끼게 하였다.

지난 기간 농촌 수매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루차에 걸치는 당적 조치가 취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매 체계와 수매 방법은 정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매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며 수매 원천을 조사 장악하는 사업까지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 및 협동 단체 기관들의 수매 사업에서는 많은 경우에 실정에 맞지않는 각종 불필요하고 무용한 제한과 통제가 적용됨으로써 그의 활발하고 기동적인 활동을 저애하였으며 특히 수매 가격에서 확고한 원칙이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자유 수매 품종에 대하여서는 자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허다한 수매 품종을 수매 장악하지 못하고 개인 중매 상인들에게 놓치고 마는 결과를 가져 왔다.

또한 수매품에 대한 저장 및 가공 사업이 락후하며 지역간 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함으로써 산지와 비산지, 계절과 비계절 사이에서 심한 가격 차이를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과 또는 생산되는 당철에는 처분난을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비산지나 또는 비생산기에는 몇배의 값을 주고도 살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 상품 류통 부문 사업에서 이상과 같은 엄중한 제 결함들과 오유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대내외 상업성을 비롯한 소비 협동 조합 중앙 련맹 및 수매 량정성의 일부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을 철저히 집행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부족하였고 적지 않은 경우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형식적으로 대하여 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또한 계획 재정 금융 기관들을 비롯한 각 관계 기관들과 지방 정권 기관들과 지방 당 단체들의 사업상 결함과도 깊이 관련되여 있다.

지난 기간 계획 재정 금융 기관들은 우리 나라 과도기 상업의 제 특성 특히 개인 시장이 존재하며 그가 조직 시장에 상당한 작용과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옳게 리해하지 않고 그의 특수성을 무시하면서 모든 사업을 억지로 일률적인 규정과 제도와 계획화의 틀안에

몰아 넣으려고 하였으며 철도 및 자동차 운수 기관들은 국내 도시와 농촌간에서 상품 수송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려는 당적 책임감이 부족하였으며 모든 수송 조직과 수송 수단의 배치가 상품 수송의 기동성과 시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조직되지 못하였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상업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도 아주 부족하였다. 특히 다수 도 인민 위원회들에서는 지방 상업의 창설과 관련하여 국가 소매 상업의 관리기능이 자기에게 이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관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시,군 인민 위원회들에서는 상업에 대한 행정 지도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며 상업 부문에 대한 방조 사업이 부족하였다.

또한 적지 않은 당 단체들에서는 인민 생활 향상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상업이 노는 역할을 과소 평가하면서 상업 부문 사업을 형식적으로 지도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당의 정책을 침투시키며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비당원 대중을 조직 동원하며 해당 기관들에서 당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당적 지도와 검열 통제 사업을 극히 미약하게 진행하였다.

*　　　*

오늘 우리 앞에는 인민 생활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도록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을 일층 확대 발전시키며 농산물의 수매 교류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며 개인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에 유익한 방향에서 자유 시장을 리용하는 등 제반 조치와 구체적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내 상품 류통의 통로를 결정적으로 확장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 공급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상품 류통 사업을 강화하는 기본 방향은 어데까지나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을 강화 발전시키며 국내 시장에서 그의 지도적 령도적 지위를 계속 확대하는 데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국가 및 소비 협동 조합 상업망 수를 결정적으로 증가하며 그의 포치를 공장, 광산, 탄광 등 로동자 지구와 도시의 주택 지구, 농촌의 집단 부락과 산간 오지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에게 더욱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

도매 기관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여 특히 소채, 수산물에 대한 도매 상업을 강화할 것이며 중요 생산 및 소비지에 도매 상업의 창고망을 확장하며 점차 중요 군 소재지에 이르기까지 중요 상품에 대한 국가 유일 도매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및 소비 협동 조합 상업 기관들에서는 수공업적 방법과 온갖 협소한 틀을 타파하며 보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도입하며 상업 활동에서 기동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고정된 매대에 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요구에 더욱 민첩하게 응할 수 있도록 분점, 위탁 판매점, 특약 판매점, 이동 판매 등 기동성 있는 보조적 상업망 조직을 광범히 운영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배달 판매, 소포 판매, 월부 판매 등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망만으로써는 장성된 주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국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생산 기관들의 직매 상업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국내 상품 류통에서 그의 보충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 협동 조합, 수산 협동 조합 및 지방 상업 기관들에서는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일체 제품과 계약 기관들이 인수하지 않는 중앙 배정품까지도 자체의 직매망을 통하여 판매할 것이며 국가 농목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에 대하여서도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서 자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직매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 기관들의 직매 상업의 조직은 다만 국내 상품 류통 사업에 대한 보충적 역할과 상품의 회전 속도를 단축시키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생산자와 그의 상품을

소비하는 수요자 대중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에 대한 소비의 반작용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즉 생산 기관에 그 생산물을 판매할 데 대한 책임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생산 기관들이 상품을 생산하여 미리부터 확정된 판로에 따라 계약 상대 기관에 넘기기만 하면 되던 것과는 달라서 그 상품이 팔리고 안팔리는데 대한 직접적인 리해 관계가 생산자 자신에게 조성됨으로써 상품의 질 향상과 인민이 요구하는 품종과 규격의 상품을 더욱 많이 생산하도록 강한 자극을 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기관이 직매하는 품종에 대하여서도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 기관들은 우선적으로 도매하여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균형성을 보장하는 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하여 별로 문제될 것은없다.

다음으로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식료품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전후 시기에 진행된 대 규모적인 복구 건설 사업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산업 지대와 주택 지구들이 새로 형성되였으며 도시 및 공업 인구는 급속히 장성하게 되였다. 따라서 이렇게 변천된 정세에 적응하도록 상업 조직을 개편하며 특히 로동자 지구에 대한 대중적 소비품의 공급량을 증가함으로써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식량 및 로사용 물자 배급 사업에서 엄격한 국가적 규률을 확립하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요에 맞지 않는 상품을 내려먹이는 무책임한 사업 방법을 철저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 및 로동자 지구의 상품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식료 상품에 대한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시종 일관한 재대책의 결과에 작년 12월에 이르러 우리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은 이미 전쟁전 수준을 릉가하게 되였다.

그러나 실질 임금은 전쟁전 수준을 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모든 가재 도구와 생활 수단의 전부를 상실당한 전쟁 피해로 말미암아 아직 만족할 만한 정도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곤난한 점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우리 당은 로동자들의 생활 수준의 가일층의 향상을 위하여 그들의 실질 임금 수준을 더욱 더 제고하도록 계속 높은 배려를 돌리고 있다.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은 그들에 대한 로임 인상만으로써는 도저히 보장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그들의 생계비 수준을 저하시키기 위한 대책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 량곡, 면직물 등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의 중요 품종에 대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국가에서 배급을 받고 있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계비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채, 저류, 조미료 등 부식물 구입을 위한 지출로 되고 있다. 때문에 금후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방도의 하나는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을 잘 조직하는 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이 도시 및 로동자 지구의 상업 특히 식료품 상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전 당적 관심을 돌리고 있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 시기 우리 당 상업 정책의 가장 기본적 요구의 하나인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비중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 및 로동자 지구의 상업망들은 소채, 저류, 과실, 수산물, 육류, 가금류 및 각종 조미료 등 공급 사업을 년중 중단함이 없이 보장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상업 기관들은 식료품의 자체 수매 사업을 결정적으로 확대하며 그의 저장 및 가공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생산의 압도적 부분이 협동화된 조건하에서 식료품의 계획적 생산, 계획적 공급을 위한 거대한 가능성과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때문에 도시 및 로동자 지구의 상업 기관들은 농촌 시장에서 식료품 수매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주변의 농업 협동 조합 또는 국가 농목장들과 년초부터 일정한 계약 밑에 그의 수매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상업망 조직에서도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하여서는 식료품 상업망을 더욱 많이 증설하며 가능한한 공업품 상점과 식료품 상점을 분리하여 배치하며 로동자 지구의 적은 상점에 이르기까지 식료품의 자체 수매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 협동 조합의 농산물 상점망을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더욱 확장할 것이다. 이것은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식료품 공급의 절대 량을 증가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광범한 농촌 산물의 도시에로의 판로를 개척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식료품 공급 사업에서 계절적 장애를 극복하며 지역간 교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료품의 저장 및 가공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식료품은 일정한 계절에 만 생산되며 특히 생선, 감자, 과실 등을 비롯한 많은 중요 품종들은 일정한 지대에서 만 생산되기 때문에 식료품 공급에서 계절적 및 지역적 제한을 극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 및 소비지에 소채, 저류, 수산물, 육류, 과실에 대한 저장 및 랭장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식료품의 저장 및 가공 사업을 강화하며 산지와 비산지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의 상업 기관들과 생산 판매 협동 조합들에서는 각종 식료품과 조미료 생산을 위한 리용 생산 및 가공 판매 사업을 더욱 확장하며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등 값싸고 대중적인 품종 생산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회 급양 사업을 개선하여 보다 값싸고 근로자들의 기호에 맞는 대중적인 음식에 주력하며 질 제고와 원가 저하에 더욱 노력하며 영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적게 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장 구내 독신자들의 합숙 주변, 집회 장소 또는 군중의 왕래가 많은 지점들에서 청량 음료점과 간이 이동 식당을 광범하 조직하며 도시에서는 야간 가두 판매를 광범히 전개하며 배달제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자 지구의 상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기업소내의 행정, 당 및 근로 단체 책임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업소 책임 일'군들은 자기 기업소내의 상업에 대하여 직접 한개의 기본 째흐 사업과 같이 인식하고 필요한 모든 방조를 줄 것이며 상점, 식당, 배급소 등을 책임적으로 해결 보장하며 상품 수송 사업을 적극 협조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의 협동화 운동의 승리는 농민들의 구매력의 장성 만을 가져 온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관습, 로동 질서 등 모든 면에서도 심각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변동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세에 상응하여 농촌 상업을 혁신하기 위하여 농촌 상업 기관들은 조직적인 집단 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장으로 다니는 시간을 제한받고 있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업망을 농민들의 집단 부락에 더욱 접근시키며 공업 상품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확장하여야 할 것이며 직접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농촌 녀성들의 부담을 적극 경감시키기 위하여 작업복, 아동복, 내의류 등을 비롯한 각종 일용품의 가공 판매 사업을 강화하며 양복점, 세탁소, 리발소, 구두 수리방 등을 광범히 조직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연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산간 오지와 교통이 불편한 지대의 상품 공급 사업에 큰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 수송 용기 및 포장 조건 등을 개선하는 것은 오늘 우리 상업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상업의 급속한 발전은 반드시 수송의 발전과 결합되여야 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상품 용기, 포장, 창고 등 제반 물질적 조건과 부대적 조건들이 보장되여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철도 및 자동차 수송 기관들은 상품 수송의 기동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수송 조직을 개편하며 철도가 통하지 않는 군 소재지들에 대한 상품 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물 자동차의 정기 운행을 시급한 시일내에 조직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 기관들에서는 상품의 용기 특히 간장, 된장, 술, 콩기름 등 중량 상품에 대한 용기 문제를 책임적으로 해결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상품의 포장을 개선함으로써 상품의 질

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들에서는 상업이 확대됨과 관련하여 증가되는 로력을 국가 로력의 추가없이 부양 가족 및 림시적인 로력들을 광범히 인입하는 방향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비교적 작업이 고정된 상점,식당, 식량 배급소 및 리용 생산 부문들에서는 부양 가족 로력과 림시적인 로력들을 광범히 채용하고 국가 식량 폰드에 의한 로력은 가급적으로 수매 부문들에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금번 당 결정에는 부양 가족들의 직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8시간 로동제가 아닌 4시간 또는 6시간 등 각이한 근무 시간제를 널리 적용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고정된 인원에 매달려 사업하기보다 상업 활동을 더욱 융통성있고 신축성있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규모가 적은 상업망들에서는 한 상점내에 본인과 그 부양 가족을 동시에 채용하는 방법 등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농촌 수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시기에 있어서 농산물 수매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제기한 일련의 중요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국내에 잠재하고 있는 방대한 수매 원천을 남김 없이 탐구 동원하는 문제는 외화 원천을 획득하며 오늘 적지 않게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공업의 원료의 많은 부문을 직접 국내 생산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 및 로동자 지구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훌륭히 보장하며 국가의 상품 폰드를 증대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농촌 수매품의 적지 않은 품종들은 특별한 공업적 가공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으로 큰 공업적 투자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농산물 수매 사업은 오늘 우리 생활에서 어느 모로 보나 아주 절실한 사업이며 또한 해당한 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로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 것이다.

농산물 수매 사업은 수백만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다한 품종과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는 아주 방대한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및 협동 단체 수매 기관들에서는 수매 사업에서 협소한 수공업적 방법과 소극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시장 수매, 위탁 수매, 현물과의 교역, 전도 수매, 순회 수매 및 고정된 지정 수매제 등 다종 다양한 형식과 적극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수매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상금제 등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광범한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량곡, 공예 작물로부터 각종 식료품 및 조미료와 파지,파철,파고무,누데기 등 각종 고자재와 모피,닭털,소털,오리털 및 각종 뼈와 피마자,호박씨,해바라기씨와 각종 산채류,초물,목기류 및 각종 부업 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원을 남김 없이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의 수매 교류 사업에서 농촌 시장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농촌 시장은 농촌 산물의 집산지인 동시에 농산물 교류의 중심지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적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업 수매 기관들의 활발한 수매 활동이 전개되여야 한다. 때문에 농촌 시장 사업을 자연 생장성에 방임하거나 그의 발전을 인공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모든 부정적 경향을 시정하고 그를 계통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하며 지방적으로 전해 내려 오는 좋은 교역 방법과 매매 습성들을 적극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산물 수매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수매 사업에 현존하는 제반 불합리한 통제 규정을 시정 및 폐지하며 무용한 각종 제한을 풀어 놓아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매 사업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생산물을 자유 시장을 통하여 임의의 가격과 임의의 방법으로 실현하고저 하는 수백만 개별적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획화하기에도 많은 곤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과 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국가나 협동 단체 경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만약 우리가 자유 시장의 특성 특히 그가 아직 일정한 작용을 놀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주관적 욕망에 만 복종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사업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수매 사업에 대한 과거의 일부 불합리한 통제와 제한은 국가나 협동 단체 기관들의 기동적인 수매 활동을 얽어매 놓고 농산물의 많은 량을 수매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기민한 상업적 경쟁에서 개인 상인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초래하였다. 때문에 실제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무용한 제한과 통제를 풀어 놓는 것은 정당한 일인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이 압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농산물 수매 사업에서의 각종 무용한 제한과 통제를 풀어 놓는 것은 국내 상품 류통을 륭성케 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에 다 같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종에 대하여 수매 기관들의 자유로운 수매를 허용하며 자유 수매 품종에 대한 수매는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여 진행하게 한 것 등 금번의 당과 정부의 제 조치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제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적절한 대책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일부 품종에 대하여 각 수매 기관의 수매를 허용하며 가격적 제한을 풀어 놓음으로써 일부 경우에는 수매 기관들 간에서 경쟁도 생길 수 있으며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떤 품종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있고 중요 산업과 교통 운수 기관들이 국유화되였고 농업 생산의 압도적 부문이 협동화되고 상업 부문에서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이 령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인민 생활에 큰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

반대로 이것은 절대적 생산량이 부족한 품종들의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자극하게 됨으로써 그의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리하여 생산의 증가는 그의 가격을 저하 및 안정시키게 될 것이다.

개인 상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 데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자유 시장이나 개인 상업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현 계단에 있어서 개인 상업을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하도록 리용하고 있다.

아직 우리 나라 상품 류통의 통로는 협소하며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들은 인민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국영 상업이나 협동 단체 상업의 손이 덜 미치고 있는 부문에서 그들의 긍정적 역할을 적극 리용하는 것은 인민생활의 향상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사업인 것이다.

때문에 당 및 정권 기관들에서는 개인 상업에 대하여 방임하는 현상을 시정하고 그의 사업에 옳은 지도와 방조를 주며 그들이 국가 법령하에서 더욱 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일부 국가 상품을 배정도 하여 주고 위탁 판매도 조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광범한 농촌 림야 산물과 수공업 생산 원천을 직접 개발 교류함으로써 지방적 생산을 자극하며 국가의 수중에 부족한 상품을 인민들에게 공급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상업의 긍정적 역할을 리용하면서도 항상 그의 부정적 측면을 제한할 데 대하여 일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개인 상업의 부정적 작용을 제한하는 사업을 방임하거나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령도적 역할이 약화된다면 개인 상업은 언제나 투기나 모리 행동에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 상업의 긍정적 역할을 리용함

과 동시에 그의 모리 투기적 행동과 각종 법질서의 위반 행위 등의 부정적 면을 제한하는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 상업의 부정적 작용을 제한하는 사업은 법적 단속이나 행정적 통제 만으로써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행정적 조치와 함께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을 강화함으로써 자유스러운 상업적 경쟁에서 그들을 이기기 위한 경제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키는 조건으로도 된다.

오늘 농촌의 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승리하고 도시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일층 장성되여 가고 있는 조건하에서 개인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정세는 더욱 성숙되고 있다.

때문에 당 단체들과 해당 기관들에서는 개인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그의 사업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상업 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품 류통 사업의 강화는 이 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 사업의 개선에 크게 의존한다.

당 단체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상업이 노는 역할과 특히는 현 시기 우리 당 경제 정책 수행에서 상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상업을 경시하는 일체 사상 표현들과 강력히 투쟁하며 당 일'군들 자신이 상업에 대한 경제 지식을 적극 습득하며 상업 부문에 일상적으로 접근하며 그 사업의 내부에 깊이 침투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상업 부문 초급 당 단체들을 일층 강화하며 이 부문내 당원들의 모범적 선봉적 역할을 더욱 제고케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사업에서 제기되는 곤난과 애로를 창발적 투쟁으로 타개 극복하며 기관내에서 버러지는 온갖 불순한 경향들과 독자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상업 부문의 간부 대렬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주의를 돌릴 것이며 이 부문에 책임성이 강하고 원칙성이 있는 간부들을 대담하게 파견함으로써 이 부문내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며 적극 투쟁할 수 있는 견고한 당 핵심 진지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상업 간부들을 계통적으로 양성하며 특히 이 부문에서 상업 기술과 부기 회계 통계 및 결산 등에 대한 실무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상업 일'군들을 상업에 능숙한 전문가들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상업 일'군들 속에서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계급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모든 사업을 당 정책의 요구에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며 그들이 당 정책의 집행자이며 구현자이라는 당적 책임성과 영예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상업 일'군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당의 상업 정책을 선전 해석하며 계급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상업 일'군들에게 사회주의적 상업 도덕에 대한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생활에서 소박하고 사업에서 근면하며 항상 혁명적 군중 관점에 서서 인민에게 충직하게 복무하도록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 단체들은 전체 상업 일'군들을 국가 및 사회 재산에 대한 애호 및 불가침의 정신으로 교양 훈련하며 국가 및 조합 사업을 자기 일과 같이 실속있게 하며 상품을 알뜰하게 다르며 그의 포장과 보관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제고하여 하나의 파 오손, 부패, 변질 사고도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상업 부문내에서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근거하여 경제 절약과 광범한 예비의 동원을 위한 애국적 경쟁 운동을 더욱 힘차게 발양시켜야 할 것이며 이 부문내의 근로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며 전체 인민들 속에서 상업을 지지 방조하며 상업 일'군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미풍을 적극 배양하며 상업에 대한 사회적 감독 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류통 부문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한 당의 정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적 강화를 위한 몇가지 문제

한 대 영

오늘 우리 나라의 생산 협동 조합은 수공업자, 자유 직업자, 중소 상공업자 기타 근로자 등 4만 여 명의 각계 각층의 성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종 업무활동을 통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건재 및 기계 부속품 가공 생산을 비롯한 소농기구, 가정생활에 이르는 세분된 각종 공업 제품과 식료품 등 1 300 여 종의 생활 필수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조합의 조직 목적과 성격상으로 보면 수공업자, 자유 직업자, 중 소 기업가, 상인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주의 경리로 개조되는 과도기에 있는 각종 형태의 생산 협동 조합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복무함을 목적으로 한 영예 군인, 후방 가족, 애국 렬사 유가족, 도시 여유 로력자들로써 조직된 협동 조합들이 있다.

이렇듯 오늘 우리 나라 생산 협동 조합들은 그의 조직 구성에서나 관리 운영 및 생산 활동면에서 많은 변동들을 가져 오고 있다.

* *

지난 기간 생산 협동 조합들은 당과 정부의 정확한 령도에 고무되면서 자기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조합 앞에 부과되였던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153%로 초과 수행하였으며 조합들의 경제 토대도 현저히 개선되였다.

오늘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과업 실천에서 국가 경공업과 더불어 생산 협동 조합들의 정치 경제적 임무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생산 협동 조합 앞에 부과된 1957년도 인민 경제 과제의 규모는 1956년도 실적에 비하여 167%로 장성되고 있으며 1957년도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에서 생산 협동 조합이 차지한 비중은 10.05%이며 특히 경공업 부문 생산에서 그가 차지한 비중은 21.06%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소생산 경리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데 대한 임무도 주로 생산 협동 조합을 통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생산 협동 조합 앞에 나서고 있는 이러한 정치 경제적 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생산 협동 조합 각급 련맹 기관들과 그의 지도 일'군들 속에서 당의 결정을 정확히 관철시키며 그 방향에 엄격히 립각하여 생산 협동 조합을 부단히 확대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 생산 협동 조합이 걸어 온 10년 간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다.

이 기간은 실로 우리 나라에 조성된 날카로운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조합 내외의 온갖 불순 분자들과 불건전한 사상적 요소들을 반대하며 아직 협동 경리에 대한 숙련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당시 조건에서 많은 곤난과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특히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한 3년 여의 가혹한 전쟁에 의하여 생산 협동 조합 부문에서도 역시 심대한 파괴와 손실을 당하였었다.

그러나 전후 많은 생산 협동 조합들은 자재와 자금을 국가에서 보장받으며 막대한 국가적 납부를 감면받는 등 당과 정부의 끊임 없는 지도와 방조가 있으므로 하여 속한 시일내에 전쟁 피해를 회복하고 오늘과 같이 그의 기본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였다.

그러나 아직 생산 협동 조합들의 조직 건설 부면에서와 그의 관리 운영 사업에는 적지 않은 기본적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어 조합의 보다 공고한 조직적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이 제시한 정치 경제적 제 임무를 원만히 실행함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 당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 협동 조합의 발전 강화는 어떠한 주관적 욕망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객관적 제 조건들을 옳게 결합시킨 토대 우에서 엄격한 자원성에 기초하여 낮은 형태로부터 높은 형태로, 적은 규모로부터 큰 규모에로 점차적 발전의 원칙을 반드시 확고하게 견지하는 조건에서 만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 건설 분야에서 이 기본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지 못하였었다.

그리하여 수공업자를 비롯한 도시의 소생산 경리자들로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이나 상인들로서 조직된 생산 판매 협동 조합이나 영예 군인, 후방 가족들로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이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지도하여 왔다.
즉 조합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서나 사업상 필요한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천편 일률적인 방법을 도입하였고 특히 성격과 목적이 각이한 여러 부문의 조합에 대하여 유일적인 기준 규약 하나로서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조합들의 공동 축적을 조성하며 수입 분배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조합들의 특성들과 구체적 실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률을 설정, 집행케 함으로써 조합들의 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조합 대렬의 확대 강화에까지 적지 않은 저해를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적 공고화를 위하여서는 우선 협동 조합들의 특성에 적응하게 그의 형태를 정리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부문별로 적응하게 기준 규약을 개정하며 조합들이 각이한 정황에서 능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수입 분배 규정들을 개정하며 동시에 그들의 협동 단체로서의 특성에 적응한 창발적 사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들을 검토 정비하며 련맹 기관들의 지도 사업을 검토하여 부족점들을 제거하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생산 협동 조합들의 형태 규정과 그에 따르는 수입 분배 및 관리 운영상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되여 있는 가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 ✻

오늘 생산 협동 조합 형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여 있다. 즉 출자 배당을 실시하는 가장 저급한 형태와 출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조합 형태 및 공유화 형태의 협동 조합으로 구분되여 있다.

이리하여 1956년 말 현재 생산 협동 조합 중 출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형태의 조합은 74.3%이고 공유화 형태의 조합이 25%, 출자 배당을 실시하는 가장 저급한 형태의 조합은 3개 밖에 되지 않는다.

출자 배당을 실시하는 형태의 조합에서의 특성은 조합에 가입한 성원들이 출자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그냥 인정하면서 출자금에 대한 결산 리익금의 5% 이내에서와 결산 당시에 납입된 출자 금액의 년 10% 이내에서 그의 리익 분배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다. 이 밖의 일체 업무 활동과 관리 운영상에 있어서는 생산 협동 조합의 다른 형태의 조합들과 같이 유일적인 기준 규약과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생산 협동 조합의 가장 낮은 형태로서의 이러한 조합은 아직 집단 생활의 경험이 없는

도시의 개인 경리자들에게 첫날부터 경제 관리 운영과 개인 생산 활동 당시의 수입 정도를 고려하는 면에서나 집체적 로동 생활면에서 그들의 정도에 넘치는 규률과 통제를 가하게 됨으로써 생산 수단과 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등 대상들의 수준에 적응한 것으로 되여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 협동 조합에 보다 광범한 계층들의 적극적 참가를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망라된 조합원들을 더욱 고착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다음으로 출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형태의 조합과 공유화 형태의 조합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형태가 서로 구분되여 있는 것으로 되고 있으나 본질상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즉 출자 배당을 진행하지 않는 형태에 대하여 보면 조합의 생산 수단 관계는 그 일부가 아직 사'적 소유로 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출자 배당을 진행하지 않으며 다만 공유화 조합으로 취급 못되는 리유는 조합에 출자되고 있는 출자금 정도에까지 공동 축적이 조성 못되고 류동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공유화 형태의 조합에 있어서는 그 조합의 출자된 그 출자액을 초과하며 조합 자체 류동 자금이 1회전 이상 보유되였을 경우에는 조합의 생산 수단의 일부가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공유화 형태로 규정하도록 되여 있다.

이렇게 조합의 형태 규정을 단지 공동 폰드의 축적 및 류동 자금의 보유 정도로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 협동 조합의 본질로 보아 조합 형태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와 그와 관련된 리익 분배에 있어서 출자에 의한 분배를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와 로력의 결과에 대한 보수 문제가 그 기본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산 협동 조합의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 기본 원칙이 신중히 고려 되지 않았으며 일부 위반되는 현상도 있다.

이상과 같이 로동 생산 능률이 낮을 수 있는 낮은 형태의 조합일수록 축적 비률을 높게 하며 출자에 의한 분배제를 무원칙하게 배제하며 생산 수단에 대한 공유화의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존 형태로서는 조합 대렬을 보다 확대하며 소생산 경리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 수단과 자금을 적극 동원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게 하며 조합원들을 조합 생활에 고착되도록 효과적인 물질적 자극을 줄 수 없게 한다.

또한 현존 공유화의 높은 조합 형태에서는 출자금과 예금에 대한 처리 대책을 똑똑히 하지 못하였다.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54년 9월 이전에 있어서 생산 협동 조합에 출자한 다구 출자자 즉 30구(1구는 3 000원) 이상 분에 해당되는 출자금은 조합 예금의 명목으로 이에 대한 아무런 보수도 없이 무리자로써 조합에 임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장차 처리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출자금과 예금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에 만 점차적으로 본인들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여 있다. 때문에 이것은 결국 출자를 많이한 조합원들과 조합에 예금을 많이 두고 있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하였다.

또한 협동 조합들에서의 각종 적립금 제도에 있어서도 역시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각종 적립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수공업자 및 중 소 상공업자들로써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이나 영예 군인, 후방 가족, 애국 렬사 유가족들로써 조직된 협동 조합이나 도시의 여유 로력자들로 조직된 협동 조합이거나를 막론하고 조합 조직의 목적과 그의 성격 및 조합들의 각이한 경제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 적립 한도

를 규정하여 일률적인 비률로써 리익금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동 축적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도 8%의 중앙 적립금과 8%의 교육 문화 기금을 각각 적립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할 것은 경제 형편이 자립적 상태에 있지 못하는 조합에 대하여서는 리익금의 45%를 공동 축적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 협동 조합들의 부단한 발전을 위하여서와 동시에 그의 높은 형태에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일정한 자금적 축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생산 협동 단체로서의 응당한 의무적 납부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이한 구성과 목적을 갖고 있으며 경제 조건이 서로 동일한 형편에 있지 못한 이들에게 천편 일률적으로 기계적인 제도와 통제 그 자체는 조합들의 계획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서는 생산 협동 조합들의 능동성 있는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면치 못하게하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영예 군인, 후방 가족, 애국 렬사 유가족들로서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 도시 여유 로력자들로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들은 자체들의 조직 성격상으로 보아 그리 많은 공동 축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들에도 일률적으로 다른 조합들과 동일한 비률의 공동 축적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원가와 일부 가격까지 부당하게 높이는 현상까지 발로시키고 있다.

또한 막대한 국가 자금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생산 협동 조합에까지 중앙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납부케 함으로써 그들의 경제 활동에 고통을 주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제 결함들로 인하여 결국 생산 협동 조합들과 도시의 소 생산 경리자들 속에 생산 협동 조합의 우월성을 더욱 철저히 증시하지 못하게 되였으며 이것은 곧 생산 협동 조합 발전에 일정한 저해로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산 협동 조합 집단의 리익과 생산 협동 조합원들의 리해를 결합시켜 그 형태를 옳게 규정하며 각종 규정들을 검토 시정하여 생산 협동 조합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미 당 중앙 위원회가 지시한 방향에 근거하여 생산 협동 조합들의 형태를 옳게 규정하고 정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생산 협동 조합의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수공업자, 자유 직업자, 중 소 상공업자 등 도시의 소생산 경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들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그의 제1 형태로서는 비교적 소규모적 경영을 하는 도시의 소생산 경리자들로서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로의 인입을 준비하는 극히 초보적 형태로 되는 생산 협동반 조직이다.

이것은 특별한 시설과 설비 없이 생산 가공 경영을 진행하거나 이동하여 다니면서 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수공업자, 가내 부업자, 자유 로동자 기타 생산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로써 업종별 또는 지역별에 따라 비교적 적은 인원을 한개의 단위로 하여 조직할 것인 바 여기에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구와 기본 자료 및 자금을 협동화함이 없이 각자의 소유와 개별 경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개의 조직을 단위로 하여 참가 성원들 호상간에 있어서 호조적 관계를 취함으로써 점차 사회주의적 경리에로의 발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자의 활동은 완전히 개인 경리의 운영 원칙에 기초하면서 실정에 적응하게 극히 저률의 공동 기금을 적립하도록 할 것이다.

공동 기금은 성원들중 곤난한 자의 재정적 방조를 비롯하여 집단적인 문화 교양비 등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며 축적액이 소요 융자액을 초과하고 여유금이 조성되였을 경우에는 그를 각자의 축적한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거나 또는 공동적으로 필요한 가공 설비 등을 구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협동 경리에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축성케 할 것이다.

또한 이 형태의 생산 협동반에서의 작업은

각자 개인별로 되는 분산적 작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명의 성원들이 호상 협업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러한 경우의 업무 계산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자의 경영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은 각자가 구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로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금을 모아 공동적으로 구득하는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자재의 일부는 생산 협동 조합들의 여유 자재 및 국가 기업소의 폐설물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서는 자체 판매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동적으로 판매하거나 생산 협동 조합 직매망을 통한 위탁 판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들의 책임하에서 동일 업종 또는 류사한 업종의 생산 협동 조합들에게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방조를 주도록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생산 협동반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생산 활동에 대하여 실지적으로 보다 효과있는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 협동 조합 제1 형태는 생산 협동 조합 성원으로 생산 협동 조합 기본 형태에 속하면서도 지금 규정되고 있는 형태보다 그의 활동 및 관리 운영상에서 일정한 능동성을 보장케 함으로써 그의 발전을 용이케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 협동 조합 제2 형태에는 생산 또는 편의업, 운반업 등 기타 생산을 경영하는 개인 수공업자, 자유 직업자 및 중 소 상공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생산 수단과 자금의 출자를 토대로 하여 조직하는 반(半)사회주의적 형태로써 각자의 생산 수단과 자금을 개인적 소유 그대로 유지케 하는 원칙에서 조합에 통합하고 집체적 공동 경리를 실시하며 조합내 공동 축적이 증대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희망을 고려하여 출자한 몫을 일부분씩 조합이 매상하면서 사'적 소유에 속하는 생산 수단을 점차적으로 협동적 소유로 개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형태는 현존 생산 협동 조합 체계에서 가장 초보적 형태로 되고 있는 즉 출자 배당을 실시하는 조합 형태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존 형태 규정에서의 부족점은 조합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점차적 협동화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출자에 대한 분배 비률 실정에 있어서도 출자한 조합원들의 리해 관계에 적합하게 되여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여야만 이 형태의 특성을 발휘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형태에서는 생산 수단이 완전한 사'적 소유로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협동적 소유와 사'적 소유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으며 조합원이 출자한 몫은 조합원의 개별적 소유일 것이며 조합에 매각한 부분은 응당 조합의 공동 소유로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에는 출자하였던 현물을 반환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요구에 따라 화폐로 환산하여 반환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출자하였던 생산 수단의 가치 일부가 이미 공동 소유로 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자 몫은 응당 출자 평가액에 의한 화폐로써 반환되여야 할 것이다.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생산 수단의 매상액은 평가액으로부터 삭감되여야 할 것이며 그 대금은 일시에 전부 그 조합원에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조합 예금의 방도로 임치하고 조합 실정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여 그를 지불하여 주면서 조합원에게 지불되지 않고 있는 예금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리자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조합원들의 예금을 무리자로써 조합에 임치하고 있는 그릇된 현상들을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형태의 조합에서의 생산은 원칙적으로 조합내에 이루어진 일정한 작업 장소에서 수행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의 종류와 생

산 시설의 조건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인 바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엄격한 공동 경리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소득 중에서 국가 의무 납부금을 제한 후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출자에 의한 분배도 중요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출자에 대한 분배 비률이 매개 조합들의 특성에 따라 능동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공동 축적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 바 그것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생산 수단을 일정한 기간내에 점차적으로 매상하여 그를 공유화하며 조합의 확대 재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보장 및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 축적의 비률 제정은 지금과 같이 전체 조합들에 일률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매개 조합들의 실제적 조건과 구체적 실정에 적합한 비률로써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줌으로써 조합들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당면 수입을 보장하며 그들을 조합 생활에 적극 고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조합의 경제 활동은 국가 인민 경제 계획화에 복종되여야 하며 생산은 인민 경제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여야 하며 원료의 구입과 제품 판매는 조합적으로 일정한 업무 체계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할 것이다.

이 형태의 조합은 응당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의 성원으로 가입됨으로써 법인 단체로서의 기능과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 협동 조합 제2 형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의 소생산 경리자들을 망라하며 그들을 점차적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단계의 조합 형태인 것 만큼 조합 조직 발전에 필요한 기준 규약 및 사업 규정 등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를 돌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 형태는 생산 협동 조합 체계에서 가장 발전된 높은 형태로서 조합의 생산 수단을 비롯한 일체 재산이 조합의 공동적 소유로 된 완전한 사회주의 경리 형태인 것이다.

여기에는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에 기초한 개인의 몫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 새로 가입하는 자는 그가 소유한 생산 수단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들여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리자를 지불하는 조건에서 조합 또는 은행에 예금의 방법으로 입치하는 것으로 처리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이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예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형태의 생산 협동 조합은 생산 협동 조합원들의 의식 정도의 개변에 따르는 자원성에 기초하여 출자한 생산 수단을 해당 생산 협동 조합이 계획적으로 점차적 방법에 의하여 전부 매상할 뿐만 아니라 현존 출자액까지 완전히 상환하고도 공동 기금이 그 생산 협동 조합의 경제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 및 류동 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조합원에 대한 분배에서는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원칙 만이 적용될 것이며 역시 리익금 중 그의 일부는 반드시 공동 축적으로 적립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축적된 공동 폰드는 생산 설비의 갱신 및 확장에 투자하여 생산의 점차적 기계화를 준비하며 따라서 조합원들을 위한 주택 및 문화 후생 시설에 투자를 점차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생산 협동 조합들의 특성에 적응하게 그의 형태를 정리하며 조합에서 축적의 장성 및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 문제 등 조합의 활동을 현실에 적응하게 보다 개선하며 그의 능동적인 활동을 적극 보장하

기 위한 제 조건들과 대책들을 강구 집행함으로써 생산 협동 조합들이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실제적으로 유감 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인들로써 조직된 생산 판매 협동 조합들에 대하여 형태를 규정하는 문제이다.

생산 판매 협동 조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서 조직 발전시킬 것인 바 그의 제1 형태는 생산 판매 협동반 조직이다.

이것은 점포들이 비교적 분산되여 있고 또한 적은 규모의 상업을 경영하는 가두와 농촌의 소상인(음식점 포함)들까지 일시에 공동 경리를 원칙으로 하는 생산 판매 협동 조합으로 다 조직하기는 곤난한 실정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호조적 관계를 취하는 협동 경리의 가장 저급한 경리 형태로서 이와 같은 생산 판매 협동반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 형태에 망라된 성원들은 각자 개인 소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별적 경영을 원칙으로 하나 그들의 희망과 실정에 따라서는 약간명의 성원이 호상 협동하여 경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경영 활동에서 상업 질서를 옳게 준수하도록 호상 방조하며 정확한 장부 기장에 기초하여 공정한 국가 의무 납부를 리행하며 장차 사회주의 길로 인도하는 조직체로서 활동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형태에서는 1개반의 구성을 20명 내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상무 일'군이 아닌 책임자를 그들 성원중에서 선출케 하여 망라된 성원들에 대한 문화 교양 사업과 그들이 상업 활동에서 국가법 질서를 옳게 준수하도록 방조하며 상업 활동에서 제기되는 필요한 문제들을 반원 총회에서 토의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고 각자의 소득은 개인 상업 경영에서 취하는 방법에 의하여 획득케 할 것인 바 다만 곤난한 자를 호상 방조하며 문화 교양에 필요한 약간 비률의 공동 축적만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형태의 성원들은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의 성원으로 될 것이며 련맹 기관들은 자기의 직접 책임 밑에 이들에 대한 각 방면의 방조와 계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생산 협동 조합 직매점 또는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 그 지도 및 방조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개의 직매점 혹은 생산 판매협동 조합에 한개 또는 수개의 생산 판매 협동반을 맡겨 그들로 하여금 업무 관리 활동을 일상적으로 방조하며 경험을 교환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2 형태의 생산 판매 협동 조합은 기본적으로 도시 시장 구역과 또한 비교적 점포들이 집중된 지역의 상인들로써 조직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점 및 각종 상품과 보유 자금을 출자하는 원칙에서 협동 경리 체계에 통합하여 공동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생산 판매 조직은 분산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분배에서는 각자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출자의 몫에 의한 분배제를 실시하는 반(半)사회주의적 형태의 조합으로 조직되여야 할 것이다.

이 형태의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제한 없이 자체 자금을 동원하여 조합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 다면 지금 조직 운영되고 있는 생산 판매 협동 조합들에서와 같이 각자가 약간의 출자금을 균일적으로 내고 실지 많은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 개별적 상 행위에 리용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을 제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보유 자금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상업 활동에 리용하도록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리익 분배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와 함께 출자금에 의한 분배를 중요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극히 중요하다.

조직된 생산 판매 협동 조합은 농산물 및 림야 산물과 해산물 등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산물들을 수매하여 다종 다양한 식료품

을 생산 가공 판매하도록 하며 한편 개인 공업 및 수공업자들로부터의 상품 공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국가 및 생산 협동 조합들로부터도 규정된 상품 공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형태의 조합들에서는 조합 실정에 적응하게 공동 축적을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것은 장차 상점을 건설 확장하며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며 또한 일정한 범위내에서 상업 활동의 부진에 의한 조합원들의 생활 곤난을 해결하며 부족되는 류동 자금의 해결 등에 리용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 폰드는 조합들에서 일률적인 비률로서가 아니라 각개 조합 실정에 적응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조합의 관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된 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조합원은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의 성원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생산 판매 협동 조합들이 집중되여 있는 실지 형편에 근거하여 이들 호상간의 업무 활동과 관리 운영상 련계를 강화하며 상업 활동에서 불필요한 경쟁 현상을 제거하며 국가의 법 질서를 보다 충실히 준수하며 조합 규약의 정확한 리행을 옳게 보장하기 위한 자체 통제 및 협의 기관으로서 생산 판매 협동 조합 련합 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들의 지도를 보장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으로 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방향에서 일부 도시 지역에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생산 판매 협동 조합들을 시급히 정리하여 그를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의 지도 체계에 망라시키며 그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 강화함으로써 그의 계통적인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을 순수한 되거리 상행위로부터 점차 생산적 방향에로 유도하며 판매 활동에서의 모리적 현상을 반대하며 개인 시장에서 물가를 혼란시키는 일체 요소들과 적극 투쟁함으로써 민주 상업의 질서와 도덕을 강화함에 기여케 하며 국가의 납부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류통 기관을 도와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면서 조합 성원들을 민주주의적 애국 정신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의식적인 로력자로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직된 생산 판매 협동반과 생산 판매 협동 조합은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농촌 부산물 및 자연 산물들을 광범히 수매하여 식료품 생산과 일용품 가공 판매 등으로 발전함으로써 인민 생활에 더욱 잘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은 결코 단시일 내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진행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처한 특수한 조건과 함께 국가 및 협동 상업이 아직도인민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정도에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또한 우리 나라에 소상품 생산 경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한 개인상인들도 역시 장기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로부터 개인 상인들의 부정적면을 극력 제한하면서 긍정적 면을 적극 리용하여 인민 생활에 보다 효과있는 도움을 더 많이 주도록 그들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 형편에 근거하여 협동 경리 형태에로 점차 개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예 군인, 후방 가족, 애국 렬사 유가족 도시의 여유 로력자들로써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들과 공장, 기업소 및 사무 직장의 종업원 가족들로서 조직되고 있는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 관한 문제이다.

이 조합들은 그의 조합 명칭에 관계 없이 그의 조직상 목적에 있어서나 그 구성 자체로 보아서 결코 우에서 지적한 생산 협동 조합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일반적 생산 협동 조합에 대한 유일 규약 및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그들 자신은 소생산적 개인 경리자의 처지에 있지 않으며 다만 자기들의 협동적 로력으로써 자체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조합에 대하여서는 형태 규정이 필요치 않을 것이며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이 제시하는 특수한 규정과 이들 생산 협동 조합에 적응한 별개 기준 규약에 의하여 그의 활동이 보장되여야 할 것이며 조합의 공동 축적도 실정에 적응하게 적당한 규모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최근 각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의 가족들로서된 생산 판매 협동 조합이 광범히 조직발전되고 있는 바 이들 협동 조합에서의 생산업종은 각종 자연 산물을 리용한 다종 다양한식료품 생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판매 가격 제정에 있어서는 시장 가격을 대비하여 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저렴한 생산 원가로서 더욱 값싸게 판매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예 군인, 후방 가족, 근로자들의 부양 가족들로서 조직된 각종 생산 협동 조합들은 사회주의적 개조의 대상 범주에 결코 인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들의 특성을 옳게 파악하고 그에 적응한 지도를 함으로써 그의 부단한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적 강화를 위하여서는 관리 운영에서 기본으로 되는 민주주의적 관리 원칙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문제이다.

생산 협동 조합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조합 활동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관리 원칙의 철저한 보장은 우선 생산 협동 조합 각급 련맹 기관들이 자기의 일상 사업을 기층 조합들의 자립적 활동을 강화하며 조합원들의 주인다운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그들에 항상 의거하여 진행하는 데서 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원만히 되지 못하였다.

물론 조합 관리 운영에서 민주주의의 광범한 발양은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지난 기간 중앙 련맹 위원회는 뒤떨어진 생산 협동 조합을 선진적 조합과 통합하여 그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생산을 전문화하며 기계화한다》하여 해당 일부 조합들과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원칙하게 그를 행정적 지시로써 통합 정리한 사실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협동 조합들을 무원칙하게 통합하여 그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결국 생산 원재료 해결에서와 시설 설비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지 않게 국가에 의존하는 현상을 초래케 하였으며 또한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기능들을 최대한으로 생산에 동원할 가능성을 일부 저해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생산 제품의 품종까지 축소되는 현상까지 나타내였다.

물론 조합들에서의 기술 발전에 따르는 기계화 및 생산의 전문화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나라의 제 형편과 조합들의 구체적 실정을 정확히 고려한 토대 우에서 진행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조합을 통합하는 문제는 해당 조합원들의 리해 관계가 일치된 조건하에서 만 옳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은 생산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생산 활동상에 있어서 기동성을 보장하기 곤난하며 관리 운영상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현재 생산 협동 조합들에 있어서 기술 일'군들이 수요상으로나 또는 그의 준비 정도가 매우 저급한 정도에 있으며 관리 간부들의 준비 정도가 아직 저급한 형편에 처하여 있는 것으로 해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을 일면적인 견지에서 통합하며 무원칙하게 그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은 반드시 시정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난 기간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들은 조합원들을 무원칙하게 이 조합에서 저 조합에로 옮겨 놓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더욱 안착시키지 못하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불안 상태까지 조성시켰다. 생산 협동 조합은 국가 기업소와 다르다. 그에 망라된 조합원들은 최초에 자기의 희망으로서 일정한 출자를 하고 해당 협동 조합에 가입하였으니 만큼 특별한 리유가 없는 한 조합원들을 상급의 명령으로써는 《조동》시킬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조합 총회 만이 일정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 그를 제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총회가 이러한 권리가 있다 하여 그를 함부로 람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 조합원들에게 존재하는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비판하여 그를 시정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인내성있게 방조를 주어 그들을 조합 사업에서 더욱 높은 열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 강조할 것은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 관리 간부를 고착시키며 이를 해당 생산 협동 조합원들 속에서 계통적으로 선발 등용할 데 대한 문제이다. 즉 매개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 핵심 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그들 속에서 관리 간부들이 계통적으로 선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사업은 그렇게 조직못되고 다수 경우에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들의 다른 부문에서 소환하여 배치하는 현상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관리 위원장과 조합원들 간의 사업상 련계를 보다 강화하지 못하였으며 적지 않은 조합 관리 위원장들로 하여금 조합 사업을 보다 시급히 개선 강화하기 위한 책임성을 발양하지 못하게 하였다.

적지 않은 조합 관리 위원장들은 생산 및 경제 형편이 매우 불건전한 조합에 파견되였을 때 그들은 그 조합에 조성되고 있는 제반 락후한 상태가 자기 책임하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데로부터 그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높은 책임성과 창발적 열성을 발휘할 대신에 다수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었다.

최근 평양 시내 94개 조합을 료해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관리 위원장들은 그 조합 자체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전부 상급 련맹에 의하여 타부문에서 소환 배치된 것이였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일'군들은 조합원들 속에서 원만히 자기 사업을 조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협동 조합 조직 사업에 존재하는 일련의 결함들은 주로 생산 협동 조합 련맹 기관들과 그의 일부 지도 인'군들이 당이 제시한 협동화 정책에 대한 심중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또한 우리 나라 경제의 급진적인 발전에 따르는 변동된 현실과 특히 그와 관련하여 최근 년간에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 구성 및 관리 운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변화에 대한 민감한 감촉이 부족하였으며 그에 상응하여 자기의 지도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지 못한 데 기인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와 같은 사실들은 또한 련맹 기관내 일부 지도 일'군들의 사업 작풍상 문제에도 관련되고 있는 바 이는 옳은 군중 관점이 결여된 데서 표현되고 있다.

생산 협동 조합 조직 사업 분야에 존재하는 일련의 결함들에 대하여 이미 열성적인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견과 창발적 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 일'군들의 주관적 고집과 관료주의적 억압으로 말미암아 장기간 묵살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련맹 기관내 지도 일'군들은 자기들의 지도 사업과 작풍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허심한 태도로써 그를 비판 폭로하고 시정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이 없이는 당이 생산 협동 조합 앞에 제시한 정치 경제적 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 협동 조합 각급 련맹 기관들과 그의 지도 일'군들로부터 매개 기층 조합들과 조합원에 이르기까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3개년 계획 실행을 전반적으로 총화하고 협동 조합 사업에 존재하는 제반 결함들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한 지도 대책을 강구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생산 협동 조합 앞에 부과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제 임무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생산 협동 조합들에 대한 지방 당 단체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극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생산 협동 조합에 대한 지도를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만 관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문에 대한 당의 정책을 정확히 침투 실현시키며 조합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며 특히 조합내 핵심 열성자 육성 사업을 계획적으로 지도하며 조합원들 속에서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 교양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

이상에서 오늘 우리 나라 생산 협동 조합들의 조직 사업에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기본 결함들과 조합들의 형태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하였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생산 협동 조합들 앞에는 거대한 정치 경제적 임무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은 생산 협동 조합 앞에 제시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제 임무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일체 조합 활동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용감하게 극복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생산 협동 조합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조합 활동에서 국가 기업소의 규정들과 제도 및 관리 방법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도입하거나 형식주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현상들과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이한 형태의 조합들과 각이한 부문의 조합들에 대하여 동일한 규약과 제도 및 규정 지시로서 그들의 창발적 활동을 억제하거나 저해하고 있는 관료주의적 현상들을 결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직 발동시키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지도 일'군들은 아직도 우리 나라가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제 특성, 특히 우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이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객관적 특수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 도시 소생산 경리자들의 경제적 토대와 그 규모, 의식 정도 등 제반 구체적 조건들을 신중히 연구함으로써 항상 협동 조합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부단히 확대 강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각급 련맹 기관들과 그 지도 일'군들은 기층 조합들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강화하며 자체의 지도 수준 제고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지도 사업에서 일체 관료주의 및 형식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시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도 일'군들 자신으로부터 자체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당 결정을 항상 자체의 실지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연구 발전시키며 옳은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현실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일체 현상들을 근절할 것이다.

특히 련맹 기관들은 조합원들의 사상 의식 수준 개변 정도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비하여 심히 뒤떨어지고 있는 현 실정을 심각히 인식 파악하고 조합원들 속에서 계급적 교양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지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 협동 조합 각급 련맹 기관들과 지도 일'군들은 항상 당의 결정 집행에 충실하며 매개 조합원들 속에서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일체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로부터 출발되는 개인 리기주의적 탐오 랑비 현상들을 근절하도록 하며 국가 및 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전체 생산 협동 조합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의식적인 건설자로서의 자체의 긍지를 더욱 높이 간직하고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절약과 증산을 위한 투쟁에 총동원되여야 할 것이다.

사상 투쟁에서의 문학의 역할

서 만 일

오늘처럼 사상 전선에서 첨예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때도 드물 것이다. 최근 그처럼 집요하고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대한 치렬한 론쟁 역시 이것을 증명하여 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관한 론쟁은 본질적 의미에서 실로 각이 각양하다.

각국의 수 많은 견실한 작가들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선진적인 훌륭한 창작 방법으로서 그것의 풍부한 특질들을 더욱 다양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리론적인 문제들을 해명하면서 그 창작 방법을 비속 사회학적으로 오인하는 데서 파생된 독단적인 리론과 도식적인 실천을 규탄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나라 부분적 작가들 가운데서는 수정주의적 견해와 허무주의적인 태도로써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꾀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대한 문제는 광범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며 많은 심장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중심한 문학상 론쟁은 이미 전문적인 미학적 령역을 훨씬 벗어나고 있는 실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론쟁 역시 모든 사상적 문제와 매한가지로 그것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이 두 사상 체계간의 모순과 갈등과 예리한 투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 방법은 현실을 력사적이며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혁명적 발전 속에 전망한다. 그리고 현실 생활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진실성과 력사성과 구체성은 반드시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교양한다는 목적에 복무하며 또한 미래가 거기에 속하는 태내에서 싹트고 있는 그 새 것에 립각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대한 론쟁은 결코 문학상의 론쟁 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 론쟁인 것이며 따라서 일정한 정치적 성격을 띠우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여 진다. 결국 그것은 문학이 누구한 데 복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즉 문학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근로 인민에게 속하는가, 아니면 낡은 자본주의에 속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련결되여 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대한 부정은 첫째로 지금까지 우리들이 달성하여 온 거대한 예술적 업적을 란폭하게 외곡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현실 생활의 정확한 거울인 우리의 예술 작품을 부인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인정치 않으려는 무정부주의적 태도의 발로를 의미한다.

공산주의의 원쑤들은 우리 문학을 중상하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말살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랄한 시도가 미학

적인 론쟁의 옷을 성급히 갈아 입고 때 아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과히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계급의 원쑤들은 독소를 품은 중상과 비난으로써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사회주의 진영내에서 일부 사상적으로 견고치 못한 벗들이 동요 속에 빠져 들고 있는 것은 비판과 자기 비판으로 극복되여야 할 문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레닌적 원칙과 더불어 그의 교양적 선전 선동성을 천명하며 일부 그릇된 리론적 착오로 인하여 수정주의적 미궁에 헤메이고 있는 견해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늘의 조선 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창작상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1)

계급의 원쑤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가? 두말할 여지 없이 그들은 우리 문학의 변증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 예술 작품들이 경향적이며 그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사상적 정서적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다.

우리는 물론 그들의 견해와는 추호도 동감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그들의 견해들이 우리의 사고와 반대되기 때문 만은 아니다. 실로 그들의 견해라는 것이 문학 예술의 객관적 본질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문학의 유기적이며 불가분리한 특수성은 오로지 정서적이며 미학적인 흥취만을 자아내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광범한 의미에서 사회 교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문학에 교육적 의의를 부여한 것은 결코 우리들이 시초가 아니다. 문학은 그가 존재한 첫날부터 그러했다. 우리들은 문학의 그 훌륭한 현실적 기능을 발전시켰을 뿐이며 그의 의식적인 계승자로 나타났을 뿐이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세계관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의 사실주의 작가들과 구별된다. 지난날의 사실주의자들은 사회 발전의 취진력을 과학적으로 보지 못하였으며 또한 력사에 있어서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을 전적으로 리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진보적 작가들은 인민 대중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으며, 현실을 그 혁명적 발전 속에서 개괄하게 되였다. 이것이 다름아닌 창작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요구하는 기능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창작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가장 새롭고도 높은 예술적 단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만약 계급의 원쑤들이 우리 문학의 교양성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교양적 의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소박한 해석일 것이다. 그들은 결코 문학 전반의 계몽적, 교육적 역할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소위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간판 밑에 비정치성을 고취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처럼 악착하게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인민 대중을 혁명적 정신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뿐이다. 그들이 시도하는 공격의 주요 방향도 여기 있으며 주요 작전의 비결도 여기에 있다.

우리 제도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는 원쑤들이 만약 우리 문학이 근로 인민들을 혁명적 의식으로 고무하는 그 교양성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처럼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을 공격할 것인가. 그들은 로동 계급이 우리 작품들에서 정서적 감흥을 많이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미학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미학적인 문제》라는 명목 아래 원쑤들이 점점 더 자기들의 기만적 본성을 드러내 놓는 현상을 최근에 우리는 더욱 주목하게 된다.

오늘에 와서 어떤 독자이건 그가 한가한 시간을 메꾸기 위하여 심심푸리로 책을 손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자들은 매 작품 속에 담겨진 복잡한 슈제뜨의 발전이나 이러저러한 인간 성격을 거쳐서 심오한 사상적 흔적을 찾아 내고 있다. 문학은 자기

존재가 인정 받은 첫날부터 언제나 자기 시대의 일정한 사상을 대변하여 왔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묘사된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을 선동하여 왔으며 독자들을 작자의 립장에로 끌어 왔으며 동감에로 호소했으며 따라서 독자들을 계몽하였으며 교양주었던 것이다.

단테의 《신곡》이나 안델쎈의 동화이나 발작크의 장편 소설이나 마크 뜨웬의 단편들이나 혹은 우리 조선 문학의 탁월한 고전인 박 연암의 풍자 작품이나 또는 한 설야, 리 기영의 장편들은 모두가 다 그 쟌르, 주제, 쓰찔은 물론 작가들의 작가적 경험의 축적이나 재능들이 각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갖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작품을 관철하고 있는 인도주의 사상이며 진보를 위한 투지이며 반동과 압축에 대한 무자비한 작가의 태도이다.

이러한 사실주의 문학의 심오한 사상성을 모르거나 보지 않으려는 사람 만이 작품은 어떠한 막연한 령감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씌여진다고 고집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나 작가의 현실에 대한 태도, 생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울려나온다는 일반적 진리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작품이 작가의 체험과 관찰과 연구에 의한 현실 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이 예술적 일반화를 가지고 창작된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다만 환상의 산물인듯이 사태를 외곡하려 한다.

우리와 미학적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 축들은 사회주의 시대의 우수한 문학 작품들을 비방하면서 오늘의 우리 문학들에는 지난 세기의 문학에 비하여 형상들이 창백하며 사건의 전개가 권태스러우며 예술적 향기가 덜 풍긴다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마치 우리 시대의 진보적인 작품들이 동시대의 생활이나 지향 또는 우리가 방금 처하고 있는 현실 생활을 정치적으로 시사성 있게 묘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여기서 지난 세기의 중요한 예술적 결실들도 오늘과 같이 역시 창작되던 시대의 반영이며 그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는 사상이 강조되였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 지금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는 지난날의 사건이나 생각이나 생활도 당시 동시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생신한 시사적인 것이였다. 때문에 현실 생활이 사실주의적으로 반영되였거나 시대의 목소리가 충만되였거나 시사성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작품의 예술성이 희박하여 질 리유는 나서지 않는다.

맑스주의자들인 우리는 매개 예술 작품을 변증법적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매개 작품이 그 시기 우수한 많은 작품가운데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며 매개 작품이 해당 사회 문학 발전에서 어떠한 역할을 놀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작품이 얼마나 그 시대의 력사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얼마나 생활의 진실을 형상화하였으며 얼마나 시대 정신을 옳게 반영하였는가 하는 데 평가의 척도를 둔다. 달리는 예술 작품의 평가 규준이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것은 비과학적이며 반력사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때문에 작품은 그것이 과거이거나 현재이거나 또는 어떠한 작품이거나를 불문하고 다만 《미학》적 취미 뿐으로써만 평가될 수는 없다.

시대와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인 력사적 환경을 벗어나서 작품은 호흡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 방법이 현실의 진실하고 력사적이며 구체적인 묘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합법칙적이며 과학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이로부터 우리 작가들이 독자들 앞에서 자기의 세계관을 활작 피력하려는 지향도 역시 자연스러우며 합법칙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우리들이 사회 발전 과정을 인식하는 그대로 현실을 혁명적 발전 속에 전망하려는 그 립장에로 독자를 끌어 오며 진보와 혁명의 정신으로 독자들을 교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원쑤들이 좋아하건 아니하건 간에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은 자기의 고매한 사상성을 가지고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 의식으로 교양하는 것을 가장 신성한 사명으로 간주한다.

다음 우리의 원쑤들은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이 정치적 선전 선동에 복무하는 것을 몹씨 싫어 한다.

그래 도대체 문학이란 것이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정한 계급에 복무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사상을 선전하지 않은 때가 있었던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탄생하여 창작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몰랐던 쌀띠꼬브 쉐드린도 말하기를— 《예술과 선전은 동의어이다》 라고 하였다.

문학은 다름아닌 형상적인 사색이며 달리는 형상 속에 담겨진 철학인 것이다. 작품이 단순한 미적 감정의 총화로는 될 수 없다. 작품에는 작자의 철학적 견해 즉 그의 세계관이 예술적으로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사회의 일정한 력사적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작가의 세계관은 일정한 사회적 환경과 그 시대의 일정한 조류를 이루고 있는 철학의 영향 밑에서 형성된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창작 방법으로 하는 진보적인 우리 문학은 자본주의가 쇠퇴하며 사회주의가 생신하게 탄생하는 력사적 시기에 발생하였다. 공산주의 작가들인 우리는 두말할것 없이 자기 시대의 대변자들이며 자기 시대의 생활적 진실을 혁명적 발전 속에 전망하는 예술가이며 우리 시대에서 가장 선진적 철학인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표현자들이다. 문제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심오하게 사색하며 그 현실을 모순과 복잡성 속에서 얼마나 전망성 있게 형상화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물론 작가의 천재, 작가적 체험, 문화적 수준, 생활에 대한 지식, 작가적 로력, 정치적 및 철학적 성숙성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들이 자기 작품들 속에 맑스주의적 철학을 표현하는 것은 단지 그 사상이 우리 시대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라거나 또는 다른 부르죠아 이색적인 철학이 우리한 데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기에 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자신이 일정한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며 일정한 자기 시대를 떠나서 감각하거나 사유할 수 없는 때문이며 사회 생활을 떠나서 고립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스스로 결론이 생겨지는바 사상이야 말로 예술의 정수이라는 일반적 진리이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사상이며 누구의 견지로부터 그것을 풀며 누구를 위하여 선전 선동하는 가에 있을 뿐이다.

지금 자본주의 나라의 큰 거리 서점 진렬장을 울긋 불긋하게 장식하였거나 으슥한 뒷골목에 자리잡은 행상 책방에 범람하고 있는 소위 초계급, 초시대로써 항구적인 주제를 노렸다는 통속 소설들은 이른바 렵기적 취미와 색정적 향락으로써 일체 정치로부터 자립되였다고 웨치고 있으나 결국 그것도 인민을 혁명에서 리탈시키며 무서운 인간 증오의 철학으로 사람의 의식을 개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은 수백만 인민들을 생활의 진실로써 교양하며 보다 고상하고 훌륭한 감정으로써 감동케 하며 인류의 봄과 진보를 위한 혁명 사업에 고상한 자기 희생 정신을 발휘케 하는 위대한 무기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은 직접적으로 동시대인의 문화적 미학적 요구성에 수응하면서 생활의 교과서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행동의 강령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례는 현실 생활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영웅들이 자기의 숭고한 행동의 기초의 하나를 애국적인 사상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우리 문학에서 받고 있다는 것으로써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예술적 작품은 선전 선동의 강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만이 아니라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문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론쟁이 그처럼 첨예한 사상적 성격을 띠우고 있으며 또한 의식적인 원쑤이나 혹은 무의식적인 그들의 추종자들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을 어째서 그처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가도 스스로 밝혀 진다.

그들은 우리들이 사회주의 창작 방법을 포기하도록 《권고》하면서 결국은 우리들이 사상

전선에서 무장 해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공산주의 작가들은 그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더욱 더 맑스—레닌주의적 확고한 세계관을 자기 작품들 속에 고취하면서 계급적 의식으로 근로 대중을 교양함으로써 원쑤들의 수명을 줄게 하는 혁명적 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선전 선동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2)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는 사상 전선에서도 막대한 공훈을 세웠다. 대회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서 맑스주의 사상의 창조적 날개를 보다 더 활짝 펼수 있게 하는데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대회의 결정 정신을 저마다 자기 실생활에 적응시키면서 사람들은 보다 더 자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더 자기 결함들을 대담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으며 혁명 사업을 위하여 보다 더 아낌 없이 자기의 정열과 재능과 로력을 바치는 광활한 투쟁의 길로 자신 있게 나서게 되였다.

쏘련 공산당의 이러한 결정은 시대 정신에 민감한 세계 진보적 작가들에게 커다란 리정표를 지어 주었으며 커다란 창조적 충격을 주었다. 많은 형제적 국가들에서 작가들은 자기 대렬을 소집했다. 즉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루마니야, 체코슬로바키야, 웽그리야, 파란, 중국, 월남 등에서 대회 혹은 광범한 협의회들을 소집했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진행된 회의들에서 작가들은 한결같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얻은 성과를 확대하고 잔존한 약점들을 급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숙임 없이 진지하게 그리고 어디까지나 준렬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사업들을 검토하였다. 형제적 나라들의 작가들이 론쟁했으며 주목을 이끌은 중심 문제도 역시 창작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전위적 문학 예술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작품에 반영된 개인 숭배 사상과 그 후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을 하였으며 창작 과정에 끼친 행정적 간섭과 주관적 조치의 유해성을 규탄했으며 독단주의를 없애기 위한 열렬한 론쟁을 거듭하였다. 동시에 민족 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와 종파적 경향을 배격하였으며 쏘베트 문학과 자기 나라들에서 수확된 해방후 10년간의 문학적 업적을 거부하는 꼬쓰모뽈리찌즘을 폭로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작가들의 대회나 협의회들은 진지한 토론과 학구적인 심의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거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진보적이고 혁명적이고 인류를 착취와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당 문학을 건설하는 훌륭한 창작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 저러하게 리론적 면에서나 실천적 면에서 범한 속학적 독단적 오유들을 급속히 제거할 데 대한 귀중한 결론들을 얻었다.

그러나 여러 회합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원칙적이였다는 것은 아니다.

견실치 못한 일부 작가, 평론가들은 비원칙적인 공담들을 늘어 놓았으며 거기에는 사상적 독기를 발산시키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았다.

일부 작가들은 창작의 《무제한한 자유》 혹은 《절대적》 자유를 제창하였다.

그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부분은 30년대 이후 시기의 쏘베트 문학은 개인 우상화의 후과를 입은 문학이라고 란폭한 규정을 내려서 그 빛나는 업적을 부인하려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예술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서 외곡하면서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창작 사업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리끼의 권위를 빌려 고안된 낡은 술어라고 떠들어 대기도 한다. 게다가 어떤 성급한 동지는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문학 행정화의 표본이니 만큼 일종 신화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신화여 잘 있거라》 하고 웨치는가 하면 그 대신에 20세기의 《모더니즘》을 내놓으면서 서구라파 부르죠아 예술을 극구 찬양하기도 한다. 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우리 문학의 산 생활적 모범인 긍정적 주인공들이 개인 생활의 향락을 모르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 희생 정신으로 헌신된다고 하여 인간이 아니고 그 어떤 《건설 재료》로 되고 있다고 비방도 하고 있다.

이러한 잡음이 어디서부터 울려나오는 가를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름아닌 미국식 서구라파의 바람이 머리 속에 풍겨 들은 대단치 않은 몇몇 작가들이 《수정주의》 류행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반쏘 반공》 의 도발적 깜빠니야의 흑막에서 날뛰고 있는 제국주의의 원흉 미제와 그 추종자들이 환영하고 있는 소위 《민족 공산주의》가 제각기 《홀로》 《중립》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몽상이 결국은 원쑤의 획책에 발맞추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포기하고 제멋대로 진보적인 문학을 건설하겠다는 배타적인 기도 역시 어떠한 함정에 떨어지고 말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의 량심들은 얼마전에 력사적인 심각한 시련을 받았다. 그것은 웽그리야에서 발발된 비극적인 사태였다. 뻬뙤피 구락부에서 창작 사업에서의 《무제한한 권리》며 《절대적》 자유를 부르짖던 일부 배신적인 웽그리야 작가들은 그후 사건의 발전 과정이 웅변적으로 말하여 준 것과 같이 완전히 제국주의 호전 분자들과 그 괴뢰인 호르찌 복수주의자 일파에게 《자유》를 구속 당하고 만 엄중한 사실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미사려구로 수식하며 떠들어대던 《자유》를 반혁명 분자에게 고스란이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들의 추악한 반동 사상의 확성기가 됨으로써 류혈의 참극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출세주의와 공명적 허영심에 사로잡힌 웽그리야의 일부 작가들은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당 문학을 중상하고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사상적인 쏘베트 혁명 문학을 비난하던 나머지《쏘련에서부터의 민족적 독립》을 주장한다는 구실 밑에 반혁명적 폭동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이미 우리는 창작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수한 특징들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진지한 태도로써 그 방법을 왜소하게 구사하거나 비속 사회학적으로 인식하는 독단주의와 결투를 하여 왔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못지 않게 쏘련에서는 20차 당 대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개인 숭배 사상과 그것이 문학 령역에 끼친 이러 저러한 후과에 대하여 준렬한 비판을 가해 왔다.

아직도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포괄하는 문학 가운데는 완전하게 생활의 진실을 그 복잡성과 모순 속에서 대담하게 보이면서도 생활 긍정적인 락천적 정신으로 현실을 전망성 있게 묘사하지 못한 사상—예술적으로 부족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허무주의적 작가들이 주장하듯이 이러한 부분적 결함이나 미완성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을 통털어 무기력하게 만들지도 못할 것이어니와 그 개화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도 못한다. 그것은 지금도 해마다 발표되는 자기들의 문학에서 인민이 풍부한 정신적 영양소를 찾고 있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웅변적으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기본 특징은 첫째로 그 내용이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하는 당성의 발현에 있다. 작가의 지향과 정열은 자기 작품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리상에 복무시키는 데서 당성을 재현시킨다. 그것은 인류 앞에 제기된 작가의 최대의 목적이 아닐 수 없다. 당성이란 작가의 도덕적 규범을 의미한다. 그것은 작가로 하여금 진정한 창작적 자유를 보장하여 준다. 따라서 당성이란 작가가 자기의 지향하는 목적 지향성을 확인하는 정열이며 반면에 그것은 우리의 목적에로부터 리탈되는 일체의 것을 폭로하고 부정하는 힘이다.

때문에 《자유란 필연성의 인식이다》 라고 하였으며 달리는 《의지의 자유란 사업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결정을 채택하는 재능을 말한다》 라고 처음에 엥겔스가 말하고 후에 레닌이 다시금 강조한 이 명제는 우리 시대 작가들에게 있어 아주 고전적인 교시로 된다.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둘째 특징은 작품을 관철하고 있는 고매한 인도주의 사상이다. 그러나

이 영원한 인도주의 사상은 초계급적이며 초시대적일 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력사적 환경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며 인간을 착취로부터 해방하고 계급적 원쑤를 굴복시키는 인도주의 사상인 것이다.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세째 특징은 력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선명한 전망성의 부여이다. 현실 속에서 적으나마 전망성을 발견할 때 작가는 인민들 앞에서의 자기의 주요한 사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견은 곧 사회 발전의 하나의 유력한 취진력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일부 작가들과 평론가들은 《절대적》 자유를 탐색하던 나머지 그 자유의 구속자로 간주하였던 당성을 포기하고 그 대신 자유주의라는 정말로 란폭한 자유의 구속물을 받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벗들의 착오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는 것을 믿어서 의심치 않는다.

착오 속에 휩쓸려 들어 혼미된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깨우쳐 줄 것이며 생활은 언제나 앞을 향하여 보다 높은 데로 줄다름칠 것이며 문학은 그 생활과 더불어 더욱 개화 발전될 것이다.

(3)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 크게 고무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전후 두번째의 작가 대회가 소집되였었다.

공장들과 건설장에서 그리고 농촌에서 현실을 심오하게 관찰하며 새로운 인간 성격들을 탐구하고 있던 조선 작가들은 대회의 자유로운 론쟁의 분위기 속에서 한결같이 자극되면서 전후 시기 우리 문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열렬한 토론들을 거듭하였다.

우리 조선 작가들은 문학에서의 레닌적 원칙을 위한 투쟁을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우리 문학의 빛나는 혁명적 전통인 《카프》 시기 문학에서 더욱 배우며 림화, 리 태준 등 반당적 종파 분자를 비롯한 일체 부르조아 이색 사상과 견결하게 투쟁을 계속하며 당 문학 건설을 위하여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매개 작가들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가질 것과 맑스—레닌주의 미학을 체득함으로써 오로지 근로 인민의 리익에 만 복무하는 문학을 수립하도록 모든 력량을 합하였다.

또한 우리는 이구 동성으로 우리 문학의 화원을 더욱 화려하게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준 리 기영의 장편 소설 《두만강》, 한 설야의 장편 소설 《설봉산》, 송 영의 오체르크 《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 천 세봉의 중편 《싸우는 마을 사람들》과 리 원우의 아동 작품《도끼 장군》을 비롯하여 김 순석, 정 문향, 리 용악을 비롯한 많은 시인들의 우수한 시들과《빨찌산 처녀》《백두산은 보인다》의 훌륭한 영화들과 그리고 연극 《승냥이》와 《우리를 기다리라》와 같은 작품들을 전후 시기 문학의 새로운 성과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다름아닌 조선 작가들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승리를 말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회는 결코 안온한 분위기에서 이미 걷어 들인 결실에 만 만족하지는 않았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를 생활의 진실성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작품의 일부가 그처럼 무미 건조하며 천편 일률적이며 도식주의적으로 창백한 여러가지 원인들을 무자비하게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주요 원인이 작가의 현실 생활에 대한 몰리해와 창작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기성적인 어떤 창작의 틀처럼 오인하고 현실 긍정의 일면만을 강조한 비속적인 견해들을 비판하였다. 동시에 생활을 보라색갈로 결치레하는 문학이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심오하게 현실을 변증법적으로 관찰 연구하며 생활의 진실을 심오하게 묘사하여 낼 것이 론의되였던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자기들의 작품 속에 항구한 사회적 문제성을 제기할 것과 당의 정책을 인

민 생활 속에 침투시키는 시대 정신이 반영된 시사성 있는 작품을 민활하게 창작하여야 한다는 결의도 다졌다.

그리고 작가들의 창작적 조직적 집합체인 동맹을 《창작 활동의 전당으로,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연구실로, 문학의 실험실로, 동지들에 대한 협조와 우애와 친선의 고향집으로 만들고 더욱 명랑하고 전투적인 태세로써 영예로운 당적 사명을 수행하자》는 믿음직한 행동 강령에로 모든 작가들의 정열은 집결되였었다.

이와 같이 제2차 조선 작가 대회는 또 한번 영예로운 우리 로동당이 교시하는 문예 정책의 정당성을 시위하였으며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유일한 창작 방법으로 삼은 우리 작가들의 단합된 력량을 시위하는 결과를 가져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회는 우리 나라 문학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도표를 세워 놓았다.

대회후 우리 작가들은 대회에서 그처럼 랭혹하게 비판 받은 독단주의와 도식주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저마다 현실 속에서 꾸준히 배우며 왕성하게 창작 사업을 계속하게 되였다.

우리의 대회는 일부 나라들에서 자유스러운 론쟁의 분위기에 도취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적인 명제들을 제멋대로 수정하려 들거나 또는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창작된 문학 작품들을 멸시로 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한창 자기의 쉰인 목청을 도꾸고 있는 그러한 무렵에 열렸었다. 그러나 우리를 조선 작가들은 한결같이 문학에서의 레닌적 원칙, 당 문예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 받들고 가장 훌륭한 창작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유일하게 내 세웠으며 지난날 우리들이 범한 창작상 오유들은 사회주의 사실주의 그 자체가 내포한 결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창작 방법에 대한 속학적인 해석에서부터 산생하였다는 것을 자각했던 것이다. 여기에 우리 작가 대회가 걷어 들인 성과가 있으며 여기에 우리 대렬이 그처럼 사상적으로 결합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실천적 부문인 창작 분야에서는 그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생활의 발전 법칙이 변증법적 굴곡을 거쳐서 복잡하게 발전되는 것과 같이 그 현실의 반영인 문학 예술 발전의 과정도 또한 극히 단순치 않은 것이다. 문학 발전의 과정이 모든 현상의 발전 과정과 같이 복잡 다단한 발전 과정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의 치렬한 투쟁; 견해들의 충돌과 모순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문학에서의 맑스—레닌적 미학의 순결성을 고수할 것과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독단주의와 현실을 인위적으로 분식하는 도식주의를 반대하는 정면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작품을 쓰는 데 언제나 진실할 것이며 대담하게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생활을 녹처럼 삭게 하는 가지 가지 죄악과 그 근원을 준렬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자연스럽고 공정한 요구인 것이며 아울러 당과 인민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옳은 론리도 창작 과정에서 작가가 생활의 심오한 연구가 없이, 현실의 변증법적 관찰이 없이 임의로 현실의 이모 저모를 가공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옳바른 정신도 력사적 진실성도 정당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날에 우리들 중의 일부 작가들이 지혜의 협소와 생활에 대한 몰리해로 인해서 다만 현실을 근거 없이 수식하던 나머지 《리상적 주인공》을 위조하여 도식주의에 떨어졌다면 이제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의 협소와 생활에 대한 몰리해로 인해서 부정적 인물을 만들어 내는 다른 도식주의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 생활은 그 어느 작가의 환상이나 가정과는 달리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것이다.

작품에서의 긍정적 인물이나 부정적 인물의 형상화는 결코 그 어떤 류행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사회의 력사적이며 구체적인 환경에서 산생되는 필연적 존재인 것이며 작가가 그것을 진실하게 그리고 혁명적 전망 속에서 보이려는 데 귀착되는 필연성의 성격들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긍정과 부정의 전형들은 작가의 현실에 대한 태도, 그의 현실에 대한 심오한 변증법적 관찰, 그의 창작적 구상, 그가 선정한 주제로써 규정될 것이다. 이러한 어

려운 창조적 과정을 거쳐서 성숙되지 않을 때 작품은 모름지기 도식주의를 범하게 된다.

그와는 달리 만약 작가가 공민적 용감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현실을 투시하고 대담하게 그의 미래를 전망하여 높은 예술적 기교로써 생활의 진실을 반영한다면 그 작품은 긍정적 인물을 그렸건 혹은 부정적 성격을 취급하였건 간에 교양적 미학적 가치가 풍부한 예술이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예술 작품은 언제나 진실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진실한 작품이란 반드시 사회적인 죄악만을 내용 삼은 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실한 작품이란 인간과 그의 생활을 다양하고 심각하게 보이며 심리의 발전과 그 정신적 내면 세계의 성장 과정을 진지하게 묘사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리가 어디까지나 독자적이면서도 그 독자성이 인민의 가장 뚜렷한 모습들을 반영한 것이여야 한다는 데 있다. 예술적 일반화를 거쳐서 창조된 훌륭한 성격과 행동은 그대로 군중의 산 모범이 되며 그릇된 것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대중적 산 표본이 되게 하는 데 문학의 사회 교양적 의의가 있다.

대회의 연단을 리용하여 우리는 작품의 문제성에 대하여도 많이 론의하였다. 그것은 작품에서 시사성 만을 노려서 앙상하게 정책 해설에 떨어지는 비예술성을 경고하는 것과 결부되여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그것이 어느 사이에 변종되여 주제의 교체와 작품에서의 생신한 시사성의 제거로 줄다름치는 경향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

작품에 시사성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방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도하여 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의 시사성이란 우리 시대의 사상적 조류를 옳게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로 하여금 격동시켜 마지 않게 하는 아직도 깊이 숨어 있는 현상을 우리 눈 앞에 활작 드러내여 보이는 곳에 시사성이 약동한다. 그렇래면 어떤 사건을 거쳐서 세기의 본질적인 현상을 밝혀 주어야 한다. 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의 진실이란 막연한 인도주의나 모호한 사랑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진실은 계급의 의지 속에 담겨져 있으며 계급의 지향 속에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부 작품들이 그처럼 무미 건조하였던 것은 그 작품에 시사성 있는 현실적 문제가 소재로 되였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 시사성이 우리를 크게 감동시킬 사회적 문제성으로 성숙시키지 못한채 예술적 형상의 옷을 입지 못하고 발표되였었기 때문에 도식주의를 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을 피상적으로 보아 온 데서 자연이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지금 말할 수 없이 긴장되고 첨예한 사상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력사적 모멘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적 폭동의 실패와 애급에서의 무장 침략에 참패를 당한 계급의 원쑤들은 휴식을 모르고 우리의 평화로운 로력 생활을 파괴하려고 온갖 파괴적 음모와 획책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작가의 임무이란 실로 그 류례를 들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사상 전선에서는 어떠한 평화적 공존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인류의 적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는 우리들의 결정적인 공세가 요구될 뿐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인민 생활에서 자기가 어떠한 큰 역할을 놀고 있으며 놀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군 하는 작가들이 있다. 현실에 대한 태도, 생활에 대한 깊은 리해, 인간의 심리와 정신 생활에 우리들의 작품은 얼마나 커다란 개혁과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가.

우리의 작품 활동의 목적은 인민에의 충실한 복무이며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강의한 요구성으로 자기의 위대한 건설 도정에서의 큼직한 발'자국을 옳바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계급적 원쑤들의 그 악착한 본성을 살살이 폭로하고 규탄하여 근로 인민으로 하여금 첨예한 계급 투쟁에서의 용감성을 발휘케 하며 빛나는 공훈을 세우게 하는 데 있다.

영예스러운 우리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철석같은 의지에 결속되였고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창작 방법으로 하고 있는 전체 조선 작가들이 길이길이 인민에 복무할 우수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류 해방 운동에 기여할 것을 오늘처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때도 드물 것이다.

학습 강사들을 초급 당 단체 핵심으로 육성하자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선전 선동 부장 박 승 률

학습 강사들은 초급 당 단체 핵심이다.

학습 강사들을 초급 당 단체 핵심으로 육성 훈련하는 것은 당 단체들의 일상적 주요 과업의 하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상 사업은 당의 제1차적 과업이다. 초급 당 단체들에서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는 학습 강사들이 서 있는 바 그들은 당원들을 사상 정치적으로 교양하는 직접적 담당자들이다. 초급 당 단체에서 학습 강사들은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시키며 당원들의 당성과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당원들을 당내 통일과 단결의 견결한 수호자로, 조국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 정책의 열성적 집행자로, 근로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열렬한 선전자로, 부르죠아 사상과 온갖 기회주의 사상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사로, 충실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자로 교양하는 중대한 임무를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급 당 단체 학습 강사들의 역할이 가지는 의의는 거대하다.

우리 초급 당 단체들의 절대 다수의 학습 강사들은 사상 사업 분야에서 자기에게 부과된 중대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하고 있다.

확고한 계급적 립장과 높은 당성으로 교양 훈련된 학습 강사들은 당원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 단결의 강화 및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례하면 함북도 주을 도자기 공장 기본 건설 부문 당 단체 선전원 리 기암 동무를 비롯한 수 많은 학습 강사들은 당 대렬의 순결성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을 일상적 학습 지도에서 관철시켜 왔으며 특히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특별 학습회를 수차에 걸쳐 조직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종파 분자들의 죄행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당원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하도록 교양하였다.

또한 부령군 직하농업 협동 조합 당 단체 학습 강사 김 석홍 동무는 당원들을 교양할 뿐만 아니라 당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핵심적 작용을 놀고 있다. 그리하여 이 당 단체에서는 지난 전쟁의 가장 곤난한 일시적 후퇴 시기에 있어서는 전 당원의 일치한 조직적 행동을 보장하였으며 전후에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남먼저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하였으며 조합의 조직 경제적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전례 없는 심한 랭해의 조건 하에서도 직하리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랭해를 비교적 성과 있게 극복하였

던 덕택으로 9개월 이상 분의 식량을 확보하고도 150 여 만원의 부수입을 얻었으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셀로쓰 생산도 159%로 초과 실행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사실은 함북도 당 산하 많은 초급 당 단체들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학습 강사들이 당 정책의 선전자인 동시에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 통일을 강화하며 당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대중을 이끌고 그를 관철하는 초급 당 단체 핵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함북도 내 일부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초급 당 단체들의 학습 강사들은 초급 당 단체 핵심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따라서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초급 당 단체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른 모든 사업에서도 많은 결함이 발생되고 있다.

례하면 부령군 사하리 당 단체 학습 강사로는 일시적 후퇴 시기에 당원으로서 량심적 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사상 정치적으로 응당한 준비가 부족한 당원이 배치되였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당 단체에서의 학습은 극히 낮은 사상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되였으며 지어는 《농업 협동화》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한 당 정책 문제들의 학습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농업 협동 조합 조직 과정에서와 그의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많은 결함이 발로되였었다.

학습 강사들이 초급 당 단체 핵심으로서 사상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높은 당성으로 무장됨으로써만 그가 지도하는 학습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과 높은 사상성이 보장되는 것이며 또 학습한 리론과 지식을 사업과 옳게 결부시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당원들에게 실제적 방조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당 단체들이 학습 강사는 초급 당 단체 핵심의 일부이란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학습 강사들을 초급 당 단체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상적 배려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 강사 선발 고착 및 육성 사업에 당적 주목을 돌리자.

당원들의 학습에서 강의의 질, 사상 정치적 방향과 수준은 학습 강사들의 사상 정치적 및 리론적 준비 정도에 의존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학습 강사들의 높은 질적 구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우리 당이 처한 사회 정치적 환경이 복잡하며 우리 당이 광범한 계급적 토대를 가진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한 조건하에서 그들의 학습 강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초급 당 단체 핵심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질적 구성을 부단히 제고할 데 대한 문제는 당 단체들의 일상적 중심 문제의 하나로 된다.

학습 강사들의 질적 구성을 높이는 기본 문제의 하나는 그들을 옳게 선발 고착 및 육성하는 그것이다. 그런데 이는 그리 용이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당 단체들은 지나온 사업 과정에서 체험하였다. 학습 강사의 임무와 역할은 일정한 리론상, 지식상의 준비가 없이 당성과 계급성이 강한 것만으로도 수행할 수 없으며 또 높은 당성이 없이 리론 지식상 준비 만 가지고도 수행할 수 없다.

사상 정치상의 준비와 리론상의 준비를 겸비함으로써 만 당이 요구하는 학습 강사의 역할, 초급 당 단체 핵심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당원들로 강사 대렬을 구성하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도 아직 용이한 문제가 아니지 만 과거에 있어서 더욱 곤난하였다.

그러나 경험은 당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당적 관심을 돌리여 강사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고착시키며 사업을 통하여 육성하기에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함북도 당 단체는 지나온 시기에 이 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함북

도 당 산하 많은 당 단체들은 초기에 이미 리론적으로 만족할 만큼 준비된 당원들이 극히 적었던 조건하에서 그중에서도 리론 지식상으로 높고 당성이 강한 당원들을 선발하여 일단 학습 강사로 배치하고 인내성 있게 육성하였다.

그러한 결과 함북 도 당 산하에는 현재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학습 강사가 200 여명에 달하며 도내 전체 학습 강사의 43%가 4년 이상 10년의 학습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랑군 당 단체 산하에 만 하여도 10년 이상의 학습 지도 경험을 가진 학습 강사들이 40 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초급 당 단체들에서의 사상 사업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업에서 핵심적 작용을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해방전 문맹자도 있으며 소학교 졸업 정도 혹은 국문 료해 정도였던 동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당 단체의 지도와 방조 하에 학습 강사로 고착되여 공작하면서 학습하였으며 선전 사업에서 전문화되였다. 이러한 성과는 그들 자신의 주체적 노력과 함께 그들을 고착시켜 육성하여 당 단체 핵심으로 장성시키려는 당 위원회들의 일상적 지도와 방조의 결과에 달성된 것이다.

당 단체들은 학습 강사들을 신중하게 일단 선발한 다음에는 그들을 무원칙하게 빈번히 조동하는 경향과 투쟁하면서 강사들을 위한 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그들의 일상적 사업을 강력히 통제하였다. 오늘 함북도 당 산하 초급 당 단체의 유능한 수 많은 학습 강사들은 선전원으로서의 자기의 장성을 일상적인 자체 학습과 동시에 시, 군 당 단체들에서 조직하는 강습과 쎄미나르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사상 정치 리론 수준 제고에 유익한 방조를 받은 강습과 쎄미나르 시간을 수천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례하면 경원군 고건원 탄광 제5갱 당 단체의 학습 강사 한 직명 동무는 학습 강사로서 10년간 고착되여 공작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그는 자기의 열성과 당 단체들의 정확한 당적 통제와 지도 밑에 단 한번의 결석도 없이 강습과 쎄미나르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해방전엔 국문 해득 정도였으나 오늘은 능숙한 초급 학습반 강사로 장성되였다. 또 어랑군 두남리 7반 농업 협동 조합 엄 철길 동무는 학습 강사로서 10년간 공작하는 동안에 연 3 280여 시간의 강습과 쎄미나르를 받았다.

이와 같이 오래 고착되여 계통적인 강습과 열성적인 자체 학습을 통하여 풍부한 지식과 학습 지도 경험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당 정책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다. 또한 그들은 학습 지도 사업에서 자신과 긍지와 애착을 가지게 되였으며 열성적인 자기 사업을 통하여 초급 당 단체의 핵심으로서 사상 정치적으로 장성하였다.

그러나 함북도내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학습 강사들의 선발 고착 및 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일부 당 단체에서의 결함은 적지 않은 경우에 지식 정도에 만 일면적으로 치중하고 그의 당성, 당적 위임 실행에 대한 충실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원들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리론 지식상 준비가 극히 약한 당원을 무책임하게 학습 강사로 선발하는 현상인 것이다.

학습 강사 선발에서의 이러한 결함은 학습 강사 고착 육성 사업에 불가피하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바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정치적 불신임, 능력 부족 등으로 오래되지 않아 빈번히 학습 강사를 교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학습 강사들을 배치하고는 그들을 위한 교양 사업을 계통적으로 조직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통제 방조하지 않고 방임하였다. 이러한 곳들에서는 선발된 학습 강사들이 계속 장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자기 임무로부터 물러 서게 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직 함북도 내 일부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군들이 학습 강사의 중대한 역할, 초급 당 단체 핵심의 한 부분으로서의 학습 강사들의 역할을 정당하게 리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선발 고착 및 육성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학습 강사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의 당성, 사상 정치적 준

비 정도와 리론적 및 지식상의 준비 정도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 이것은 학습의 질을 높이며 학습 강사들을 고착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의 하나로 된다.

학습 강사들을 일단 선발한 다음에는 그들이 고착되여 자기 사업에 능숙하도록 교양하며 훈련하여야 하는바 이에 있어서는 시,군당 단체들에서 그들을 위한 체계적인 강습과 세미나르를 조직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 활동을 당적으로 통제하며 자체 학습을 꾸준히 하도록 지도 방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들을 당내 사상 투쟁에와 경제 건설의 실제 투쟁에 적극 인입하여 사상 정치적으로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학습 강사로서 뿐만 아니라 선전 일'군으로 초급 당 단체 핵심으로 장성하는 것이다.

학습 강사들의 사상 정치적 및 리론적 수준을 더욱 제고하자.

학습 강사들이 초급 당 단체들의 튼튼한 핵심 대렬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된다는 것은 우선 그들이 학습 지도에서 당 정책을 정확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당 생활 행정에서 표현되는, 당의 통일 단결에 저해를 주거나 당 정책을 외곡 혹은 비속화하려는 일체 그릇된 경향과 견결히 투쟁할 줄 알며 당의 공고화를 위한 당내 투쟁과 당 정책 실천을 위한 모든 실천적 투쟁에서 확고한 선도적 모범적 작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 강사들은 계급적 정치적 립장이 더욱 튼튼하여야 하며 리론적 준비를 부단히 높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정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험은 계급적 정치적 립장이 확고하고 리론적 및 실무적 수준이 높은 학습 강사들은 당원들에게 당 정책을 정확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를 대중 속에서 관철함에 있어서 당 단체에 좋은 방조를 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김책군 춘동리 대동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당 단체 학습 강사 박 형극 동무를 비롯한 일련의 학습 강사들은 자기의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을 부단히 진행하면서 자기의 학습 지도의 중심을 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단련과 당 정책 관철에 두고 있다.

례하면 우에 지적한 김책군 춘동리 대동 농업 협동 조합에서 지난해에 랭해 극복을 위하여 벼 만숙종 대신에 조숙종을 심을 과업을 제기하였을 때 많은 농민들과 당원들은 그를 반대하였다. 이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습 강사 박 형극 동무는 당 정책에 확고히 의거하여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는 함북도에서 랭해를 극복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깊이 연구하여 인내성 있게 그를 당원들에게 해석 침투시켰다. 이에 있어서 그는 대중들이 반대하는 리유를 잘 연구하고 그를 해명하면서 당원들에게 당 정책을 관철할 데 대한 책임성을 불러 일으켰다. 학습 강사들의 이러한 노력과 방조에 의하여 이 협동 조합에서는 조숙종을 파종하여 타에 비하여 랭해를 적지 않게 극복할 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당 단체들과 학습 강사들이 사업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는 당 학습 지도에서 주체가 없이 형식주의,교조주의적 경향이 근절되지 못하고 당 정책 해석 침투에서 리론 정치적 외곡과 탈선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즉 랭해 극복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신중히 연구하지 않고 그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옳게 진행하지 못한 많은 사실들이 그러한 대표적 례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학습 강사들을 초급 당 단체의 핵심으로서 당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며 침투시킬줄 아는 강한 당성의 소유자로, 계급적 립장이 견고하고 당 정책을 정확히 견지할 줄 아는 당원으로 교양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우리의 경험은 학습 강사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우선 당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이 당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어떤 것이 당 정책을 관철하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당 정책에서 리탈 혹은 외곡 비속화하는 경향인가를 능히 자립적으로 판별하며 그릇된 경향과 투쟁할 줄 아는 당적 견결성과 정치적 판단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습 강사들 자신이 사상적으로 당적 계급적

립장이 견결함으로써 만 자기의 청강자들에게 그러한 사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학습 강사들이 당적 립장에 견결히 서야만 당 정책에 근거하여 모든 문제를 판단 처리할뿐만 아니라 설정된 제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정당히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학습 강사들이 당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옳게 판단하며 당 정책을 정치 리론적으로 명확히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기본 저서, 우리 당의 정책 문제들, 김 일성 동지의 제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당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그런데 아직 적지 않는 학습 강사들의 학습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와 방조가 미약하다.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를 자기의 사상과 지식으로, 자기의 피와 살로 되게 하는 것이 생동하는 맑스—레닌주의 학습이며 그것이 자기의 사상 정치적 및 리론적 수준 제고의 중심 고리이라는 것을 아직 정당히 리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는 당 정책 문제들을 명료하게 리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를 잘 연구하지 않거나 또 당 정책이 구현된 중요 결정을 형식적으로 학습하는 경향과 강력히 투쟁하면서 모든 당원들은 물론 특히 학습 강사들로 하여금 그를 심오하게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리들에 비추어 연구하도록 하며 그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과 사상을 검토하며 결함을 시정하는 꾸준한 사상 투쟁을 진행하도록 조직 지도하여야 하는바 학습 강사 자신들도 자체로 그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습 강사들은 그가 초급 당 단체의 핵심이며 맑스—레닌주의 리론, 당 정책의 영광스러운 선전자이므로 그는 자기의 사상적 단련과 리론 수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잘 선전할 데 대한 문제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학습 강사들은 항상 자기 청강자들의 사상 정치적 준비 정도를 연구 료해하며 전 당과 그리고 자기 당 단체 앞에 제기된 당면 중심 과업들을 연구하며 당 생활 및 경제 과업 실행 행정에서 당 정치 학습의 실효가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관찰하며 동시에 당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사상적 표현들과 결함들 및 긍정적 경험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사상적 제 편향들을 제때에 분석 비판하여 자기의 학습 지도에 결합시켜야 하는바 당 단체들은 학습 강사들을 이러한 방향에서 교양하며 그들에게 적극적 방조와 지도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학습 강사들의 경험을 보급 일반화하자

학습 강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업 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강사들은 자기 자신의 직접 체험으로써 경험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지들과 당 단체들이 달성한 좋은 경험을 부단히 섭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있어서 당 단체들이 학습 강사들의 경험을 교환하여 일반화하는 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습 강사들의 경험 교환회 조직에서 함북도 당 단체는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함북도 당 단체가 지난 시기 당의 경제 정책 집행과 당원들의 정치 교양 사업을 충분히 결합시키지 못하였으며 특히 알곡 생산에서 불만족한 성과를 달성한 그것은 당원들의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불만족한 지도와 관련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습 강사들과의 사업에서 달성한 일부 긍정적 경험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함북도 당 단체는 지난 시기에 학습 강사들의 경험 교환회들에서 왕왕 강의 방법, 기술상의 문제들 만을, 그것도 정규 학교식으로 론의하던 결함을 시정하면서 학습 강사들의 사업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교환 일반화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러한 결과 학습·강사 경험 교환회들에서는 많은 좋은 경험이 교환되였으며 그중 우수한 경험들이 도내에 일반화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강사들의 자

질을 제고하기 위한 그들의 자체 학습 경험이다. 례하면 학습 강사 엄 철길 동무는 학습 강사로 공작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매일 2시간의 자체 학습 시간을 설정하고 그를 집행하여 왔으며 이 시간 내에 당과 정부의 중요 결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으며 그를 깊이 리해하는 데 필요한 맑스—레닌주의 기본 저서들과 기타 참고 자료들을 학습하였다. 그는 이러한 학습 행정에서 제기되는 리론상 혹은 재료의 곤난에 부닥치게 되면 부근 중학 교원들과 군 당 도서실에 찾아가 방조를 받아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당 정책 문제의 연구·자료를 분류하여 계통적으로 노트하여 리용하며 기타 많은 출판물들을 읽고 필요한 재료를 발취 정리하고 있다. 다른 여러 학습 강사들에게도 이와 류사한 긍정적 경험들이 있는 바 도, 시, 군 당 단체들은 이러한 경험을 광범히 일반화하였다. 이 밖에 경험 교환회들에는 많은 경험이 보급되였다. 례하면 당원들의 학습을 당 단체가 일상 통제하도록 방조한 경험, 특히 청강자들의 동일하지 않은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응한 개별적 지도를 준 경험이다.

초급 당 단체 학습반에 망라된 당원들 중에 많은 당원들이 학습회 날에만, 학습 장소에서만 학습을 하고 그외 시간에는 학습하지 않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부 학습 강사들은 긍정적 경험을 축적하였다.

무산군 독소리 광명 협동 조합 초급당 단체 학습 강사 허 진 동무는 당원들이 학습을 잘하지 않는 원인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그러한 결과 일부 당원들은 아직 국문에 능하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신문이나 서적들의 문장을 잘 읽지 못하며 따라서 독서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여 그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 그는 아직 국문을 잘 쓰지 못하는 당원들을 위해서는 그의 손을 쥐고 쓰기를 가르쳤으며 또는 받아 쓰기, 받아 읽기, 혼자 읽기를 실시하였다. 그들의 문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편지를 보내여 회답을 제손으로 쓰도록 하는 방법도 적용하였다.

이리하여 읽기, 쓰기의 관습을 부친 후에는 그들의 취미를 고려하여 《정치 지식》, 소설, 농산 과학 서적, 신문, 잡지 등 일정한 출판물을 분공 주어 그것을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지도 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 당원들의 독서 의욕이 제고되였으며 따라서 당원들의 청강의 실효도 제고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 강사 엄 철길 동무를 비롯한 기타 여러 학습 강사들에게서도 볼수 있는 바 그러한 당 단체 당원들 속에서는 당 정치 학습이 생활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학습 강사 엄 철길 동무가 사업하는 어랑군 두남리 7반 농업 협동 조합내 당원들은 사업이 잘 안되거나 당원들 속에서 부정적 현상이 표현되면 자진하여 당 학습을 진행하자고 제기하는 적극성까지 발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당 정치 학습 지도에서 많은 실효있는 직관물을 작성 리용한 경험들도 있다.

함북도 당 단체는 이러한 경험들을 시, 군 당 단체들에서 조직하는 경험 교환회를 통하여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도 일보를 통하여, 또 도내 선전원 회의를 통하여 또 현지 견학 조직과 도'적인 직관물 전람회 등을 통하여 보급하였다.

경험을 교환 보급하면서 도당 단체는 호평을 받는 경험이라 하여 자기 당 단체의 실정도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도입 적용하여 역효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제때에 신호를 주어 시정시켰다.

그러나 아직 도내 일부 시, 군 당 단체들에서는 학습 강사들의 경험 교환회를 제때에 조직하지 않으며 또 아직도 정규 학교에서 하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강의 방법상 문제만 론의하고 기외의 주요한 학습 강사들의 일상적 자체 학습, 당원들의 학습에 대한 일상적 개별 지도 및 전반적 초급 당 단체 사업 방조 경험 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당 단체 지도 일'군들이 당 사상 사업에서의, 학습 강사들의 역할의 주요성을 정당히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 내 당 단체들도 이러한 경향과 강력히 투쟁하며 학습 강사들을 옳게 선발 배치하고 그들을 초급 당 단체 핵심 대렬의 한부분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다.

국제 로동 운동의 앙양과 그의 통일 단결의 강화

윤 완 희

1, 쏘련을 중심으로 굳게 결속된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 로동 운동의 승리의 담보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 근로자들 앞에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광활한 대로를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운동에도 새로운 기원을 열어 놓았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경험은 각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구감으로된 동시에 전 세계 근로자들의 혁명 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었으며 국제 로동 운동을 보다 높은 계단에 올려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쏘련은 전 세계 근로자들에게 모든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하는 길을 비추어 주는 등대로 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조국으로 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쏘련이 논 해방적 역할과 각국 반파쑈 운동의 앙양의 결과 일련의 구라파 및 아세아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섰다. 레닌이 1921년에 《우리의 길은 옳은 길이다. 왜냐 하면 이길로 나머지 다른 나라들도 빠르던 늦던간에 반드시 걸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은 정당하였다. 오늘 중국을 비롯한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국은 쏘련과 함께 사회주의의 대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였다.

오늘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체계는 류례없는 템포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성 강화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잘 실증하여 준다.

사회주의 체계 장성표

년도	령 토		인 구		생 산
	100만 km	세계에 대한%	100만	세계인구에대한%	세계공업생산에대한%
1940	23.9	18.0	194	8.9	7.0
1949	35.3	26.6	900	36.0	30.0

사회주의 체계의 장성 강화와 그의 우월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도 표현되는 바 사회주의 진영 공업 생산고는 1955년에 벌써 전전 수준을 릉가하였고 1937년 수준보다 거의 4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동 기간에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불과 2배의 증가를 보았을 뿐이다. 쏘련에서 최근 26년간(1930—1955년)에 공업 생산고는 20배나 증가되였으며 그의 년 평균 장성률은 동기간에 12.3%인 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3.3%, 영국에서는 0.9%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이러한 생산의 급속한 발전은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켜 주었다. 착취와 리윤을 목적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과는 달리 인간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주의적 생산은 인민 생활 조건의 개선을 보장하여 주는 바 쏘련에서 1955년도 국민 소득은 1940년에 비하여 176%로, 1913년에 비하여 1천 686%(약 17배)로 장성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국민 소득의 대부분이 자본가들의 소유로 된다. 례를 들면 미국에서 7%의 주민이 국민 소득의 65%를 차지하며 93%의 주민이 나머지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국민 소득은 그를 창조하는 근로자들에게 속한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국민 소득의 장성은 근로자들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쏘련에서 1955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1950년에 비하여 39%나 높아졌다.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국민 소득은 장성되였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근로자들이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례증으로 된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 로동 계급, 농민, 인테리겐챠들의 로력적 투쟁의 결과였으며 거대한 승리로 된다. 이는 전체 근로자들의 로력적 헌신성에 의하여 달성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호상 협조와 원조에 의하여 성취된 성과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원조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립각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는 새로운 형의 국제 관계가 설정되였으며 그들은 정치, 경제 및 문화적으로 호상 원조하며 통일 단결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앞에 제기되는 민족적 과업들을 공동적으로 단합된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적인 노력의 결과 사회주의 진영은 거대한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빛나는 업적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에 충실한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제 성과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맺어진 사회주의 국가 인민의 친선 강화는 사회주의 체계가 자본주의 체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동시에 사회주의와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제 로동 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준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합된 력량과 승리적인 제 성과는 국제 로동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이끌었으며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였으며 그들을 사회주의와 민주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로 더욱 궐기케 하고 있다.

오늘날 쏘련을 중심으로 굳게 결속된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 로동 운동의 승리의 담보로 되며 믿음직한 성새로 되고 있다.

2,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앙양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은 앙양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최근 그의 국제적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여 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독점체들의 최대한의 리윤 추구는 근로자들에 대한 더욱 혹심한 착취와 근로자들의 생활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화를 초래케 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점차 저하되여 가며 주택 및 기타 생활 조건들은 악화되여 가고 있다. 다음의 자료는 불란서의 한 례이지만 이것을 잘 설명해준다.

년도	1938	1955	축감(−) 증가(+)
실 질 임 금	100	67	−33%
로동자 1인당생산	100	136	+36%

미국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도 전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바 1954년은 전전에 비하여 25%나 낮다.

설상 가상에 독점 자본가들의 경쟁적인 군비 확장은 최근년 더욱 더 심대하여 지고 있는 바 1956—1957년도에 미국은 군사비로서 전체 예산의 61%, 불란서는 50%, 서부 독일은 34%, 영국은 27%를 각각 지출하였다. 그리고 1949년도 북대서양 조약(나토) 참가국들의 군사비 지출은 187억 2천 3백만 딸라였으나 1956년도에는 3배나 증가되여 무려 561억 6백만 딸라나 되였다. 이러한 거액의 군사비는 근로자들의 세금으로서 짜내고 있으므로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생활 처지는 더욱 악화되여 가고 있다.

전후 미국의 실업 정형 (단위 만명)

구분 \ 년도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0개월)	1956 *
완 전 실 업 자	227.0	214.2	206.4	339.5	314.2	187.9	167.3	160.2	323.0	270.2	280.0
림 시 실 업 자	226.0	247.3	275.2	253.0	264.8	268.0	281.4	268.2	307.2	312.0	200.0
반실업자(1주에 1～14시간 로동)	142.0	168.8	188.3	210.7	229.1	227.9	203.2	198.6	239.9	248.5	300.0
반실업자(1주에15～34시간 로동)	586.0	627.0	852.5	969.0	976.8	838.4	689.6	806.5	1136.0	726.5	

* 불충분한 자료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물질적 조건의 악화는 실업자 수의 증가에서도 표현된다.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실업 정형의 특징은 대중적이고 만성적인 데 있다. 미국의 례를 든다면 상기 일람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전후 미국에서의 완전 실업자 수는 160만명(1953년)이상이였으며 생산의 침체시에는 320만 내지 340만(1949년, 1954년)까지 높아졌다. 영국, 불란서 및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방대한 실업자들이 있다. (108페지 도표참조)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오늘 자본주의 제국에서 로자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첨예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독점 자본가들과 그들의대변인들이 《인민적 자본주의》라는 간판 밑에 계급 투쟁의 《소멸》이니 《계급적 조화》이니하고 대대적으로 짖꺼리는 선전의 허위성을 여실히 폭로하여 준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은 사회적 해방과 생활상 권리와 평화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궐기하고 있다. 1956년도도 례년과 같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로동 운동이 앙양된 해였다. 그의 가장 광범히 적용된 투쟁 형태는 파업이였는바 근로자들은 로동 임금의 인상과 생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그와 동시에 전쟁 정책의 반대와 평화 옹호, 식민주의 정책의 반대를 위하여서도 대대적인 진출을 하였다.

1956년 미국에서의 파업 총건수는 3천 800건이나 되였고 그에 참가한 로동자 수는 약 190만명이나 되였다. 영국에서는 작년 11개월간 2천 511건의 파업과 49만 5천 800명의 파업 로동자수를 냈다. 불란서에서는 작년도에 약 200만, 일본에서는 500만, 이태리에서 800만명의 파업 로동자 수를 냈으며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수다한 파업건 수와 파업 로동자 수를 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계급적 조화》를 부르짖고 있는 《인민적 자본주의》의 제창자들에게 일대 타격을 준 동시에 국제 로동 운동이 근년에 와서도 더욱 앙양되여 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현 시기의 파업 투쟁의 특징은 그의 대규모성과 근로자들의 단결성과 그들의 정치적 각성에 있는바 파업 투쟁의 대규모성에 대한 례로서는 작년 여름에 있은 미국의 야금 로동자들의 파업을 들 수 있다. 작년 7월 거의 한달 동안 65만명의 야금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는 바 이러한 강력하고 대규모적인 투쟁의 결과 그들은 로임의 인상,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인상, 휴가의 증가를 달성하였다.

특히 지적할 것은 작년도에 미국에서 장기간의 대파업이 있은 사실이다. 《웨스팅가우즈 엘레크트리크 콘프레이숀》의 10개 공장의 로동자들이 154일간이나 계속 파업하였으며 동 회사의 다른 30개 공장의 로동자들이 156일간 계속 파업하였다. 이것은 최근 20년간 미국의 로동 운동사상에서 그 규모로 보나 투쟁 기일로 보나 류례 없는 큰 파업이였다.

다음으로 현 시기에 로동자들의 진출은 광범한 대중들의 단합된 력량하에 진행되는 사실이다. 그의 실례로서 영국 로동자들의 파업을 들 수 있는바 남(南) 우엘스에서와 델비쉬에서 수천명의 광산 로동자들이 2주일간에 걸쳐 수명의 자기 동료들의 해고를 반대하여 동맹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꼬웬트리에서 1만 1천명의 자동차 공장 로동자들이 2주일간이나 3천명의 자기 동료들의 해고를 반대하여 파업 투쟁을 계속하였다. 작년 7월 27일부터 시작한 다게넴시의 폴드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은 동년 8월 3일에 성공적으로 끝났는 바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써 2천 400명의 해고된 로동자들이 다시 복직되였다. 이것은 로동 대중의 단결, 련대성을 시위하는 훌륭한 례로 된다.

로동자들의 파업은 자기의 생활상 권리를 위한 경제 투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비 경쟁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적 권리, 평화를 위한 근로 대중의 투쟁은 더욱 앙양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로동 계급의 조직성이 장성되였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혁명적 로동 운동의 조직자, 령도자로서의 공산당들의 역할과 영향이 장성 강화되여 가고 있다.

이상은 최근 시기 근로자들의 투쟁의 특징들이다. 이러한 각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은 자기 나라 정치 경제 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막대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와 평화를 위한 전 세계 근로자들의 투쟁에 합류되여 위대한 힘으로써 국제 정세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3, 현 시기 전 세계 로동 계급의 통일 단결의 가일층의 강화

현 시기 국제 로동 운동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의 통일 단결의 강화이다. 국제 로동 운동 사상에서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주의적 단결의 필요성이 강조된 때는 일찌기 없었으며 오

늘날과 같이 근로자들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이 강화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물론 임금 인상, 로동 시간 단축, 실업 방지, 체포된 파업 로동자들의 석방·등 로동자들의 요구 조건은 여러가지로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의 목적은 동일한 바 그것은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에 대한 증오이며 그로부터의 해방이며 특히 현 시기에 있어서는 평화를 위한 투쟁인 것이다. 이것은 전체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단결된 힘으로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가 각국의 민족적 독립을 위협하는 마당에서 근로자들의 계급적 리해 관계는 각 민족적 리해 관계와 더욱 더 긴밀히 련계되여 있으며 일치되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그 자체가 민족적 리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오늘 국제 정세 발전은 각국 근로자들에게 부분을 전체에 복종시키며 모든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신으로 일관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더욱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때문에 현 시기의 로동 운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며 또한 그의 승리의 중요한 조건으로 되였으며 되고 있는 것은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이다.

그러나 국제 로동 운동의 대렬은 아직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76개의 각국 공산당 대렬에는 약 3천만명의 당원들이 결속되고 있으며 사회—민주당들은 약 1천만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 로동 조합들에는 약 1억 7천만명의 로동자들이 망라되여 있는 바 그중 쏘련을 비롯한 각국 직맹들이 들어 있는 세계 직련에는 8천 8백만명, 사회당의 영향하에 있는 국제 자유 로련에는 5천 4백만명, 국제 기독교 로련에는 1백만명, 기타 국제적 조직에 참가하지 않은 수다한 중립적 로조들에는 수백만명 이상 로동자들이 망라되여 있다.

만약에 이처럼 각이한 단체에 망라된 로동자들이 자체의 권리와 평화를 위한 공동적 기치하에 힘을 단합한다면 그의 위력은 더욱 강대하여 질 것이며 어떠한 힘도 그를 격파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산주의자들의 발기에 의하여 로동 계급의 통일 강화를 위한 투쟁이 맹렬히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선 국제 로동 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놀고 있는 각국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단결이 가일층 강화되였다. 쏘련 공산당을 비롯하여 중국 공산당, 불란서, 이태리 및 기타 많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자기의 대표단 파견 교환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며 쏘련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더 단결되며 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할 것을 성명하였다.

이러한 공산당들의 통일 단결에 대한 적극성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기타 로동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 간에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정한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부르죠아 국가는 부르죠아지의 지배 도구인 것이 아니라 초계급적이라는 것,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신성 불가침에 대한 것, 계급 투쟁의 거부 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 간에는 또한 공통적인 점도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는 력사적으로 파도적인 사회 제도라는 것, 궁극적 목적은 사회주의라는 것,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제고를 위하여 투쟁할 것, 파씨즘의 거부 등인 바 이것들은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 간의 협조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조건들이다. 때문에 차이점만 끄집어 낼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목적을 위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에 대한, 국제 로동 운동내 여러 대렬들의 호상 협조에 대한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 호소는 사회—민주당들의 관심사로 되였다. 많은 저명한 사회—민주당과 레이버당의 활동가들은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쏘련 공산당의 창의에 동의하였다. 그의 한 실례로서 백이의의 로(老)사회—민주주의자인 규이스만스를 들 수 있는 바 그는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가 있은 후 《나는 모든 힘을 다하여 구라파에서의 로동 계급의 통일 회복에 방조를 주고 싶다……만약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구원을 원한다면 이것을 시급히 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모든 조류들을 다시금 단합시킬 때는 닥쳐 왔다. 이것은 몽상인 것이 아니라 시급히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성명하였다.

이러한 실제적인 성명은 다른 사회—민주당들에서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량심적인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당의 지도자들은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에 방해되는 언사와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로동 계급과 로동 운동에 리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해독만을 가져 오는 동시에 로동 계급의 적을 도와 주는 것으로 밖에·될수 없다.

실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사회당 지도자들이 직접 로동 계급과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 위업을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서구라파 사회—민주주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뽈리—안리 스빠아크는 나토의 총 비서직에 채용되어 제국주의 군사 블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며 불란서의 기 몰레는 로동자들을 탄압하는 정책과 식민주의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민주주의의 진상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대부분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의 많은 당원 대중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의하고 있는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환영하고 있으며 그의 압력하에 실제적 사업들이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실례는 수다한 바 대표적인 례를 든다면 오지리에서 공산당과 사회 로동당(좌익 사회주의자들)이 의회 선거에서 공동 전선을 취하였으며 20차 당 대회 후 서부 독일에서도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조의 조건들이 성숙되였다고 언명하였다.

칠리에서는 1956년 2월 인민 행동 전선이 창건되였는 데 거기에는 사회당, 로동당, 공산당, 민주당, 인민—사회당, 인민—민주당들이 들어 갔다. 이 당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민 행동 전선은 진보적 세력을 통합하는 통일적인 정치 조직이며 그는 인민의 자유와 반인민적 법률의 철폐와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며 제국주의자들의 칠리 인민의 노예화를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성명하였다.

로동 계급의 공동의 목적과 세계 평화 사업을 위하여 앞으로 공산주의자들과 사회 민주주의자들 간의 접촉과 협조는 더욱 발전될 것이다.

공산당들의 적극적인 접촉 행동은 사회당들에게만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동 조합들 간의 접촉과 협조 사업에 거대한 자극을 주고 있다. 1955년과 1956년에 쏘련 직맹은 45개국 로동 조합 대표단들을 맞이하였고 180개의 대표단을 각국에 파견하였다. 중국에서는 1956년 9개월 간에 40개 국으로부터 63개의 로동 조합 대표단들을 초청하였는 바 그중에는 세계 직련은 물론이거니와 국제 자유 로련 산하 직맹 단체들과 특히 수다한 중립 로동 조합 대표단들인 일본 로동 조합 총 평의회, 아랍 로동 조합 련맹, 칠리 로동 조합 중앙 조직 등이 들어 있었다.

로동 조합들의 호상 협조의 정신은 국제적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적 범위에서도 발휘되였다. 그 실례로서 불란서를 들 수 있는 바 각이한 직업 동맹 조직에 망라된 불란서 로동자들이 근년에 자주 공동적으로 진출하였다. 많은 경우에 로동 전 련맹이나 기독교 근로자 불란서 련맹에 들어 있는 직맹 조직들이 공동적으로 로동자들의 요구 조건들을 지지하여 나섰다.

빠—데—깔레의 6천명의 탄부들의 동맹 파업은 로동 전 련맹과 기독교 근로자 불란서 련맹의 호소에 의하여 단행된 것이였다.

또한 미국 웨스트찡 하우스의 파업에서 미국 로동 총동맹—산업별 조직 회의(에이•에프•엘—씨•아이•오)산하의 4만 4천명의 로동자들과 중립적인 합동 전기 로조에 속하여 있는 1만 2천명의 로동자들이 단합하여 투쟁한 사실과 기타들은 로동 계급의 통일의 강화를 증시하여 주며 그의 위력을 시위하는 표식으로 된다.

이리하여 현재 로동 계급의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그 통일이 실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로동 운동의 앙양과 로동 계급의 통일 강화는 거대한 력량으로 국제 무대에 진출하고 있다. 국제 로동 운동의 앙양은 새로운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4, 단결된 로동 계급의 위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정책을 분쇄하는 유력한 무기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6년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건설적 성과의 나날이였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앙양 그리고 전체 근로자들의 가일층의 통일 단결의 해이였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전체 근로자들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근년에 현저한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보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로동 계급의 통일 단결이 국제 반동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쟁 상인들인 독점 자본가들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이 확대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념원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행동 통일에 위협 당하고 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국제 반동 세력들이 최근 반쏘의 독설을 더욱 발악적으로 퍼붓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와 국

제 로동 운동의 통일 단결을 약화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쓰고 있는 것이다.

국제 반동들은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파괴 행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국제 긴장 상태 회복을 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근로자들의 쏘련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마비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흉계를 품고 작년말에 제국주의 반동 세력들은 사회주의와 민주와 평화를 반대하여 도전 행위를 감행하였다.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불란서와 이태리 및 기타 국가들에서의 파쉬쓰트적 소동 등은 제국주의 반동의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에 대한 총 공격으로 된다.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렬, 공산당들과 직업 동맹 및 기타 진보적 단체들을 반대하는 공개적인 파쑈적 테로에로의 전환은 제국주의자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배'심이다.

지금 전 세계 인민들은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폭동의 진상과 그의 참패를 똑똑히 알고 있다. 웽그리야의 혁명 세력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 튼튼히 선 쏘련의 적극적인 방조하에 반혁명 폭동을 승리적으로 진압하였다.

웽그리야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 근로자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근로자들은 웽그리야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사수하는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원조하였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근로자들도 성원을 보내여 웽그리야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이리하여 웽그리야 근로자들은 자기 주권을 수호할 수 있었으며 현재 사회주의 대로에서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립각한 평등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대한 친선 단결은 어떠한 힘으로도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그 위력은 더욱 더 장성되고 있다.

또한 세계 로동 계급은 아랍 국가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 세력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영, 불의 애급 인민을 반대한 침략 행동은 좌절되였고 반식민주의 세력은 자기의 거대한 위력을 세계에 시위하였다. 애급 인민은 자기의 독립과 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와 원조를 받았으며 이 결과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수에즈 문제를 통하여 반식민주의 세력의 주도적 력량은 로동 계급이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랍 인민들의 단결은 로동 계급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달성된 것이다. 로동자들의 호소에 의하여 아랍 근로자들은 손에 무기를 쥐고 침략을 반대하는 대중적 시위를 한 일이 한 두번 아니였다.

종주국의 로동 계급들도 식민주의자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독점 자본가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애급, 알제리아, 싸이프러스도에서의 침략적 행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세계 직련의 호소에 호응하여 애급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나섰는바 이러한 적극적인 근로자들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근동에서의 전화가 정지될 수 있었다.

알제리아 로동자 및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동정을 보내며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세계 직련은 4월 6일 로동자들과 로조 단체들에게 국제적 련대성을 시위할 것을 호소하였다. 4월 7일부터 4월 14일에 걸쳐 《알제리아 인민을 지지하는 국제적 련대성 주간》이 진행되였는 바 이러한 국제적 규모에서의 근로 대중의 통일적 행동은 알제리아 문제의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공정한 해결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전 세계의 근로자들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약화 분렬시키려던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음모도 로동 계급의 단결된 위력 앞에 여지없이 분쇄되고 있다. 테로와 파괴로써 불란서 공산당의 립장과 의지를 약화시키려고 획책한 파쑈적 도당들에게 불란서 로동 계급은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2백 여만의 당원들을 결속하고 있는 이태리 공산당은 제8차 대회에서 자기의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사회당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제국주의 반동 세력들은 쏘련 로동 계급과 다른 나라 로동 계급간에 불신임과 반목의 씨를 뿌리며 국제 로동 운동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갖은 수단과 애를 다 쓰고 있다. 그들은 쏘련 공산당과 자본주의 나라 공산당들과의 불화를 야기시키려고 흉악한 책동을 하였으나 각국 공산당들은 쏘련 공산당을 중심으로하여 세계 혁명 세력을 단합하며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할 것을 성명하여 사회주의와 민주와 평화의 적들에게 반격을 주고 있다.

각국 근로자들은 적들이 쏘련을 중상하고 국제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려고 획책하면 할수록 더욱 더 쏘련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표명하며 더욱 더 그의 경험의 위대성을 옹호하며 연구하며 그의 길을 따라 통일된 대렬로 전진할 것을 결심하고 있다.

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으로부터의 리탈은 곧 자기 자신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에 대한 배반으로 되기 때문이며 이는 오직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강화 만이 자기의 사회적 해방과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근로자들의 단결은 민족적 범위에서나 국제적 범위에서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독립과 자유와 공고한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그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 *

로동 계급을 선두로하는 전체 조선 근로자들은 조선 로동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성과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며 쏘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들 간에 친선 협조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의 근로자들은 당의 올바른 경제 정책에 의하여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초과 완수하였다. 1956년 공업 생산액은 전전 수준인 1949년 보다 2배 이상으로 장성되였으며 알곡 수확고는 8%나 증가되였다. 결과에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은 급속도로 안정 제고되였다. 현재 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은 5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첫해인 금년도의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12월 전원 회의의 절약과 증산의 정신에 튼튼히서서 증산 경쟁에로 돌진하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공화국 남반부 근로자들은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도당의 파쑈 통치하에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조차 박탈당하였으며 제국주의 및 예속 자본의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하에서 참을 수 없는 빈궁과 무권리의 궁지에서 헤매이고 있다. 그들은 12—17시간의 로동을 하면서도 생계비의 겨우 25—35%밖에 못되는 로임을 받고 있다. 리 승만 도배들은 남조선 기업체들에 《군 관리제》를 실시하여 군사적 로동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적 리익을 위한 투쟁을 탄압 말살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파쑈적 탄압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급속한 실현과 전반적 정치, 경제 사회적 생활에서의 생존과 자유와 민족적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지향을 꺾을 수는 없다. 테로와 학살이 횡행하는 조건하에서 전후 남조선에서의 로동 운동은 고도로 앙양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는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된 제 성과에 고무되면서 최근 급속도로 앙양되여 가고 있다. 불충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53년 7월 이후 로동자들의 각종 형태의 투쟁 건수를 보면 1953년 (7월부터 12월)에 15건, 1954년에 44건, 1955년에 55건, 1956년에 96건으로 장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미지불 임금의 지불 요구, 해고 반대 등을 위하여 예속 자본가들을 비롯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싸웠을 뿐만 아니라 로조 결성 요구와 그에 대한 탄압 박해의 반대, 군대 및 경찰의 만행과 인권 유린 반대, 미제 침략자들의 민족적 멸시와 차별 대우 및 만행 반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을 위하여 리 승만 당국과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바 남반부에서의 이러한 로동 운동의 급속한 앙양은 최근 남조선 정세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는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력량이 날로 증대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최근 국제 정세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미제의 사촉하에 리 승만 역도들이 군대를 확대하고 북반부에 파괴 암해 분자들을 침입시키면서 《북진 통일》의 나팔을 불고 있는 이때에 전체 근로자들은 더욱 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 기세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거족적 위업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남북 조선의 근로자들의 통일 단결의 강화에 모든 힘을 다 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에 튼튼히 립각하여 민족적 리익에 항상 충실한 우리 당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근로자들의 통일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국 통일 촉진의 요인의 하나로 되는 전체 조선 근로자들의 두터운 접촉이 설정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의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통일 단결의 기치하에 금년 5•1절을 맞게 된다.

독자들의 편지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비법적 통계 보고를 없애자

우리 사업의 목적은 문서 사무나 통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 우리 혁명의 임무를 성과 있게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은 책상 머리에 앉아서 통계 보고와 지시로써 지도 사업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부에 접근하여 객관적 현실을 료해 분석하며 당과 정부의 정책을 군중들에게 해석 침투하며 현지에서 배우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도를 주며 경험을 총화 검토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여 군중 속으로 다시 들어 가는 사업 방법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부에 구체적인 산 지도를 주며 사무를 축소하기 위하여서는 통계를 하부 실정 료해의 유일한 방법으로 삼는 그릇된 관점을 시급히 시정하고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사업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임이 요구된다.

또한 사무 간소화를 위한 투쟁은 옳은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지도 수준 제고에 부단히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사무의 번잡성——이는 일'군들의 사업 방법에 관련되며 번잡한 사업 방법은 또한 관료주의의 산물이다. 따라서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서는 반관료주의 투쟁을 견결히 진행하며 사업 방법을 대담하게 고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 방법들이 사무 간소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유해로운 사업 방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들이 요구되는가.

비법적 통계 보고를 없애자

당 및 국가의 결정 명령들을 형식적으로 접수하며 이를 완강히 인내성 있게 집행할 대신에 깜빠니아적으로 처리하는 사업 방법들이 사무를 번잡하게 하고 있다.

수차에 걸치는 당 및 국가의 결정 명령에 의하여 비법적 통계 보고를 근절할 데 대한 원칙과 구체적 제 대책이 제시된 이후 전국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통계 보고와의 투쟁이 앙양된 기세에서 진행되여 수다한 번잡한 통계 보고들이 페지되였으며 부분적 일'군들에게 책임이 추궁되였으며 사무에서 번잡성을 제거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후 비법적 통계 보고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의 투쟁이 약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비법적 통계 보고의 요구 방법은 책임 추궁을 면하며 구실을 준비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치되였다.

일부 군 인민 위원회 일'군들과 같이 자기 지역내 리 인민 위원회들에 지시하여 비법적 통계 보고 양식 원안을 은밀히 보관케 하거나 소각하도록 조직한 사실이라든가 공문 대신에 구두 또는 사신으로 지시하여 번잡한 보고를 수집하는 실례라든가 통계 보고는 제출하되 공인과 실인을 날인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정식 문건이 아니니까 비법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실례들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는 당과 정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할 대신에 사업에서 번잡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의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극히 위험한 사상에서 출발된다. 일부 일'군들은 《전화로 받는 것이니까 무관하다》, 《공작원 또는 출장원이 직접 수집하니까 무방하다》 혹은 《이 보고가 없이는 사업할 수 없으니 책임은 내가 진다》는 등 구실을 부쳐 가면서까지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변명과 구실로써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사무의 번잡성에 대한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사무 간소화에 대한 당과 정부의 기본 방침을 충실히 집행할 대신에 사무실적 사업 방법과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고집하면서 책임 추궁만 면하려고 하며 비법적 통계 보고를 받는 정도의 위법은 사소한 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 표현들과 위법 행위들은 그것이 엄중한 것이거나 또는 사소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우리 혁명에 해독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하다. 따라서 관료주의의 표현과 위법 행위는 어떠한 사소한 것일지라도 용납될 수 없다.

금년에만 하여도 최근의 당과 정부의 일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매 량정성에서는 1월에 2건의 비법적 통계 보고를 산하에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1월말에는 민영 정미 공장 조사를 실시하고도 최근 승인도 없는 양식으로 또 다시 공작원을 파견하여 재차 조사하고 있다.

또한 농업성 검열처 어느 한 일'군은 금년 2월에 강원도 인민 위원회 영농 준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5종의 비법적 통계 보고를 《중앙 통계국에서 승인한 양식》이라고 거짓 지시하여 군에서 도에, 리에서 군에 2일, 3일, 5일, 10일마다 쓸모 없는 번잡한 보고를 제출케 하였다. 《영농 준비 계절 보고》와 2중되는 이 보고들은 장거리 전화로서 세포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7통화, 이천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8통화로서 도 인민 위원회에 보고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번잡성이 준 해독을 능히 추측할 수 있다. 이리하여 이 보고들이 비법적인 줄을 안 세포군 인민 위원회 농업 부장은 보고에는 리 인민 위원장의 실인만 날인하되 공인은 날인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산하 리 인민 위원회 일'군들에게 지시하여 하부 일'군들을 옳지 못한 방향에로 인도하였다.

반관료주의 투쟁은 낡은 사상 의식과의 투쟁이며 심각한 사상 개조 운동이다. 따라서 당 및 국가 결정을 준수하며 사업 방법을 개선하여 사무를 간소화하는 등 반관료주의 투쟁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완강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당과 정부의 사무 간소화에 관한 결정 명령 특히 지난 1월 30일의 당 중앙 위원회 조직 위원회 결정 및 2월 18일의 내각 결정 제16호 《지방 인민 위원회들에서 기구 정원을 축소하며 사무를 일층 간소화할 데 관하여》를 철저히 집행하며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비판을 강화하고 사업에서 원칙을 고수할 것이 요구된다.

일부 기관들에서 행정 및 경제 사업 지도에 있어서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간의 사업상 권한과 한계 및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사업에서 적지 않은 번잡성을 초래하고 있다.

파거에 적지 않은 군 인민 위원회들과 일부 도 인민 위원회들에서는 영농 준비, 파종, 이앙 등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농산 사업 지도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5일보로써는 너무나 굼뜨다고 인정하면서 해당한 매일 보고 혹은 2일 보고를 번잡한 양식으로 수집하였다. 한 때는 농업성에서도 리 인민 위원회 일'군을 동원하여 군과 도를 경유하여 파종 실적을 매일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해당한 사업 추진을 책임진 공작원들이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 군에서 리로 파견되고 있었다.

이렇게 파종 통계 보고를 리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매일 요구하며 공작원을 계속 파견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농업 협동 조합들의 관리 일'군들, 리 인민 위원회 일'군들, 리에 파견된 공작원들은 각각 사업상 한계와 권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성이나 관리국에서 기업소 일'군들의 출근 동태와 기업소의 원료 자재 등의 재고를 5일마다 보고받음으로써 로동 규률을 세우거나 원료 자재의 부족이 기업소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대책을 수립하려고 시도한 실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자기의 지도의 《구체성》을 자랑하는 일'군의 사업 방법과 파종 보고를 매일 또는 2일마다 요구하는 군이나 도 인민 위원회 일'군들의 사업 방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 방법의 결과 1956년만 하여도 농기구, 잠구, 종자, 자급 비료, 식량 관계, 토지 관리, 관개 사업, 고공품 생산, 부업 생산, 영농 기술 강습, 속성 성인 교육, 방역 사업 등등으로부터 퇴비 반출, 기경, 로력과 축력 조절, 시비, 파종, 모판 설치, 이앙, 개답, 작답, 수리 불안전답, 대작, 중경 제초, 각종 비배 관리, 풀베기, 춘잠 소립, 씰로쓰, 종부, 종두, 예방 접종, 채종, 탈곡, 화목 준비, 검병 등등에 관련된 매일, 2일, 5일, 10일로 되는 가지 각색의 보고가 다양 다종한 양식으로 진행되였으며 이로 인하여 리, 군, 도 등 각급 인민 위원회는 문서 왕래와 전화로 분주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여기 저기에서 고무줄과 같은 수'자들이 창조되고 펜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평남 대동군 인민 위원회는 최근 상급에서 요구하는

영농 비준 관계의 복잡한 보고를 한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면 과업 실행 정형 보고》라는 아주 긴 통계 보고를 《창안》하였으며 평남 룡강군 인민 위원회는 《관리 위원장 개체에 대한 통계》 외 12종의 비법적 통계 보고를 받았다. 평양시 위생 방역소에 대해서는 그가 지난 해에 《이약 주머니 차기 정형 보고》 《성별, 년령별 목욕, 의류 교환 정형 및 이약 주머니 효능 조사 정형》등 《진귀》한 통계 보고를 하부에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각 구역 위생 방역소에 지시하여 《소독 사업 월보》를 비롯한 10 여 종의 비법적 통계 보고를 받았다. 방역소의 이런 유해한 사업 방법을 시정시켜야 할 평양시 인민 위원회 보건부장 자신은 산하에 지시하여 《모혈 주사 5일보》라는 비법적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일부 일'군들의 말과 같이 비법적이고 번잡한 보고는 불가피한 것인가. 황해남도 연안군, 평안북도 의주군 등을 비롯한 많은 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제정된 통계 보고만으로 지장 없이 사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상 한계 및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여 있다면 각각 자기 맡은 바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상급 기관에서는 지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수시로 분석하고 총화함으로써 적절한 새로운 대책을 얻어 내며 락후한 고리에 지도 력량을 집중하여 애로를 해결하도록 방조를 주며 우수한 경험을 보급하는 등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인민 위원회들에서는 각 리에 파견한 공작원을 수시로 불러 수'자로서가 아니라 경험을 분석 총화하며 어느 리는 대체로 몇 프로쎈트나 진행되였으며 언제까지 끝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함이 요구되는가 등에 관하여 토의하고 새로운 과업을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개선한다면 현지 지도에 더욱 많은 시간과 력량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자

사업을 조직 집행함에 있어서 깜빠니야적으로 처리해 치우며 현지 지도 사업을 형식적으로 조직 실시하며 주관적인 욕망과 공명심에 사로 잡혀 조급성과 독촉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는 사업 방법도 사무의 번잡성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 문천군 인민 위원회와 같이 1956년 년간을 통하여 군 내 매개 리 인민 위원회에 매일 평균 1명에 해당하는 군 일'군을 공작원으로 파견하였으며 때로는 공작원이 파견된 리에 덧부쳐 독촉을 위한 출장원을 파견한 실례라든가 또한 일부 군 인민 위원회와 같이 파종이나 이앙의 진행 정형 통계를 매일 전화 혹은 인편으로 보고하게 하여 독촉과 호령에 분주한 현상은 이러한 실례로 될 수 있다.

미리부터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성 보장의 필요성 및 기술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해석 침투시키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우수한 고리와 락후한 고리를 옳게 파악하며 나타날 수 있는 경향성에 대하여 현지 지도로써 사업을 보장한다면 깜빠니야적인 독촉식 사업 방법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독촉식과 깜빠니야식 사업 방법은 관료주의적 작풍의 표현의 하나이다. 따라서 깜빠니야적인 사업 조직과 독촉식 사업 방법은 도처에서 쓸모 없는 번잡한 보고를 낳게 하며 심부름'군을 길마다 늘어 놓으며 전화를 요란스럽게 거는 등 번잡성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사업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 결과 때로는 허위 보고까지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을 깜빠니야적으로 조직하며 독촉과 호령으로써 사업을 추진시키는 작풍을 시정하려면 책상 머리에서 수'자에만 조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설과 설복으로써 군중들의 자각적 로력과 창발성을 발동시키며 사업 진행 기간에 현지 일'군들의 책임성과 지도 능력을 발휘시키면서 상급 기관에서는 사업 방향과 방법을 사전에 제시하며 현지 지도와 중간 총화를 강화하는 등 이런 사업 방법을 택한다면 사무의 번잡성은 현저히 제거될 것이다.

시기적인 깜빠니야 사업에서 상급 기관이 독촉으로 지도를 대행하는 사업 작풍을 제거하며 행정 및 경제 사업의 지도에 있어서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 사이의 사업상 권한과 한계 및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지도 수준을 제고하며 사업 방법을 개선함이 요구된다.

사업에서 유일 관리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무질서와 무규률이 지배함으로써 사무를 번잡하게 하는 실례도 적지 않다.

책임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임무를 지닌 담당 일'군이 있는 곳에 독촉을 위한 일'군을 덧부쳐 보내며 공작원을 파견한 곳에 다시 다른 공작원을 파견하며 진행되는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독촉을 목적으로 삼는 보고를 요구하며 분주한 시기에 독려와 정형 청취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번잡한 사업 방법은 상급 기관 일'군들의 관료주의적 작풍에도 기인되나 하부 일'군들이 사업을 무책임하게 비조직적으로 규률 없이 집행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국가 및 경제 기관에서 공작하는 일부 일'군들은 개인 명의로 양식을 제시하여 정형 보고를 요구하며 기관 책임자의 승인도 없이 생각나는대로 구두 또는 전화로 번잡한 통계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사무에서 막대한 번잡성을 초래하고 있다. 검열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비법적 통계 보고의 절반 이상이 개인들이 하급 기관에 요구하여 진행한 것이였다. 이러한 사업 방법은 국가에서 위임된 사업 권한과 개인의 주관주의적 욕망을 혼동하면서 유일 관리제를 란폭하게 위반하며 사업에서 질서와 제도와 규률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또한 일부 일'군들은 보고를 받음으로써 하급 기관에서 해당 사업 집행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목적으로 번잡한 보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면서 《보고조차 받지 않으면 사업이 아주 추진되지 않는다》고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어떤 일'군들은《부서가 독립적으로 있는 데 통계 보고는 한건도 받는 것이 없어 곤난하다》고 제기하면서 부서의 임무에 알맞는 사업 방법과 부과된 임무의 성격을 연구하지 않고 사무실적 사업 방법을 《창설》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일 관리제를 준수하며 사업에서 질서와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며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제거될 수 있다.

유일 관리제란 지도자의 수중에의 전 관리 계통의 집중을 의미하며 위임된 사업에 대한 개별적 책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일 관리제가 준수된다면 조직된 사업이 제때에 책임적으로 집행되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곤난이 제때에 반영됨에 따라서 독촉식 사업 방법이 근절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며 세밀한 정형 보고로써 사업 집행을 감독할 필요가 없이 현지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생생한 지도를 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성과 유일 관리제를 강화하여 사업을 제때에 옳게 조직 ·통제하며 사업에서 질서와 제도와 규률을 확립함으로써 사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비들을 탐구함이 요구된다.

사업 집행 정형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조직한 사업을 총화함에 있어서 공명심에서 출발하여 이러저러한 수'자를 수집하는 경향도 사무를 번잡하게 하고 있다.

공작원들이 위임 맡은 사업을 복명할 목적으로 현지에서 각종 통계를 작성할 것을 하부에 요구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도 참가자들에게 각종 자료를 준비 지참시키며 보고문에서 부차적인 가치 밖에 없는 수'자들을 라렬하여 사업 성과를 자랑하는 등 일부 일'군들의 공명주의적 사업 방법도 적지 않은 해독을 주고 있다.

방역 위생 사업을 총화하기 위하여 《우물 뚜껑을 새로 만든 수》 《변소를 소독한 건수》 《이 보유자 수》 《쥐 잡은 수》등등 보고를 비법적으로 요구한 실례가 있으나, 이는 방역 기간에 이러한 사업을 얼마나 했는가를 공명주의적으로 표시해 줄지 언정 방역 위생 사업의 지도나 총화를 위한 옳바른 자료로는 될 수 없다.

또한 《기술 전습회 실시 보고》 《영농 기술 강습회 진행 보고》 등 비법적 통계 보고를 수집하여 강습 진행 회수, 참가자 수, 강의 시간, 출연 강사 수 등 수'자를 중심으로 총화하는 이러한 총화에서는 사업에서의 우수한 경험과 결함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형식주의적 공명주의적인 사업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수'자들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결론조차 똑똑히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론은 전혀 얻어 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고들은 능히 출연한 강사들의 수첩에서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나 리 인민 위원회들로부터 수집하는 번잡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부 일'군들은 상급 기관에서 사업을 조직한 것도 집행 정형을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하면 재능을 다하여 세밀하고 번잡한 통계 보고 양식을 《창작》하여 쓸모 없는 번잡한 수'자로써 보고를 작성한다.

해당한 사업의 조직 집행 정형과 해결하여야 할 문제 등을 간단히 전화 또는 문건으로 보고할 대신에 수'자로써 성과를 보고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사업 방법도 공명주의적 작풍에 기인된다.

또한 일부 일'군들은 쓸모 없는 복잡한 통계 자료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상급 기관 일'군들로부터 어쩌다가 전화나 걸려 올까 하고 대기하고 있다. 이는 무질서하게 전화로 독촉을 일삼는 일부 상급 기관 일'군들의 관료주의적 사업에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으나 또한 아첨과 공명을 바라는 해당 일부 일'군들의 낡은 사업 작풍에도 기인된다 고 할 수 있다.

낡은 사상 잔재를 근원으로 하는 공명주의는 회의 시간을 연장하며 문서를 장황하게 하며 수'자를 《증산》 과장하는 등 각 방면으로 로력과 경비를 랑비하며 사업에서 적지 않은 해독을 끼치고 있다.

사업 조직에서 보고를 요구하거나 총화를 준비할 때에 해당한 보고와 총화에서 무엇을 얻어 내며 앞으로 무엇을 보급시키고 어떤 결함을 퇴치할 것인가를 중심 내용으로 하지 않고 성과를 부차적인 각종 수'자로써 과시하려는 공명주의적 사업 방법을 시정하는 것은 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미 수집한 통계 자료의 실효를 높이자.

이미 수집된 자료를 분석, 검토, 정리하지 않으며 과거의 사업 경험을 옳게 살리지 않는데서 불필요한 사무를 증가시키는 사실도 적지 않다.

1956년도에 함경북도 수매 량정 관리소에서 이미 접수한 월보 또는 기보 자료로써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3개년 계획 실행 총결 년보》라는 제목으로

년말에 50여 종이나 비법적으로 산하에 요구한 사실이라든가 강원도 인민 위원회에서 이미 받은 통계 자료로써 능히 작성할 수 있는《량곡 발란스》통계를 년간에 13회나 군 인민 위원회에 요구하였으며 군 인민 위원회도 이를 자체 자료로써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리 인민 위원회에 이첩하여 보고를 접수한 실례들이 이에 해당된다.

사업에서 과거의 경험을 살리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한 결함을 반복하는 사실들이 일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속됨으로써 사무에서 번잡성을 제거하지 못하는 실례도 적지 않다.

특히 계절적으로 사업의 중심이 바꾸어 지는 농산 사업에서는《이미 지난 일》이라 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년도의 사업 경험을 잊어 버리고 또 다시 번잡한 통계와 사업 방법을 되풀이하는 사실이 적지 않게 발로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 부문 사업에서 비법적 통계 보고가 가장 많으며 또한 번잡한 보고들이 매년 반복되어 문제꺼리로 되고 있다.

이중되는 자료를 재차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설정되어 있는 통계 양식과 지도서를 일상적으로 연구하며 규정되어 있는 통계 방법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통계의 가공 분석 방법을 습득하여 접수한 자료들을 지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자료를 사업에 활용한 다음에는 휴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이에 의거하여 사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관 본위 또는 부서 본위를 기준으로 각종 통계나 문건을 받아 들이며 증빙 문건이라는 구실 밑에 번잡한 문건을 작성 보관하는 책임 회피적인 사업 방법 등도 적지 않게 사무를 번잡하게 하고 있다.

평남 맹산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상품 류통 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 하여 군 통계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구 통계를 하부에 지시하여 비법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작년도에 농기구의 생산과 공급 계획 수립에 소요된다고 하여 농업성, 수매 량정성, 소비 조합 중앙 위원회에서 각각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의 양식으로 도 및 시, 군에 지시하여 농기구의 현존수와 소요량을 받아 올린 실례들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결함들은 기관 혹은 부서 호상간의 련계와 사업에서의 협의제를 강화하며 자료를 호상 제공하며 원칙을 고수한다면 제거할 수 있다.

* *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성, 국들을 위시한 각급 인민 정권 기관 내에서 전체 정무원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꾸준히 제고하며 국가 규률을 강화하며 사무를 간소화하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며 기관 본위주의와 부서 본위주의적 경향을 시정하며 매개 행정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다》라고 교시하였다. 우리들은 행정 및 경제 지도 사업을 조직 집행함에 있어서 당 및 정부의 결정 명령에 엄격히 립각하며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반관료주의 및 사무 간소화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증산과 절약을 위하여 적극 동원되어 인민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 통계국
정 영 술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중국 인민의 대만 해방을 위한 투쟁

리 순 청
(李 純 靑)

본 편집국은 얼마전에 독자들로부터 대만 해방 문제와 관련한 많은 질문을 받았다. 본 편집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해당 권위계에 위탁하였던 바 최근 이 론문을 접수하여 리 순청 동지의 론문을 게재한다

1, 대만의 현 정세와 그와 관련되는 문제

전쟁전 대만과 조선은 모두 다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선 독자들과 대만 문제를 말하게 될 때 특히 친밀한 감을 느끼게 된다.

일본이 투항한 이후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에 근거하여 대만은 응당 중국에 귀속되며 조선은 응당 독립하여야 될 것이였다. 이것은 대만성(省) 인민이나 조선 인민이 다 같이 수십년간 투쟁한 목표이였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투항한 지 이미 11년이나 경과하여 세계 정세에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 왔으나 대만은 아직도 미국의 점령하에 있으며 조선도 역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력사적 감정과 현실적 투쟁의 련계로부터 조선 인민은 다만 대만 문제를 잘 료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성 인민들이 대만 해방을 요구하는 결의와 감정도 잘 리해하고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현재 대만은 미국에 의하여 강점되고 있다.

1945년 10월 25일 중국은 이미 대만을 수복하였다. 이날 진 의(陳儀)는 당시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북(台北)에서 일본의 대만 총독 안도 도시요시의 투항을 접수하였다. 동맹국의 많은 군관들과 각국 기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나도 투항을 접수하는 그 식전에 참가한 사람중의 하나이다. 더 상세히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였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였다는 것은 중국 인민의 8년간의 항일 전쟁의 결과이며 또한 세계 인민들의 반파쑈 전쟁의 결과이다. 중국이 일본의 수중으로부터 대만을 수복한 데 대하여 미국은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영국도 또한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더구나 일본으로서는 어떠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었다. 그 시기에는 어떠한 사람도 반대 위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4년 이후——1950년 1월 5일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맨이 발표한《대만에 관한 성명》에서도 역시 <미국 및 기타 동맹국들은 중국의 그 섬 (대만)에 대한 주권의 행사를 또한 승인하였다》라고 인정하였다.

대만은 중국의 령토이였는데 1895년 일본에게 강점되였다. 일본이 대만을 점령한 그 첫 날부터 일본의 대만 통치의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대만 인민을 포함한 중국 인민은 자기의 령토인 대만을 다시 회수할 것을 견지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1937——1945년의 항일 전쟁중 중국 인민은 1천만 이상의 생명을 희생하였으며 일본

의 대만 통치 50년간에 대만성 인민들의 반일 투쟁에서는 50만 이상의 생명이 희생되였다. 중국 인민의 대만 수복은 무수한 선혈로써 바꾸어 온 것이다. 대만은 중국 령토에서 떼여 낼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어떠한 사람도 중국의 대만 수복에 대하여 아무런 의의도 제출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사람도 중국 인민의 대만 수복에 대한 권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은 도리여 미국에 의하여 강점되였다. 대만 문제를 둘러 싸고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1945년 10월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도 아니며 또한 1949년 10월 중화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1950년 6월 미국 정부가 일면으로는 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하고 일면으로는 미 제7 태평양 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하여 무력으로써 중국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한 데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5개월 후인 1950년 6월 29일 트루맨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성명하기를 《나는 대만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시킬 것을 이미 제7함대에 명령하였다. …대만의 장래 지위는 태평양 안전의 회복과 대일 강화 조약의 체결, 혹은 유엔의 고려를 반드시 기다려서 결정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미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강점하였으며 중국 내정에 대한 무력 간섭을 하였으며 동시에 대만의 《지위》 문제를 제출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령토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기도하였다. 대만 문제의 국제적 분쟁은 여기로부터 시작되였다.

유엔 헌장 제2장 제4조에는 《각 성원국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위협 혹은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혹은 유엔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성원국 혹은 기타 국가의 령토 완정 및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범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거한다면 미국의 대만 강점은 비법적이며 그것은 유엔 헌장의 파괴이며 무력을 사용하여 중국 령토의 완정을 침략하려는 것이며 자기의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려는 중국의 주권 행사에 대한 간섭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는 그의 대만 강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도적놈이 마음이 조리는 격으로 미국은 감히 대만 강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21일 미국 국무원 성명에서는 미국은 대만을 《강점》한 것이 아니라 대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미국은 대만을 강점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틀림 없이 무력으로써 대만을 강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제7 태평양 함대를 사용하여 대만 해협을 제압하고 있으며 대만은 미국 해군의 포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다 잘 알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누구든지 대만과 부딪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제7함대와 부딪쳐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다른 사람이 대만에 접근할 것을 용허하지 않으며 중국 인민이 자기의 령토를 해방시키는 것도 용허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만의 군항은 미국의 수중에 있으며 미국의 제72 특파 함대는 팽호도에 주둔하고 있다. 대만의 비행장은 미국의 수중에 있으며 미국은 대만에 로케트 비행기 부대를 륜환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장 개석 집단의 군대는 미국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으며 1951년 5월에는 미국 군사 고문단을 설치하였는 바 이 고문단은 미국의 소위 《군사 원조》에 의하여 장 개석 군대에 대한 공급과 훈련 및 지휘를 책임지고 있다. 1954년 12월 미국과 장 개석간에 소위 《공동 방어 조약》이란 것이 체결된 이후에는 한개의 《대만 련락 중심》이란 것을 성립하였다. 1955년 11월에 이 기구는 《미군 협방(協防) 대만 사령부》라고 개칭되였다. 이 사령부는 작년 2월 29일 대만에 있는 미군 지휘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이미 대만의 장 개석 군대를 전면적으로 장악하였으며 부대의 말단 단위까지 장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14일 뉴욕 포스트지는 《한 해군 장령이 대만의 일체 부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대만의 상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다만 대만의 외부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내부까지 장악하고 있으며 하나의 점령군으로서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총독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무력으로써 대만의 바다와 륙지와 하늘을 강점하고 있으며 장 개석 집단을 조종하고 국민당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사 관계 이외에 또한 미국 자본은 대만에서 가혹한 착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회사들은 대만의 각종 기업을 각각 장악하고 있는 바——화이트 건축 회사는 대만의 교통 및 건축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위시팅호스 전기 회사는 대만의 전력 공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레이노 금속 회사는 대만의 알미늄 공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다트리안 회사는 대만의 화학 비료 공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통용 운수 회사는 대만의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다…. 대만의 가장 중요한 공업인 제당 공업에서는 미국 자본이 전체 자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의 수입 상품의 70%는 미국 물건이며 그중 약 절반은 《미국의 원조 물자》이다. 전쟁전 대만의 대외 무역은 매년 7천 여 만 딸라가 수입 초과되였었는 데 지금은 매년 수입 초과가 1억딸라 이상이다.

장 개석 집단은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서 살고 있다. 《미국의 원조》는 그의 총 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바 1951년——1955년 기간 《미국의 원조》의 총액은 21억 4천만 딸라에 달하며 그중 《군사 원조》는 16억 3백만, 《경제 원조》는 5억 3천 4백만 딸라이다. 미국의 장 개석 집단에 대한 공급 관계는 바로 그것이 장 개석 집단에 대한 지배 관계의 물질적 기초로 된다.

미국의 리용과 지배하에 장 개석 집단이 통치하고 있는 대만은 말할 수 없는 암흑과 공포에 차 있다. 일찌기 1945년 10월에 장 개석 집단의 관료 자본은 일본 제국주의가 가졌던 유산을 계승하였는 바 전 대만의 91%의 산업과 72%의 토지(산림을 포괄한)를 접수하였다. 그들이 대만을 통치한지 겨우 1년 4개월 만에 식량 가격은 7배로 등귀하였으며 로동자들의 실업은 수십만에 달하였고 이와 함께 탐오 사기 특무가 횡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947년 2월 28일에는 대만 인민의 무장봉기가 폭발되였다. 이것은 애국적이며 반장, 반미의 봉기이였다. 이 봉기에서 대만 인민은 수만명이 살상당하였는 바 기릉 항구에는 시체가 바다를 덮었고 가이(嘉義), 고웅(高雄)은 죽움의 도시로 화하였으며 대북의 거리와 골목에는 시체들이 널려졌고 전 대만의 도시와 마을은 피로써 물을 들였다.

대만 사람들은 정치 생활에서 자유가 없으며 경제 생활에서는 더욱 아무런 보장이 없다.

장 개석 집단은 대만에서 전고 미문의 가혹한 착취를 진행하고 있다. 1949년--1955년 기간에 대만의 조세는 52배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염세(鹽稅)는 326배로 증가되였다. 인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수입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1949년 6월 대만 화폐의 발행고는 3천 여 만원이였으나 1955년 12월에 이르러서는 발행고가 47배로 증가하여 벌써 15억원에 달하였다. 1949년 6월 도매 물가를 100으로 한다면 1955년 11월에는 730으로 되였다. 작년 1월에 물가는 또 66.7%가 상승하였다. 장 개석 집단이 각종 수단을 다하여 모은 돈의 대부분은 군사 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바 군사비는 총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성 정부 민정청 1953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대만의 무직 인구는 200만 이상으로서 당시 12세 이상 인구의 37%에 해당되며 1956년 춘기 조사에는 대만의 극빈자의 인구는 1949년의 3배가 된다고 하였다.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령토이며 대만 인민은 중국 인민과 분리할 수 없는 한부분이다. 현재 중국의 령토가 미국에 의하여 강점되고 있으며 중국의 인민이 외국의 노예로 되고 있으므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대만을 해방시킬 신성한 권리와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 대만은 장 개석 집단의 암흑 통치하에 있으며 8백만 대만 동포의 생활은 비참한 처지

에 빠지고 있으며 3만 6천 평방키로의 중국의 금수강산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관할내로 반드시 대만을 해방시키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고난에 빠진 대만 동포를 꼭 구출하고야 말 것이다. 중국 인민은 부득이한 경우에 전쟁의 방법으로써 대만을 해방하는 이외에 평화적 방법으로써 대만 해방을 쟁취할 것을 희망한다. 대만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 바 하나는 중미간의 국제적 분쟁 문제이며 하나는 중국 인민과 장 개석 집단 간의 내정 문제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반드시 구별되여야 하며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2, 우리는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희망한다.

미국의 대만 강점 행위에 대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및 중국 인민은 부단히 항의하였고 세계 여론에 부단히 호소하였다. 1956년 6월 28일 트루맨 성명이 있은 그 다음날 국무 총리 겸 외교부장 주 은래는 곧 성명을 발표하였다《나는 현재 중화 인민 공화국 중앙 인민 정부를 대표하여 성명한다. … 트루맨의 27일 성명과 미국 해군의 행동은 곧 중국 령토에 대한 무력 침범이며 유엔 헌장에 대한 철저한 파괴이다》, 《나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 중앙 인민 정부를 대표하여 선포한다… 미 제국주의가 어떠한 방해 행동을 취한다 하여도 대만이 중국에 속하였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바 이는 다만 력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이 투항한 이후의 현실이 이를 긍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일심 단결하여 미국 침략자의 수중으로부터 대만 해방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이 성명을 발표한 이후 동년 8월 24일 주 은래 외교부장은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 전문을 보내여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범을 항의하며 이 문제를 8월 19일 안전보장 리사회 림시 의정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9월 안보 리사회는 중국이 대표를 파견하여 토론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의 특파 대표 오 수권은 11월 레이크 삭세스에서 열린 안보 리사회에 참석하여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범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였다. 1) 유엔 안보 리사회는 미국 정부의 중국 령토인 대만 침략과 조선에 대한 무력 간섭의 죄상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며 아울러 이를 엄격히 제재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채택할 것. 2)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으로부터 그의 무력 침략의 력량을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태평양 및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채택할 것, 3) 미국 및 기타 외국 군대는 조선에서 일제히 철수하며 조선 내정은 남북 조선 인민 자체가 해결함으로써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채택할 것. 유감스럽게도 안보 리사회는 미국의 조종 밑에 중국의 제의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조선 전쟁 기간 대만 문제는 토의되지 않고 말았다.

중국 각 민주당파들은 1950년 11월 4일에 전국 인민이 자원적 기초우에서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는 련합 성명을 발표하였다. 1954년 8월 22일 중국 각 민주당파와 인민 단체들은 대만 해방을 위하여 《대만은 중국의 령토이므로 중국 인민은 대만을 반드시 해방해야 한다. 대만은 중국 령토로부터 떼여낼수 없는 한 부분이므로 미국의 강점을 절대 용허할 수 없으며 유엔에 신탁 관리를 시킬 수 없다. 대만을 해방하며 장 개석 매국 집단들을 소멸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 행사이며 중국의 내정이므로 절대 어떠한 외국의 간섭을 용허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한다》는 련합 성명을 또 다시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며 정당하고도 엄숙한 선언이였다.

이것은 6억 중국 인민의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공동의 의지이다.

1954년 10월 10일 주 은래 외교 부장은 또 유엔총회 제9차 회의에 전문을 보내여 미국이

중국 대만을 무장 침략한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를 다시 제출하는 동시에 제9차 회의는 책임적으로 안보 리사회로 하여금 중국 인민의 대만 해방을 간섭하는 미국 정부의 침략 행동을 저지시키며 또한 미국 정부가 대만, 팽호렬도 기타 중국에 속하는 도서에서 미국의 각종 무장 력량과 일체 군사 위원들을 철거시키도록 촉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 제9차 회의에서는 역시 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때에 미국 정부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대만을 제압하는 행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1954년 12월 2일 미국 정부는 중국 인민의 루차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 개석 집단과 소위 《공동 방어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체결한 기도는 명백하다. 그것은 즉 미국이 무장으로 대만을 침략하는 행동을 합법화시키며 대만 지역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대만을 근거지로 하여 중국을 침략하며 새로운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중국 인민의 대만 해방을 저지시키려는 것이였다.

물론 이 조약은 비법적이며 무효인 것이다. 장 개석 집단은 중국을 대표할 수 없으며 또한 대만성을 대표할 수도 없으며 장 개석은 외국과 어떠한 조약을 체결할 아무런 자격도 없다.

1955년 1월 28일 중국 인민 해방군은 절강성 해상에 있는 일강산도를 해방하였는 바 이 전투는 미국을 놀라게 하였다. 미국은 신속히 자기의 극동 함대들을 중국 연해에 집중하여 중국 해상에 병력을 강화하고 전쟁을 떠버렸다. 1월 28일 미국 국회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국의 무장 부대로써 대만을 보위하며 대만 보위와 관련된 곳에 자기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중국 인민은 미국의 전쟁 위협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중국 인민은 평화를 요구하나 또한 전쟁도 절대 겁내지 않는다. 2월 13일 중국 인민 해방군은 또 대진도, 어산렬도, 피산도 등 도서들을 해방시켰는 바 이것은 중국 인민이 대만을 해방시키는 길로의 전진이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이 무력으로써 중국의 령토 대만을 강점한 데로부터 대만 지역에는 긴장 상태가 조성되였으며 대만 문제는 폭발성을 띠게 된 것이다.

국내외의 여론과 압력에 못이겨 미국 정부는 1955년 8월 1일 제네바에서 중 미 대사급의 회담 진행을 부득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한 자리에서 담판하게 되였다. 회담에서는 2개의 의정이 결정되였다. 1) 쌍방의 일반 주민을 귀국시키는 문제. 2) 쌍방이 론쟁하고 있는 기타 실제적 문제. 첫째 의정은 9월 10일에 협의에 도달하였다. 9월 14일 중국 대표 왕 병남 대사는 제2항의 의정으로서 《수출 금지 문제》와 《한급 더 높은 중 미 회담 문제의 준비》등을 제의하였다. 중국은 한급 더 높은 회담에서 원동의 긴장 상태 완화에 대한 문제와 특히는 대만 지구의 긴장 상태 문제의 토의를 희망하였다.

1955년 9월 10일 이후 중 미 회담은 무력 사용에 관한 문제에 들어 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였다. 즉 미국은 중 미 량국이 성명을 발표하여 대만 지구를 포괄하여 쌍방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미국의 대만 지구에서의 《단독 또는 집체 자위의 권리》를 승인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성명에 동의할 수 없다. 대만은 중국의 령토이며 중국이 대만을 해방하는 것은 주권의 행동이며 내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제약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의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다면 중국 방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만 강점의 현상을 승인하는 것과 같으며 미국의 중국 내정 간섭을 승인하는 것과 같으며 중국이 자기의 령토인 대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미국인이 대만 지구에서 이미 무력을 사용하고 있고 무력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비추어 중국 인민은 정확히 실현될 수 있

으며 절실히 가능한 길인 두개 방안을 제출하였다. 첫째 1955년 10월 29일에 중국이 제출한 성명에는 량국이 대만 지구에서의 분쟁을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며 동시에 중 미 외상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리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대만 지구의 분쟁 해결은 《무력에 의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중 미 량국은 회담을 곧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미국의 무기한적인 대만 강점을 용인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1955년 12월 1일 중국은 중 미 량국이 우선 국제 분쟁을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그후에 량국 대사는 회담을 계속하여 다같이 희망하며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탐구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의 리유도 역시 간단하다. 미국은 중 미 외상 회의 진행을 반대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담판 진행도 바라지도 않으며 대만 문제를 포괄한 성명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두개의 방안을 미국은 다 접수하지 않고 중 미 외상 회의 진행도 찬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성명을 발표하자는 것도 찬성하지 않았다. 문제의 실질은 미국이 대만의 영원한 강점을 기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어쨌던 대만 강점은 어떠한 리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바 미국은 다음과 같은 론리에 맞지 않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1. 대만은 중국의 령토라는 것을 그는 승인하지 않으면서 또 대만은 중국의 령토라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작년 1월 21일 미 국무원 성명에서는 《대만은 원래 공산당 중국의 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실지에 있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0년 6월 29일 트루맨 성명에는 대만의 《지위》 문제를 제기하였는 바 이것은 곧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렬시켜 아주 영원히 점령할 기도이였다.

이와같은 음모는 1951년 9월 싼프란씨스코에서 체결한 대일 강화 조약 가운데서도 역시 표현되여 있는 바 그 조약 제2조 제2항에는 《일본은 대만 및 팽호 렬도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리에 근거한 요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단지 일본이 대만과 팽호 렬도를 포기할 것을 규정하였을 뿐 대만이 중국에 귀속되여야 한다는 것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곧 미국이 대만은 중국의 령토라는 것을 부인하려는 기도이다. 이것은 미국의 배신적인 행동으로써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으로는 1954년 12월 미국과 장 개석 집단간에 《공동 방어 조약》을 체결하고 대만은 장 개석 집단의 소유이란 것을 인정하고 장 개석 집단의 명의는 《중화 민국》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곧 미국이 대만은 《중화 민국》 중국의 령토라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만약 대만이 중국의 령토에 속한다는 것을 긍정하려면 결국은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또 모순에 빠지고 있다.

2. 미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또 중화 인민 공화국과 회담을 하고 있다.

세계상에는 다만 하나의 중국만 있다. 중국은 어데서나 찾기가 어렵지 않다. 중국은 몇천년을 내려 오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즉 지구의 동반부에 있으며 토지 면적은 미국을 초과하며 인구는 미국의 4배나 되는 국가, 당당한 중화 인민 공화국, 그것이 곧 중국이다. 미국이 승인하든 아니하든지를 불문하고 그는 존재하고 있으며 곧 중화 인민 공화국이 있으므로 하여 중국과 중국 인민을 능히 대표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공산당 중국》이라고 부른다.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공산당 중국》도 중국이 아니라고는 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장 개석 집단을 가르켜 《중화 민국》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나 어쨌던간에 1949년 10월 1일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성립된 이후부터 장 개석 집단은 한개의 지방 당국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대만은 중국의 한 성(省)이며 그는 오래전부터 한개의 국가가 아니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의 국가로는 될 수 없다.

미국은 집요하게도 중국은 대만에 있으며 대만을 제외하고서는 중국은 없다고 한다. 그것은 눈을 가지고도 태산을 보지 못하는 격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그는 또 중화 인민 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제네바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와 담판을 진행하고 있다.

3. 미국은 장 개석 집단을 리용하며 동시에 장 개석 집단을 포기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대만 강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은 장 개석 집단을 한개의 침략도구로 삼는 것이 필요하였다. 미국 정부는, 대만은 장 개석 집단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지 미국이 대만을 강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대만에 있는 장 개석 집단은 미국의 제압과 조종을 받고 있다. 트루맨의 말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작년 2월 2일 뉴욕에서 트루맨은 아이젠하워 정부가 집권하자 마자 《장 개석을 둥지에서 내 놓아야 되겠다》고 떠들다가 《결국 미국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자 장 개석을 또 다시 얽어 매여 놓았다》라고 말하였다. 보라! 미국은 장 개석 집단을 자기 마음대로 《둥지에서 놓아 주기도 하고 다시 혹은 《얽어 매여 놓기도》 한다.

세계 여론의 규탄 앞에 미국은 장 개석이란 이 도구를 장기적으로 리용하기에는 곤난하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 다른 한개의 음모를 준비하고 있는 바 작년 2월 28일 동경에서 《대만 공화국 림시 정부》라는 것을 만들었다. 인민이 없는 소위 총통 료 문이는 대만에 적을 가진 매국 적이다. 료 문이는 《대만은 대만 사람의 대만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이와 같은 희극은 조금도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은 이렇게 준비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시에는 장 개석을 내여 쫓고 료 문이를 대만으로 불러다가 대만국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국을 중국으로부터 떼여 낼 수 있으며 미국이 영원히 대만국을 조종할 수 있고 그래서 대만을 강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4. 미국은 대만을 강점하고 있는 것이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침략 전쟁을 위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만은 중국의 연해에 있으며 서태평양 끝에 처하여 미국과는 6천 해리(海里)나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라했던 대만과 미국의 국방 안전이라는 것은 얼토 당토 않은 수작이다.

1950년 1월 12일 당시의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권은 아류산 군도, 일본, 류규(琉球)렬도와 비률빈이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애치슨도 감히 대만을 미국의 방어권 내에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조선 전쟁이 폭발된 후 미국의 국방선은 서쪽으로 침입하여 들어 왔다. 1951년 8월 28일 맥아더는 《미국은 태평양 도서에 철의 방어선을 건설해야 한다. 대만은 즉 이 철의 방어선의 <일단>이다》라고 말하였다. 1954년 아이젠하워가 국회에 보낸 교서에 의하면 《미국이 방어해야 된다고 인정한다면 전 중국까지라도 미국의 적당한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목표로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 기자 두노만이 쓴 《아이젠하워의 내막의 정형》이라는 재료에는 1955년 1월 24일 국회가 대통령에게 미국 무장 부대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그 결정에 의하면 대만과 대륙간에는 확실한 방어선이 없으므로 아이젠하워는 자유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 소식에 의하면 레드포드는 《미국과 공산당 중국과 부딪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곧 부딪쳐서 전쟁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모든 사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진공하며, 침략하며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방어선은 부단이 중국으로 이동되고 있다. 오늘 미국의 무장력은 이미 중국의 대 문안인 대만에 침입하였다. 이것을 《방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어떤 나라가 제멋대로 타국 령토에 방어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 중국의 방어선도 미국의

쌘프란시스코에까지 갈 수 있지 않은가?를 묻고 싶다.

상술한 모순들을 어느 곳에서나 어느 사람과 담판하여 본다 할지라도 미국 대표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령토 대만 침략을 포기할 대신에 도리여 《무력에 의거하지 말자》라는 기만적 성명으로써 중국 정부가 대만과 기타 연해 도서를 해방하는 주권 행동을 구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절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미국과 마주 앉아서 담판을 통하여 대만 문제에 대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며 대만 지역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며 대만 지역에 있는 일체 미국 무장부대를 철거하며 중국 내정을 간섭하지 말고 중국 인민들이 평화적으로 대만을 해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우리는 대만 당국과 대만을 평화적으로 해방할 데 대하여 협상할 용의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2차에 걸쳐 협동작전한 일이있다. 즉 봉건 군벌을 타도하기 위하여 공동 합작으로 북벌을 진행하였으며 또 일본 침략자를 저항하기 위하여 공동 합작으로 항일 전쟁을 수행하였다.

1945년 항일 전쟁이 결속된 후 공산당과 국민당은 역시 국내의 평화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다만 미국 세력이 일본의 지위를 대신하여 중국에 침입하여 장 개석을 장악하였으며 장 개석은 미국의 의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전이 발생되였던 것이다. 4년에 걸치는 전쟁 기간에 미국은 60억딸라를 지출하여 국민당에게 비행기, 대포 및 땅크 등등을 포함한 각종 무기로써 국민당을 방조하였다. 내전의 결과 인민 해방군은 국민당 군대 807만명을 섬멸하였는 데 그중 179만명의 국민당 군대는 의거 혹은 투항하였다. 또 다른 결과는 국민당의 정부——국민 정부를 전복시키고 중국 인민은 자기의 정부 형식을 선택하여 1949년 10월 1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를 창설하게 되였다.

만일 대만의 국민당 군사 정치 인원들이 민족과 국가의 립장에서 조국을 사랑하며 동포를 사랑하고 자기 개인의 리해를 타산하지 않으며 일 당의 사리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흔연히 뉘우치고 얼른 돌아 와야 한다.

중국 인민은 관대하다. 해방 전쟁 기간에 우리는 국민당 인원들에게 관대하였다. 1949년 4월 25일 중국 인민 해방군은 약법(約束하는법—역자) 8개장을 발표하였는 데 그중 제5장에는 《회개하지 않는 극악한 전쟁 범죄자와 죄가 큰 극악한 반혁명 분자를 제외하고》 기타 국민당 군사 정치 인원들은 《일률적으로 포로하거나 체포하거나 모욕을 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인민 해방군은 매개 지방을 해방할 때마다 그 지방의 국민당 군사 정치 인원들을 전부 포섭하여 안정시켰으며 일을 주었다. 이것은 사람마다 목격한 사실이다.

1949년 1월 31일 북경(당시는 북평이라고 불렀다)이 평화적으로 해방되였다. 부 작의 장군은 평화 해방에 대한 8개 조건을 접수하고 약 20만명이나 되는 국민당 군대를 인민 해방군에 편입시켰다.

북경을 평화적으로 해방한 후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국민당 남경 정부와 평화 담판을 진행하였다. 1949년 4월 쌍방은 평화 협정 초안 8조 24항을 담판하여 결정하였으나 다만 남경 정부가 협정을 거절하고 접수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인민 해방군은 비로소 장강(長江)을 넘어 작전을 계속하였다.

이 이후에도 평화 해방의 실례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1949년 8월 정 잠(程潛), 진 명인(陳明仁) 두 장군이 의거하여 호남(湖南)이 평화적으로 해방되였다. 1949년 9월 19일에는 수원(綏遠)의 군대와 인민이 의거함으로써 수원이 평화적으로 해방되였으며 1949년 9월 25일에는 도 치악(陶峙岳) 장군이 국민당 정부로부터 리탈할 것을 통전하여 옴으로써 신강이 평화적으로 해방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이 창설된 이후만 하더라도 지베트 지역이 평화적으로 해방되였다.

북경 해방으로부터 지베트 해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애국주의적 립장에서 쌍방이 담판하였는 데 각이한 정형에 근거하여 각이한 조건으로 협의가 달성되였다. 다만 제국주의의 간섭, 기만과 도발이 없는 한 중국 내정 문제는 협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오랜 환난을 겪어 온 중국 민족은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협상의 방법으로 대만을 해방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우리들은 확신한다.

대만에 있는 장 개석 집단은 한개의 지방 당국이다. 1949년 12월 7일 장 개석의 《국민 정부》는 대만으로 옮겨 갔다. 사실상 그때로부터 《국민 정부》는 이미 중국 인민에 의하여 전복되였다. 1950년 3월 1일 장 개석은 대만에서 괴뢰 총통의 명의를 회복하고 대만을 절취하고 말았다.

주 은래 총리는 또 1956년 6월 26일 제1기 전국 인민 대표 회의 제3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나는 정부를 대신해서 언명한다. 우리는 대만 당국과 평화적으로 대만을 해방하는 구체적 조치와 조건을 협상하며 또한 대만 당국이 자기가 적당한 시기라고 인정할 때 북경 혹은 적당한 지역에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와 이런 협상을 진행할 것을 희망한다.

조국의 애국적 력량을 단결하여 조국의 완전 통일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한다. 우리는 일체 애국적 인사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애국행렬(愛國行列)에 먼저 참가하였거나 나중 참가하였거나를 막론하고 그들이 과거에 얼마만한 죄'과가 있었든지를 또한 막론하고 애국일가(愛國一家)라는 원칙에 립각하여 지난 날을 묻지않는 태도를 취하며 그들이 평화적으로 대만을 해방하기 위하여 공로를 세울 것을 환영하며 또한 그들은 그들이 세우는 공로의 대소에 따라 적당한 표창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세계 여론의 찬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리(事理)와 방법은 대만에 있는 국민당 내부에서도 일정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장 개석 집단이 외국의 힘에 의존해서 그의 잔명을 유지하며 그들 내부에 모순이 혹심해서 호상 알륵이 생기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대륙의 고향을 그리워 하고 있다.

4. 중국 인민은 대만을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강점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대만은 종국적으로 중국에 돌아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대만에 있는 장 개석 도당들이 미국을 추종하는 것은 아무런 출로도 없는 것이며, 또한 장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국민당의 군사 정치 인원들에게는 오직 두개의 길이 있는 바, 즉 하나는 계속 미국을 추종하여 대만 동포들을 외래 통치의 처참한 곤경에 빠뜨리고 자기들도 죽엄의 길을 걷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애국적인 량심을 분발하여,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만을 해방하는 길이다. 죽고도 죄를 씻지 못하는 길과 살아서 영광을 누리는 이 두개의 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은 오직 하나이다. 중국의 령토는 분렬될 수 없다. 장 개석 집단은 중국을 대표할 수 없으며 또한 대만성을 대표할 수도 없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정확한 길이 있을 뿐이다. 즉 전국적 정부이며 통일적 정부인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조국에 복종하여 대만 지방 당국의 문제들을 처리하여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중국 인민은 《두 개의 중국》을 반대하며 또한 소위 《공민 투표》니 《대만 독립》등의 황당 무계한 주장도 반대한다.

첫째로, 유엔은 대만에서의 그 어떤 《공민 투표》의 실시를 지도할 수 없다.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는 《본 헌장은 본질상에 있어서 그 어떤 국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유

엔이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각 성원국은 본 헌장에 의하여 그러한 사건들의 해결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여 있다.

유엔은 각 성원국의 내정을 간섭할 수 없다. 대만은 중국의 령토이므로 유엔은 미국이 무력으로써 중국의 령토인 대만을 침략하는것을 응당 저지해야 하며 중국 내정 문제에 속하는 대만 문제를 간섭할 수는 없다.

둘째로 대만에는 《공민 투표》가 필요 없다: 력사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또한 실제에 있어서나 대만은 중국의 령토이다. 대만이 중국에 속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분쟁도 있을 수 없으며 아무런 분쟁의 근거도 있을 수 없다. 여기에는 아무런 의문도 없으며 또한 의문을 가질 리유도 없다.

세째로 대만은 근본적으로 그 무슨 《보호》 문제가 서지 않는다. 《보호》란 뜻은 곧 신탁관리를 의미한다.

중국의 령토에는 중국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조국을 가지고 있는 데 또 무슨 《보호》가 요구된단 말인가?

유엔 헌장 제12장의 국제 신탁 관리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령토에 한하여 신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 현재 위탁 통치하에 있는 령토, ㄱ, 제2차 세계 대전에 의해서나 혹은 적대국으로부터 떼여 낸 령토, ㄷ,관리를 책임진 나라가 이 제도의 실시를 자원하는 령토들이다. 대만 령토의 성질로 말하면 이상 세종의 그 어느 것에도 전연 해당되지 않는다.

대만은 중국의 령토이다. 중국은 하나의 대국이므로 자기의 령토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력량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세력으로써 우리의 대만을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조금도 없다. 중국 인민은 그 어떤 외국의 《보호》란 구실 밑에 실지에 있어서 대만을 강점하려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 용허할 수 없다. 미국은 자유와 독립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라고는 하나 그가 침략 전쟁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의 환심을 상실당하였으며 도처에서 그의 명예는 여지 없이 저락되였다. 남의 령토를 보호하려고 생각말고 자기의 명예나 잘 《보호》하기 바란다!

중국의 대만은 중국에 귀속되여야 한다. 대만 해협의 파도가 제아무리 거세고 대만을 해방하는 길이 제아무리 험난하다고 하여도 중국 인민은 꼭 이길을 향하여 전진할 것이며 또 용감히 전진할 것이다.

《근로자》 제 4 호 (루계 제13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 1957년 4월 20일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년 4월 25일

ㄱ—40 448 값 45원